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 사건

【결정사안】

정임조(鄭任朝) 등 경상남도 산청·거창·함양·고성·사천·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활동 혐의·군경 토벌작전·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규명하고,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민 김동락(호적상 金鍾洛)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 사례.

【결정요지】

1. 정임조(鄭任朝, 사건번호 다-76호) 등 경상남도 산청·함양·사천·고성·거창·거제지역 주민 108명(확인 105명, 추정 3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활동 혐의·군경 토벌작전·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지역의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2.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① 한국전쟁 전에는 여순사건의 수습을 위해 구성된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등의 예하 부대, 즉 국군 제3연대·5연대·9연대·16연대·17연대 3대대·19연대·20연대(4연대의 재편)·23연대 1대대·독립유격대대·해병대(일명 김○○ 부대)·호림부대 등과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이며, ②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백야전 전투사령부와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 및 사찰유격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1차적인 가해 책임은 본 사건의 발생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한 국군과 관련 지역 경찰서 및 경상남도경찰국 등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권력의 불법 행사를 감시·방지하지 못했던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3. 본 사건에서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었다. 국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좌익활동 및 빨치산 협조 혐의와 부역혐의 등으로 불법연행·감금·구타·고문·살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4. 본 사건은 국방부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국군과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공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러

제 5 권

므로 본 사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의 폭력을 통제·예방하지 못한 국가에 귀속된다.

5.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민 김동락(호적상 金鍾洛, 사건번호 다-3726호)에 대해서는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한 희생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하였다.

6.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사과할 것과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 지원 조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할 것과 본 사건의 진실규명 내용을 관련 역사기록에 반영하고,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할 것을 권고한다.

【전 문】

【사 건】 다-76호 등 50건,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

【신청인】 정병길 외 72명

【결정일】 2010. 6. 29.

【주 문】

- 다-76호 등 49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진실규명으로 결정한다.
- 다-3726호 1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므로 '진실규명불능'으로 결정한다.

【이 유】

I. 조사개요

1. 사건개요

가. 신청 접수와 처리

신청인 정병길(사건번호 다-76호) 외 72명은 2006년 5월 17일부터 2006년 11월 30일까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에 한국전쟁 전후(1949년~1951년)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거창군·사천시·고성군·거제시에서 군경에 의해 받

생한 민간인 희생사건의 진실규명을 신청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해 제10차(2006. 5. 30.)·제17차(2006. 9. 29.)·제24차(2007. 1. 9)·제27차(2007. 2. 6.)·제28차(2007. 2. 13.)·제34차(2007. 5. 29) 집단희생규명 위원회에서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민간인 희생사건’·‘경남지역 군경 토벌작전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부산·경남지역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등으로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본 사건의 신청건수는 총 50건이며, 진실규명대상자는 총 88명이다. 본 사건의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은 <표 1>과 같다.

<표 1> 진실규명신청서 접수 현황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연월일
산청군								
1	76	2005.12.7.	정병길(鄭炳吉)	정임조(鄭任朝)	남	52	부	1949.11. 중순 ¹⁾
		2005.12.7.	정병준(鄭炳埵)	정경조(鄭敬朝)	남	59	부	1949.11. 중순 ²⁾
		2005.12.7.	정호경(鄭煥堦)	정병선(鄭炳善)	남	33	부	1949.11. 중순 ³⁾
		2005.12.7.	김택수(金宅洙)	김종태(金鍾泰)	남	24	부	1949.11. 중순 ⁴⁾
		2005.12.7.	김봉수(金奉洙)	김종렬(金鍾列)	남	25	부	1949.11. 중순 ⁵⁾
		2005.12.7.	김인수(金仁洙)	김종철(金鍾喆)	남	23	부	1949.11. 중순 ⁶⁾
		2005.12.7.	민화식(閔和植)	민영철(閔泳喆)	남	24	부	1949.11. 중순 ⁷⁾
		2005.12.7.	김양환(金良煥)	김의열(金義烈)	남	27	부	1949.11. 중순 ⁸⁾
		김의경(金義旻)		남	20	삼촌	1949.11. 중순 ⁹⁾	
		2005.12.7.	김삼환(金三煥)	김의찬(金義贊)	남	32	부	1949.11. 중순 ¹⁰⁾
		2005.12.7.	김경수(金敬洙)	김의수(金義洙)	남	18	형	1949.11. 중순 ¹¹⁾
		2005.12.7.	박갑연(朴甲年)	김태수(金泰洙)	남	14	시조카	1949.11. 중순 ¹²⁾
		2005.12.7.	김종기(金宗基)	김병은(金炳殷)	남	17	형	1949.11. 중순 ¹³⁾
		2005.12.7.	곽노경(郭魯京)	곽상근(郭相根)	남	22	부	1949.11. 중순 ¹⁴⁾
		곽노숙(郭盧叔)		남	17	삼촌	1949.11. 중순 ¹⁵⁾	

제 5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연월일
1	76	2005.12.7.	배덕술(裵德戌)	배쌍돌(裵雙鬍)	남	48	부	1949.11. 9 ¹⁶⁾
				배덕출(裵德出)	남	19	형	1949.11. 중순 ¹⁷⁾
		2005.12.7.	노재호(盧載鎬)	노충환(盧忠煥)	남	27	부	1949.11. 중순 ¹⁸⁾
		2005.12.7.	권숙이(權淑伊)	권상근(權相根)	남	33	부	1949.11. 중순 ¹⁹⁾
		2005.12.7.	김준의(金俊義)	김의중(金義鍾)	남	66	부	1949.11. 중순 ²⁰⁾
				김의섭(金義燮)	남	50	삼촌	1949.11. 중순
2	338(1)	2005.12.29.	박도일(朴道一)	김인구(金仁球)	여	20	모	한국전쟁 전후 음력 12.29.
			박도열(朴道烈)	박근생(朴根生)	남	23	부	한국전쟁 전후 음력 11.22.
			박용운(朴龍雲)	박우문(朴又文)	남	36	부	1949.12.30.
			배복순(裵福順)	강우실(姜又實)	남	46	시부	1950.2.9.
			김진태(金秦泰)	김종철(金鍾喆)	남	49	부	1950.1.8.
			정의선(鄭義善)	정오교(鄭五敎)	남	25	부	1950.12.20.
3	341	2005.12.29.	하주갑(河周甲)	하주익(河周益)	남	23	동생	950.11.10.
4	374	2005.12.28.	홍상택(洪祥澤)	홍진화(洪鎭華)	남	67	부	1950.10.28.
5	649	2006.1.13.	홍종수(洪宗洙)	홍창곤(洪昌坤)	남	72	조부	1950.11.30.
6	2283	2006.3.10.	권재모(權載模)	권월봉(權月鳳)	남	41	부	1947.~1950.
7	4006	2006.6.23.	민순조(閔順祚)	김병우(金炳祐)	남	18	남편	1949.9.20.
8	4352	2006.7.14.	임수환(林守煥)	임재문(林在文)	남	46	부	1949.9.29.
9	4412	2006.7.24.	민성식(閔成植)	민대식(閔大植)	남	20	형	1950.10. 초순 ²¹⁾
10	4441	2006.7.25.	김성덕(金成德)	김상수(金相洙)	남	17	숙부	1950.10.경 행방불명 ²²⁾
11	5264	2006.9.25.	강대식(姜大植)	강태수(姜泰守)	남	48	부	1950.12.6. ²³⁾
12	6502	2006.11.02.	남순금(南順今)	김임갑(金任甲)	남	36	남편	1949.10.경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연월일
13	6863	2006.11.16.	황윤규(黃潤圭)	황경준(黃庚俊)	남	40	부	1950. 한국전쟁 전후
				황축천(黃丑賤)	남	37	숙부	1950. 한국전쟁 전후
14	7042	2006.11.21.	최정소(崔正昭)	최명영(崔明永)	남	22	숙부	1948.12.8.
15	7360	2006.11.23.	오문환(吳文煥)	오인호(吳仁鎬)	남	58	조부	1949.8.19.
16	7394	2006.11.23	차승현(車承鉉)	양경순(梁敬順)	여	72	조모	1951.2.12. ²⁴⁾
17	7450	2006.11.23.	최근호(崔根浩)	최우학(崔又學)	남	50	부	1951.11.25.
18	7451	2006.11.23.	김병우(金炳佑)	김상근(金尙根)	남	51	부	1949.6.14.
19	7453	2006.11.23.	배춘근(裴春根)	배영선(裴永善)	남	46	부	1949.9.29.
20	7515	2006.11.23.	한명우(韓明愚)	한윤생(韓允生)	남	19	형	1950.11(음) ²⁵⁾
21	7717	2006.11.24.	김일선(金一善)	김차조(金且祚)	남	37	부	1950. 가을 ²⁶⁾
22	7719	2006.11.24.	박암(朴岩)	박우출(朴又出)	남	39	부	1949. 음력 9.30.
23	8145	2006.11.29	문도주(文道柱)	문홍조(文洪祚)	남	34	부	1950.9 초(음) ²⁷⁾
24	8315	2006.11.30.	송지영(宋智永)	송성서(宋成序)	남	45	부	1950. 한국전쟁 이후
				송진호(宋辰虎)	남	32	숙부	1950. 한국전쟁 이후
25	8321	2006.11.30.	오재춘(吳在春)	오규환(吳奎煥)	남	28	부	1949.11.19.
26	8735	2006.11.30	조재현(曹在賢)	조주환(曹柱煥)	남	55	조부	1951. 초겨울
				강월선(姜月善)	여	23	숙모	1951. 초겨울
				조인현(曹仁鉉)	남	1	사촌	1951. 초겨울
27	8736	2006.11.30.	진쌍호(陣雙鎬)	진재석(陣在錫)	남	25	5촌 당숙	1949.10.경
28	8827	2006.11.30.	박암(朴岩)	박판대(朴判大)	남	32	숙부	1949. 음력 9.30.
29	8830	2006.11.30.	박옥선(朴玉仙)	박완주(朴完柱)	남	35	부	1949.10.30.
30	8901 ²⁸⁾	2006.11.30.	권길영(權吉永)	권세도(權世道)	남	25	백부	1951.2.5.
31	9240	2006.11.30	서석환(徐錫煥)	서금득(徐今得)	남	39	조부	1951. 가을 ²⁹⁾

제 5 권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연월일
32	9241	2006.11.30	서석환(徐錫煥)	서판준(徐判俊)	남	32	작은 할아버지	1951. 가을 ³⁰⁾
33	9248	2006.11.30.	권문혁(權文赫)	권명이(權命伊)	남	41	부	1950. 초
				권중명(權中命)	남	35	숙부	1950. 초
34	9378	2006.11.30.	권유현(權由鉉)	권재만(權載萬)	남	28	부	1949. 음력 7월
35	9882	2006.11.30.	김두태(金斗台)	김천수(金千壽)	남	59	부	1949.8.19.
				박고비(朴古非)	여	56	모	1949.8.19.
36	9990 ³¹⁾	2006.11.30.	권길영(權吉永)	권세도(權世道)	남	25	백부	1951.2.5.
37	10325	2006.11.30.	정영희(鄭永喜)	정화석(鄭華錫)	남	25	백부	1949.8.7.
38	10670	2006.11.30.	민영학(閔泳鶴)	민만호(閔萬鎬)	남	33	부	한국전쟁 전후 음력 9.10.
39	10676	2006.11.30.	김종원(金鍾源)	김명준(金命俊)	남	28	형	1949. 음력 3월
40	10677	2006.11.30.	장기석(張起碩)	장재호(張在鎬)	남	32	부	1949.10.경
함양군								
41	951	2006.1.25	정연상(鄭然相)	정위상(鄭瑋相)	남	17	형	1950.10.경 행방불명 ³²⁾
사천시								
42	9853	2006.11.30	이덕선(李德善)	이철래(李喆來)	남	27	부	1949. 봄 행방불명 ³³⁾
43	9854	2006.11.30	김학선(金學善)	김학수(金學守)	남	28	부	1949. 봄 행방불명 ³⁴⁾
44	9992	2006.11.30	류기영(柳其永)	류하영(柳河永)	남	18	형	1949.11.5. ³⁵⁾
고성군								
45	마-9872 ³⁶⁾	2006.11.30	최선아(崔善娥)	최연갑(崔然甲)	남	28	부	1950. 가을 ³⁷⁾
거제시(당시 통영군)								
46	5626	2006.9.27	강명용(姜命用)	강정길(姜正吉)	남	23	삼촌	1949.5.
거창군								
47	358(2)	2005.12.28.	엄석주(嚴碩株)	박시남(朴時南)	여	42	모	1951.2.28.

연번	사건번호	접수일자	신청인(한자명)	진실규명대상자				
				이름(한자명)	성별	당시 나이	신청인과의 관계	사망연월일
47	358(2)	2005.12.28.	정동일(鄭東日)	정동해(鄭東海)	남	30	숙부	1950.12.10.
		2005.12.28.	정동일(鄭東日)	정을해(鄭乙海)	남	25	숙부	1950.12.10.
		2005.12.28.	정동일(鄭東日)	정관해(鄭寬海)	남	21	숙부	1950.12.10.
		2005.12.28.	김재명(金在明)	최진순(崔鎭順)	여	26	모	1951.1.21.
		2005.12.28.	김정환(金正煥)	김철주(金喆注)	남	29	부	1951.1.21.
		2005.12.28.	김성기(金成基)	김창수(金昌洙)	남	30	백부	1951.1.21.
		2005.12.28.	김성기(金成基)	김창식(金昌植)	남	28	백부	1951.1.21.
		2005.12.28.	김복달(金福達)	김판금(金判金)	남	32	부	1951.1.21.
48	1282	2006.2.15.	이무근(李茂根)	이덕술 ³⁸⁾ (李得術)	남	57	부	1951.3.16.
49	3726	2006.5.26.	김동오(金東五)	김동락 ³⁹⁾ (金東洛)	남	22	숙부	미상
50	5682	2006.10.16.	정동한(鄭東漢)	김점순(金点順)	여	40	모	1951.11.21.

- 1) 실제 사망일과 제적등본 상 사망일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토벌 이후 끌려간 주민들의 생사를 알 수 없었기도 하고, 당시로서는 토벌지역에서 사망한 주민들이 쉽게 사망신고를 할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누구한테 맞아 죽었다고 할 수도 없었는데 그 이유는 저쪽(정부 측) 사람들은 빨갱이한테 죽었다고 하기도 했으니까…(토벌군에 의해 사망한 주민에 대해 사망신고를 하라고 특정 시기에 공문이 내려 온 적이 있는가? 없다.) 주민들이 알아서 개별적으로 사망신고 했다. 전쟁이 끝나고 세월이 흘러 잠잠해지니까 했겠지.” 이병진 전화면담(2010.4.1): 그런데 본 사건의 피해자 중 배쌍들의 경우 사건 당일 군인들에 의해 목이 잘린 바 있고 이를 주민들이 목격하였는데, 이를 기준으로 당시 구장을 지냈던 배쌍들의 친척인 배우혁이 사망신고를 한 날짜가 1949년 11월 9일이다. 이로부터 며칠 후인 11월 중순경 산청경찰서에 잡혀 있던 주민들이 금서면 수철리로 끌려가 토벌군에 의해 집단살해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일자를 11월 중순경으로 추정하였다.
- 2)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9년 3월 25일임.
- 3)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9년 3월 21일임.
- 4)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6월 25일임. 호주인 김수곤(사건 당시 71세)이 1959년 3월 23일에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김택수 가승보(가첩)’에는 사망일자가 1949년(기축년) 10월 1일로 되어 있음.
- 5)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1월 20일임. 신고일은 1959년 3월 19일로 되어 있음. 신고인은 김유곤(사건 당시 58세)으로, 이 사건으로 김종렬, 김종철 등 두 명의 아들이 처형되었으며, 신고일은 1959년 3월 19일로 되어 있음. ‘김택수 가승보(가첩)’에는 사망일자가 1949년(기축년) 10월 1일로 되어 있음.
- 6)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1월 19일임.
- 7) 제적등본에는 사망일자가 기록되어 있지 않음.
- 8)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2월 20일임. 신고일은 1959년 3월 11일로 되어 있음. 신고인은 김종수(사건 당시 65세)로, 이 사건으로 김의찬, 김의열, 김의경 등 세 명의 아들이 처형되었으며, 10년 후인 1959년

제 5 권

에 일제히 사망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됨.

- 9)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2월 20일임. 신고일은 1959년 3월 11일로 되어 있음.
- 10)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2월 20일임. 신고일은 1959년 3월 11일로 되어 있음.
- 11)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1950년 2월 20일임.
- 12)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3년 9월 2일임.
- 13)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9월 23일임.
- 14)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2년 3월 2일임. 족보에는 1949년(기축년) 10월 1일로 기록되어 있음.
- 15)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5년 3월 5일임.
- 16)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와 일치: “당시 구장을 하던 백부 배주혁이 우리처럼 무식한 사람이 아니어서 사망신고를 제대로 했다.” 신청인 배덕술 면담보고(2010. 2. 23).
- 17)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2년 10월 5일임.
- 18)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3년 9월 20일임.
- 19)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9년 3월 15일임. 족보에는 1949년(을축년) 9월 모 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음.
- 20)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7년 8월 9일로 되어 있음.
- 21)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1년 10월 25일임.
- 22) 제적등본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 23) 제적등본 멸실. 멸실사유는 “1950년 6월 25일 사변으로 인하여 멸실.” 산청군 삼장면, ‘호(제)적 멸실확인원’(2006. 9. 12): 족보에는 1950년(경인년) 11월 8일 사망으로 기재되어 있어 신청인의 주장과 동일함.
- 24)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69년 3월 20일임.
- 25)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9월 20일임.
- 26) 제적등본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신청인은 “부친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 제사를 지내지 않고 있다”고 진술함. 신청인 김일선 진술조서(2008. 5. 14).
- 27)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2년 3월 2일임.
- 28) 다-9990호와 중복신청.
- 29)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9년 4월 29일임.
- 30)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9년 4월 24일임.
- 31) 다-8901호와 중복신청.
- 32) 제적등본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 33)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8월 3일임.
- 34)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8월 12일임. 신청인의 누이 김두이는 종전 후 남양면사무소에서 “김학수가 1950년 8월 12일에 죽었으니 사망신고를 하라”는 연락이 와서 모친이 사망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참고인 김두이 면담(2010. 3. 29). 행정기관인 면사무소에서 피해자의 사망일을 특정일로 지정하였다는 것은 사망일자와 관련한 근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으로, 진주형무소로 송치된 후 전쟁이 발발하자 처형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 35) 제적등본에는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음.
- 36) 본 사건은 원래 24차 민족독립규명위원회에서 조사개시(2007. 2. 13)되어 ‘고성지역 최연갑의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마-9872호)’으로 명명되었으나, 조사결과 인민군에 의한 납치사건이 아닌 경찰에 의한 희생으로 판단(2009. 7. 29. 참고인 조사결과)되어 집단희생조사국으로 이관되었다.
- 37) 제적등본에는 1968년 4월 10일에 부산지방법원에서 ‘1955. 6. 24. 생사불명 기간만료’로 실종선고를 한 것으로 되어 있음.
- 38) 제적등본에는 이득술(李得術)로 기재되어 있음.
- 39) 제적등본에는 김종락(金鍾洛)으로 기재되어 있음.

나.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들은 본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활동 혐의·군경 토벌작전·인민군 점령시기 부역혐의 등으로 국군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에 의해 희생되었다고 주장하며, 본 사건의 진실규명과 진실규명대상자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청했다.

2. 조사의 근거와 목적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제1항 제3호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희생자 수, 희생 경위와 이유, 가해주체와 가해주체의 지휘·명령체계, 가해의 위법성 여부 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규명을 통해 궁극적으로 본 사건의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를 국가에 권고하고자 하였다.

3. 조사의 범위와 규명과제

가. 조사의 범위

본 사건에 대한 조사는 한국전쟁 전후 1949년부터 1951년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경상남도 산청군·함양군·사천시·고성군·거창군·거제시 등 6개 지역에서 군경의 토벌작전과 부역자 처리 과정에서 희생되었다고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을 조사하였다.

나. 규명과제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다음의 과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1) 사건의 실재 여부

신청인들이 제기하는바, 진실규명대상자들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서 좌익활동 혐의·군경의 토벌작전·부역혐의 등으로 적법절차 없이 억울하

제 5 권

게 희생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2) 희생규모,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신청인들은 본 사건 당시 토벌군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이 산청군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 대한 토벌 및 부역자 처리 과정에서 좌익 및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각 마을마다 다수의 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해 희생규모와 희생자의 신원 및 특징 등을 밝히고자 하였다.

3) 가해주체의 소속·신원과 가해의 지휘·명령체계

신청인과 참고인들은 토벌군과 사건 해당 지역 경찰 등에 의해 피해자들이 적법한 절차 없이 희생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신청인 주장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가해주체가 누구인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가해주체의 소속과 지휘·명령체계를 밝히고자 하였다.

4) 가해의 위법성 여부

민간인 희생사건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4. 조사방법

가. 신청인과 참고인 조사

1) 신청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6년 11월 30일부터 2010년 4월 29일까지 본 사건의 신청인 73명을 조사하였다. 신청인들의 주요 진술내용은 첨부자료의 <별표 1>과 같다.

2) 참고인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피해 관련 참고인 140명과 군경 관련 참고인 36명을 조사하였다. 군경 관련 참고인 조사는 토벌작전을 수행했던 군인과 산청경찰서 등 사건 해당 지역 경찰관 및 의용경찰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피해 관련 참고인과 군경 관련 참고인의 주요 진술내용은 첨부자료의 <별표 2>와 <별표 3>과 같다.

나. 자료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문헌기록과 국회·국방부·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산청경찰서 등 본 사건 관련 지역의 경찰서·국가기록원·국립중앙도서관·국가보훈처·산청군청 등 관련 기관 생산 및 소장 기록과 자료를 입수하여 분석·검토하였다.

1) 1차 자료

가) 육군본부

- 육군기록정보관리단 소장, 『장교자력표』
- 『장교입관순대장(육군)』(1946. 1.~1949. 5.)
- 군사연구실, 『역사자료 : 작전명령』
- 육군본부, 『미8군정기작전보고』 3
-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59권, 1987.

나) 국가기록원

- 「국무회의록」(125회, 1950. 11. 21)
- 경상남도경찰국, 『경찰사령원부』(1948-1950)

다) 국회 및 지방의회

- 제4대국회,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41·42, 1960.
- 제4대국회 제35회 국회임시회의 속기록 : 제42호(부록), 『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보고서』.
-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⁴⁰⁾

40) 이하 '산청군의회 보고서'로 약칭한다. 이 보고서는 산청군의회가 삼장·시천면에서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 피해자의 유족인 정맹근 외 19인의 청원에 따라 1999년 10월 8일부터 2000년 4월 7일까지 약 6개월에 걸쳐 '시천·삼장면 양민학살사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진상조사반'을 구성하여 활동한 공식 조사결과이다. 이 보고서는 국군 3연대가 공비토벌을 위해 출동하던 중 공비의 습격으로 출동 군인이 사망하자 단성면·시천면·삼장면 주민들 중 통비분자가 있다는 심증으로 1949년 7월에서 1950년 2월까지 시천면 신천리·원리 및 삼장면 평촌리 등지에서 총 202명의 주민을 살해한 사실을 밝히고 있다.

제 5 권

라) 경찰청 및 경찰서

- 내무부 치안국, 『행불자명부』, 1968.
- 산청경찰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 카드」
- 산청경찰서,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2010. 6. 12.)⁴¹⁾
- 경상남도 경찰국, 「전출자, 파면자, 퇴직자 이력서철(1948-1952)」
- 치안본부, 『대공신원기록편람』1~4, 1984.
- 경상남도 사천경찰서, 「신원기록자료조사서」, 1985.
- 치안본부, 『대공인적위해행불수배자명부』, 1990.
- 경상남도 함양경찰서(작성연도 미상/위원회 수집문서), 「6·25 전후 함양군 사망자 명단」

마) 미군자료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1948. 12. 13-1949. 6. 17)
- 『HUSAFIK』, 1945.

바) 보훈처

- 「대한민국참전경우회 경남지부 명단」(2004).

사) 신문기사

부산일보(1948~1961) · 국제신문(1948~1961) · 국제신보(1948~1961) · 산업신문(1948~1949) · 조선일보(1949. 4. 26) · 전남일보(2008. 12. 15) 등

아) 국방부

- 국방부, 「국방부인사명령(일반)철」, 1950.

41)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는 경찰이 전산으로 생산 및 관리하는 대공신원 관련 정보를 개인별로 조회하여 출력한 기록물이다.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에는 조회 대상자의 인적 정보와 한국전쟁 전후 부역·월북·행불·행형 관련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특히,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에는 조회대상자가 군경에 의해 희생된 경우, 희생사실이 기재되어 있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관련 희생경위를 확인하는 데 유용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2010년 6월 7일 본 사건의 희생자 및 관련 희생경위 확인을 위해 산청경찰서에 본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 등 총 51명의 보안기록 조회 및 회보서 제공을 의뢰하였고, 이에 대해 산청경찰서는 같은 해 6월 16일 총 3명의 조회 결과(보안기록 조회 회보서)를 회신하였다.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 제공 요청」(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 조사1팀-425, 2010. 06. 07.); 「산청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관련 보안기록조회 결과 통보」(산청경찰서 정보보안과-001712, 2010. 06. 16.).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증언록』(최덕신, 박기병, 최석용, 김희준, 백선엽 등).

자) 기타

- 육군특무부대,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 내무부 치안국, 『피납치자 명부』(발행연도 미상).
- 공보처 통계국, 『월북자 명단』, 1951.
- 월간조선, 『6·25납북자 82959명』, 2003.
-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빨치산 자료집 2(문건편)』, 1996.

2) 참고자료 및 문헌

- 거제군지편찬위원회, 『거제군지』, 1964.
- 함양군지편찬위원회, 『함양군지』, 1995.
- 거제시지편찬위원회, 『거제시지 (상, 하)』, 2002.
- 산청군지편찬위원회, 『산청군지』, 2006.
-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회, 『산청·함양사건의 전말과 명예회복』, 2004.
-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 1967.
- 佐佐木春隆 著·姜昶求 編譯, 『韓國戰秘史(上卷) : 建軍과 試鍊』, 兵學社, 1977.
-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 요약』, 1986.
-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 국군보안사령부, 『대공 30년사』, 1978.
-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 육군본부 군사연구실, 『한국전쟁과 유격전』, 1994.
- 내무부 치안국, 『한국경찰 10년사』, 1958.
- 內務部治安局, 『韓國警察史』(I), 1972.
- 內務部治安局, 『韓國警察史』(II), 1973.
- 山淸警察署, 『智異山の 砲聲(山淸地域警察戰史)』, 1989.
- 在郷警友會 慶尙南道支部, 『慶南警友45年史』, 1993.

제 5 권

- 경우장학회, 『국립경찰 50년사』, 1994.
- 윤장호, 『호국경찰전사』, 제일출판사, 1995.
- 경남지방경찰청, 『경남경찰의 얼』, 1996.
- 大韓民國 參戰警察有功者會 편저, 『아~ 살아있다! 大韓民國 警察의 魂』, 月刊朝鮮社, 2003.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편),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학살 실태보고서』, 한울아카데미, 2005.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1·2』, 2008.⁴²⁾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2007. 12. 31.)』, 200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구례지역 사건』, 『2008년 상반기 조사보고서(2008. 1. 1.~2008. 7. 8.)』(02), 2008.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7. 9.~2009. 1. 5.)』(03), 200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순천지역 여순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7. 9.~2009. 1. 5.)』(03), 200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7. 9.~2009. 1. 5.)』(03), 200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2009. 1. 6.~2009. 7. 7.)』(03), 2009.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경남지역 적대세력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9. 7. 8.~2009. 12. 31.)』(03), 2010.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보성·고흥지역 여순사건』, 『2009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9. 7. 8.~2009. 12. 31.)』(06), 2010.
- B. Cuming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iberated Korea : Mobilization and Revolt

42) 이하 '산청 기초사실조사표'로 약칭한다. 본 기록은 2008년 5월 말부터 같은 11월 말까지 진실화해위원회와 산청군청이 공동으로 수행한 경남 산청지역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의 최종 결과물이다. '진실규명 기초사실조사'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사건과 관련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를 통해 각 지역별 피해 규모 및 피해양상을 밝히고, 사건 관련 지방자치단체 보유 자료 및 향토사 등을 수집하여 진실규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이에 본 보고서는 경남 산청지역의 기초사실조사표의 개인별 피해현황 조사표와 관련 제적등본을 본 사건의 진실규명에 참고 및 활용하였다.

in Kyongsang Province, 1945-1950], 『Journal of Korean Studies』Vol. 1, 1979.

-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 신중대, 『부산·경남지방의 해방정국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석사학위논문, 1991.
- 김남식, 『전쟁 전후 남한에서의 무장유격투쟁의 전개』, 『한국전쟁연구』, 태암, 1990.
- 김삼웅, 『해방후 양민학살사』, 가람기획, 1995.
-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2000.
- 李宣雅, 『韓國戰爭 前後 빨찌산의 活動과 性格』, 成均館大 大學院 史學科 碩士學位論文, 2003.
- 이선아, 『한국전쟁 전후 빨찌산의 형성과 활동』, 『역사연구』제13호, 역사학연구소, 2003.
- 김종준, 『한국전쟁기 서부경남지역 빨치산의 조직과 활동 - 1950년 10월~1951년 6월을 중심으로 -』, 『제노사이드 연구』제2호, 한국제노사이드연구회, 2007.
- 이선아, 『여순사건 이후 빨치산 활동과 진압 - 한국전쟁 이전을 중심으로』, 여순사건 61주기 학술심포지엄 자료집, 2009.
- 김득중, 『‘빨갱이’의 탄생 : 여순사건과 반공 국가의 형성』, 선인, 2009.
- 『安東權氏佐郎公派譜』, 1980.
- 迎日鄭氏世譜廳, 『迎日鄭氏世譜』卷之四, 回想社, 1981.
- 密城朴氏啞堂派譜所, 『密城朴氏啞堂派世譜』, 卷之下, 1987.
- 慶州金氏樹隱公派世譜編纂委員會, 『慶州金氏樹隱公派世譜』, 回想社, 1991.
-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대동세보(安東權氏大同世譜)』 제15권, 해돋이, 2004.
- 『安東權氏安分堂公派譜』卷之二, 1992.
- 『安東權氏僕射公派默翁公系世譜』, 回想社, 1994.
- 『金海金氏三賢派大同譜』, 回想社, 1995.
-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慶州鄭氏良景公派世譜』, 1996.
- 安東權氏 叅奉公 派宗會, 『安東權氏叅奉公派譜』卷二, 2006.
- 『驪興閔氏農隱公派譜』卷之二.
- 昌原(檜山)黃氏左尹公派譜編纂委員會, 『昌原(檜山)黃氏世譜』卷一, 大譜社, 2008.

3) 기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다. 현지 조사

진실화해위원회는 2008년 10월 20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본 사건의 발생지역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고성군·사천시·거제시 일대에서 신청인 및 참고인과 함께 본 사건의 연행·주민 집결·구금장소와 희생현장을 확인하였다.

II. 조사결과

1. 사건배경

가. 경상남도의 정치·사회적 상황

해방 이후 인공을 지지하는 경남도인민위원회가 출범하자 경남의 각 지역에서는 속속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고, 미군정기 초기 통영, 창원, 김해, 하동, 양산, 합천 등에서는 한 동안 행정을 장악하기도 하였다.⁴³⁾ 주한미군사(HUSAFIK)에서는 경남인민위원회가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경남인민위원회는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지식인에 의해 지도되는 공산주의의 배경을 지닌 조직체이다. 경남위원회는 치안유지, 세금징수, 인구조사, 기타 중요한 통계수치를 수집했으며, 다수의 군에서 경찰력을 장악했다. 한마디로 경남인민위원회는 사실상의 정부와도 같은 광범위한 통제력을 지녔다. 군정이 인민위원회를 통제하게 되는 46년 4월까지 인민위원회는 미군정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⁴⁴⁾

본 사건의 발생지역인 산청·함양·사천·고성 등에서도 모두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일제 강점 하에서도 적색농민조합이 존재⁴⁵⁾하였던 사천군의 경우 인민위원회가 통치권을 행사⁴⁶⁾할 정도로 좌익세가 강했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1개월여 만에 인민군은 진주지역까지 점령⁴⁷⁾하였으며, 낙동강

43) HUSAFIK, Part III, Chap. III, p. 67.

44) HUSAFIK, Part III, Chap. III, p. 68.

45) 박일기·강대진 등이 중심이 된 삼천포 적색농조가 1930년대에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신중대, 『부산·경남지방의 해방정국과 인민위원회에 관한 연구』, 경남대 정외과 석사학위논문, 1991, 16쪽.

46) B. Cummings, 『Political Participation in Liberated Korea : Mobilization and Revolt in Kyongsang Province, 1945-1950』, 『Journal of Korean Studies』 Vol. 1, 1979, p. 181.

방어선을 제외한 경남의 대부분 지역은 인민군 수중에 장악되었다. 중앙당은 경남도당 위원장, 부위원장으로 남경우, 김삼홍을 각각 임명하였으며, 239개 면 중 99개 면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는 등 2개월여 동안 인민위원회 등을 통한 통치가 실시되었고, 피란을 가지 않고 있던 일반 주민들은 전시동원령 등을 통한 의용군 징집, 포탄 나르기 등의 부역에 동원되었다.⁴⁸⁾

나. 군경 토벌작전

1) 한국전쟁 발발 이전

한국전쟁 발발 이전, 경상남도 일대에 대한 군 토벌작전은 여순사건 이후 지리산으로 들어간 14연대 반군과 입산자들을 토벌하면서 시작되었고, 1948년 10월 30일에 설치된 호남방면전투사령부를 비롯하여 1차, 2차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등 1950년 3월 15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명칭이 변경되는 토벌사령부⁴⁹⁾의 지휘를 받은 대대적인 빨치산 토벌작전으로 발전하였다.

군의 공간사에 따르면, 산청과 함양 북부지역의 토벌은 3여단 5연대가 14연대 반군의 지리산 이동 이후인 1948년 12월 말에 투입되기 시작하여 호남방면전투사령부가 해체되는 다음해 5월 9일까지 작전을 수행하였고, 그 후 다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가 구성되자 3사단 23연대 1대대와 해병대 진주부대(일명 김성은 부대)가 5연대의 작전구역을 이어받아 작전을 수행하였다⁵⁰⁾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남부 쪽에 위치하고 있던 3연대와 기존 3여단 소속의 5연대와 6연대, 그리고 9연대, 20연대(4사단의 재편)도 작전에 투입되었으며, 공간사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17연대 3대대⁵¹⁾, 독립유격대대⁵²⁾, 20연대(여순사

47) 인민군 6사단은 1950년 7월 24일에 호남을 우회, 여수를 점령하였고, 7월 27일에는 하동-함양 선으로 진출, 7월 30일에는 거창을 통과하여 진주를 점령하였다. 또한 7월 31일에는 진주-합천-김천-예천-안동-영덕 선으로 진출하여 유엔군과 한국군을 압박하였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요약』, 1986, 364쪽.

48)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446~452쪽.

49) 14연대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여순반란군토벌전투사령부는 1948년 10월 30일에 호남방면전투사령부로 그 명칭이 바뀌어 작전지역을 지리산을 기준으로 남과 북으로 분할, 각각 5여단과 2여단의 작전구역으로 설정하여 그 해 11월 30일까지 작전을 전개하였다. 다음해인 1949년 3월 1일, 육군본부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와 호남지구전투사령부를 재설치하여 5월 9일까지 약 2개월간 부여된 작전지역 내에서 빨치산 소탕 작전을 전개하였다. 이들 사령부가 해체되자 이현상을 사령관으로 하는 인민유격대 2병단이 창설되어 지리산을 비롯, 덕유산과 백운산 등에 근거지를 구축하고 활동을 개시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해 9월 28일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재설치하여 이 지구 전투경찰대와 군경합동으로 다음해인 1950년 3월 15일까지 동계작전을 펼쳤다.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49~50쪽.

5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1945-1960)』, 1988, 80~106쪽.

51)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유치운』(HA03750), 유치운은 육사 8기 출신으로 당시 소대장

건 직후 재편된 4연대의 후신)도 각각 1949년에 구성되는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에 배속되어 토벌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확인되기 때문에 전쟁 전 토벌부대는 최소 9개의 부대였다. 그리고 이들 부대의 토벌작전 구역도 일정하지 않고 작전지침에 따라 수시로 변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당시 신문에는 5연대(연대장 장도영)의 토벌작전 활약상이 다음과 같이 기사화되기도 하였다.

지리산에 잠복하고 있던 무장 반란군은 여수방면에 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관계로 그 세력을 함양, 산청에 뺏쳐 지난 (12월) 22일 미명에 산청군 삼장면 요지인 일부락을 점령하여 각종의 공작을 하고 있다는데 이 급보에 접하여 본 도지사 문시환씨는 이 비상사태를 진압하기 위하여 제3여단(1947년 12월 1일에 부산에서 창설, 초대지휘관 이응준)에 국군 출동을 요청, 제5연대의 출동으로 지난 27일 포위작전을 하였다는데 어제 29일 그 전황을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진주에서 2부대로 나누어 1대는 원지로부터 산악으로 들어가 삼장면을 포위하고 다른 1대는 산청읍을 거쳐서...⁵³⁾

토벌군은 무장 반군 약 200명이 2개 중대로 분리되어 산청과 함양에 걸친 지리산 일대에 입산했다고 판단하고 있었으며, 이후 한국전쟁 발발 전까지 산청·함양 등지에서는 토벌작전이 계속되었다.⁵⁴⁾

을 맡고 있었으며, 대대장은 오익경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오익경은 사병들의 담력을 키운다는 명분으로 빨치산 혐의자들을 잡아 놓고 총검술로 처형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처형이 끝나자 사병들에게 "(사람을 죽이고 나니) 눈이 좀 달라."라는 말을 하였다고 한다.

52) 이 부대는 '게릴라 토벌과 복파'를 목적으로 1948년 11월 25일에 창설된 육군수색학교(교장 : 김용주)의 후신으로서, 전쟁 발발 전에는 주로 빨치산 토벌에 투입되었다. 시기에 따라 여러 명칭으로 불리었다. 즉 1949년 1월 31일에 경남 산청으로 이동하여 5여단장 통제 하에 빨치산 토벌작전에 합류할 것을 명령받았는데, 이때는 '서울유격대'로 불리었고, 같은 해 5월 9일에 지리산토벌작전이 일단락되자 6월 4일에 웅진지구로 출동하여 작전을 수행하였는데, 이때는 '38부대,' 그리고 7월 15일 이후 5사단에 편입되어 지리산토벌에 임하였을 때는 '독립제1대대'로 불리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한국전쟁의 유격전사』, 2003, 68쪽.

53) 부산일보, 1948. 12. 30.

54) 다음은 당시 부산일보에 나타난 토벌작전의 경과와 전과 내용이다. "산청등지 반란병, 완전소탕은 시일문제 -5연대장 장도영 중령, 2개 중대로 나뉘어 산청과 함양에 입산했던 반란병 200명, 1948년 12월 27일 토벌 후 70~80명만 남음."(1949. 1. 11.); "함양방면 전투 계속, 군경포위작전 개시산청 주둔 5연대는 지난 16일 미명에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쑥밭재'를 경유, 동 하오 5시 함양군 휴천면 부근에서 반군 3명을 총살하고 ... 반군 300명과 폭도 200명..."(1949. 1. 20.); "산청방면 전투서 반란군 일개 부대 전멸"(1949. 1. 25.); "함양에 폭도, 구장 살해코 도주"(1949. 1. 27.); "물살 틈 없는 국군공격에 산청, 함양 반도는 일불현영, 계엄령 해제, 주민들 안도" 함양산청지구전투지휘관 포고 계엄령, 금 3일 밤 12시에 해제, 당지에 주둔 중인 제3여단 제5연대 반란군 토벌부대; 당지에 주둔 중인 육군 제5연대장 장도영 중령을 총지휘관으로 하는 지리산토벌부대는 지난 1일부터 3일 하오 4시경에 이르기까지 지리산 상봉 세석 지점에서 반군 아지트를 발견...(1949. 2. 8.); "반군소탕전 전개 - 함양군 휴천면서 접전, 반군 약 30명이 잠복하고 있다는 확실한

준계토벌은 5월 초경 마무리가 되고 3여단은 산청·함양 등에 대한 선무공작까지 실시하였으나, 빨치산의 활동은 여전히 계속되었고, 유족회의 조사에 따르면 3연대의 토벌작전에 의해 같은 해 6월부터 9월까지 총 170명의 일반 주민이 산청군 시천면·삼장면에서 처형되었다.⁵⁵⁾

정부는 인민유격대의 지속적인 침투와 더불어 빨치산 세력이 확장되어 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1949년 9월 22일 내무부에서 군경 수뇌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회의에는 내무부장관(김효석)·국방부장관(신성모)·내무부차관(장경근)·참모총장(채병덕)·참모부장(정일권)·치안국장(이호) 등이 참석하였는데, 군경 합동으로 대대적인 공비토벌작전을 하기로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육군본부는 다시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김백일⁵⁶⁾ 대령(5사단장)을 임명하였다. 치안국은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를 남원에 설치하고 사령관에 최치환 총경을 임명하여 군경 합동작전에 돌입했다.

1949년 12월 25일에는 지리산 자락의 산청·함양·하동 일대에 지리산지구전투사령관 김백일의 명의로 계엄령이 선포(해제일 미상)되어 군경작전상의 필요에 의해 ‘일반 관민에 대한 통행제한 조치가 시행된다. 이 조치의 대상 지역은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던 함양의 유림면·마천면·휴천면과 산청의 생초면·오부면·산청읍·신안면·삼장면·단성면·금서면·시천면 등 총 8개 면, 그리고 하동의 일부 면 등이었다. 이 조치에 따르면, 이 지역 주민들은 “각 거주지(각 부락단위)에서 백 미터를 이탈치 못하며, 군

정보를 접한 군 5연대와 경찰경찰대가 16일 하오 6시경 현지에 출동”(1949. 2. 19.); “함양에 무장폭도, 경찰출동으로 즉시 퇴각 - 무장폭도 7명이 출몰하여”(1949. 3. 3.); “함양군 하에 또 반도 출몰, 서상면에서 물품 강탈 도주”(1949. 3. 26.); “반도출몰은 불식, 함양군 하에 또 60명 내습”(1949. 4. 17.).

55)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18쪽. 이 보고서에서 본 사건 당시 국군 제3연대(연대장 : 함○○) 2대대장이었던 조○○는 본인 부대에서는 부하들이 자신에게 주민학살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아 알 수 없었다고 부인하였으나, 연대 정보작전주임이었던 김○○이 “입대 초기에 극렬좌익분자로 활동하다가 전향하여 군에 충성을 표시하기 위하여 많은 인명을 살상한 것으로 안다”고 하여 김○○의 행위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을 죽였으면 산골짜기에서 2~3명씩 기술적으로 처치하지 왜 수십 명을 한 장소에서 집단총살했겠느냐? 당시에 잔인한 부대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말 할 수는 없지 않느냐? 내 입으로 말하면 큰일 나지.”라고 하여 군 일부에서 일반주민에 대한 집단처형 사실이 있었음을 에둘러 인정하고 있다.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반), 『산청(시천 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15~16쪽.

56) 본명은 김○○로, 정일권과 함께 봉천군관학교 5기 출신인데, 졸업하자마자 동북항일연군 토벌 등의 임무를 수행하던 간도특설대로 차출되어 1중대 제4임 중대장을 지냈던 인물이다. 해방 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간 김○○는 북한에서 만주군 출신의 입지가 위태롭다고 판단, 1945년 12월 27일, 백선엽, 최남근과 함께 월남하면서 김백일로 개명하였다. 그는 일본군의 만주 일대에서의 토벌방식인 이이제이·주민분리·타격섬멸작전 등에 능했다.

경관용차를 제외한 정기적 교통차 및 기타 일반용차”를 타고 다닐 수가 없게 되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적 또는 이적행위자로 인정하여 무조건 사살”한다⁵⁷⁾고 되어 있어 이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들을 잠재적인 이적행위자로 취급하였다. 이 토벌작전은 1950년 3월 15일까지 계속되었다.

한편 각 지역의 경찰서는 토벌군을 도와 빨치산 토벌에 동원되기도 하였으며, 담당 구역 내의 좌익활동 혐의자 등에 대한 조사와 취조를 하였다.

2) 한국전쟁 발발 이후

유엔군의 반격작전으로 인민군 4·6·7·9·10사단의 주력부대는 퇴각로가 차단되자 소백산과 태백산맥을 이용하여 북상했으나 약 1만 명은 지방 빨치산에 합류하였다.⁵⁸⁾ 북한의 조선노동당은 점령지역에서 병력을 후퇴시키는 동시에 각 지방당의 모든 조직을 도내의 산악지대로 이동시켰다. 각 지방당은 인민군 패잔병들을 수습하거나 지방 좌익세력들을 규합하여 산악지역을 근거로 유격활동에 돌입하였다. 이는 제2전선의 구축에 주목적을 둔 것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주민들에 대한 선동, 유엔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빨치산의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는데, 경남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었다. 인민군은 후퇴 전까지 경남의 진주시를 비롯하여 산청·함양·거창·합천·의령·하동·남해·사천·진양 등 총 9개 군을 통치한 바 있다. 그리고 이들 지역 중 지리산 자락의 인근 마을은 1951년 2~3월까지도 소위 ‘해방구’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하여 지리산 일대는 수복 이후에도 계엄이 해제되지 않고 토벌이 강화될 정도로 좌익세가 강했다.⁵⁹⁾

57) 부산일보, 1949. 12. 29.

58) 김남식, 『남로당연구』, 돌베개, 1984, 456쪽.

59) “3월 22일자로 경남도 내 비상계엄 해제, 김종원 계엄민사부장 발표 - 부산 등 11개 시 군을 제외”, “특히 잔비가 출몰하는 지리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서부경남 일대에 있어서는 진주시에 계엄민사부파견대를 설치하여 가일층 철저한 계엄업무를 추진할 방침” 국제신보, 1951. 3. 23.; “산청지방 공비출몰 격심 - 지리산 부근 산청 지방에서는 백주에도 질주하는 여객차량의 습격사건이 빈번하고 또 부락에까지 출몰이 격심하여 지방 주민들은 불안을 느끼고 있어... 공비들이 지난달 21일 약 900명이 나타나서 삼장면민들을 교묘하게 쫓아 시천면으로 몰아 노코 시천서... 방면으로 나오는 피로와 시천면을 ... 피란민 약 1만 수천 명에게 무도한 사살을 자행하여 다수의 사상자를 내게 하였는데 22일에는 1,000명, 23일에는 1,500명가량의 공비들이 나타나서 3일간격 격전을 한 끝에 약 2백 명의 사상자를 남기고 화개 방면으로 일단 패주하였으나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태였다.” 국제신보, 1951. 9. 4.; “공비 근멸책 협의, 불일내 군경대합동전을 전개, 공비토벌작전 회의 개최(12. 17~12. 18), 전북 남원에서, 호남지구공비토벌사령관 이용문, 내무장관, 3도(전남, 전북, 경남)도 경국장, 신 치안국 전방지휘소사령관 참석, 사찰유격대의 활동을 더욱 강력히 전개하게 되는 한편 후방의 사찰을 한층 더 강화하기로 되었다. 사찰유격대의 활동은 적성지구 내의 4~50만에 달하는 일반주민에 대한 공비들의 유혹을 봉쇄하는데도 지대한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국내의 사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수사과의 중앙분실을 강화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구상도 거의 완성을 ...” 부산일보, 1952. 12. 23.

9·28수복으로 전선이 북상하게 되자 정부는 영·호남의 후방 치안확보를 위해 1950년과 1951년에 각각 11사단과 8사단(11사단과 임무교체), 백야전 전투사령부(이하 백야사) 등을 투입하여 토벌작전에 나섰다.

9·28수복 이후 1951년 3월 말까지 경남 일대의 토벌작전은 11사단 예하 9연대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다. 예하에 배속된 5개 경비대대와 경찰, 청년방위대에게는 주보급로 및 주요시설 경계임무가 주어졌다.

9연대는 10월 6일 미군 제25사단에 배속되어⁶⁰⁾ 10월 8일 경상북도 상주로 이동했다가⁶¹⁾ 11월 20~21일에 경상남도 진주로 이동하여 지리산지역 토벌작전을 전담하였는데 주요 작전지역은 산청, 함양, 거창 등이었다.⁶²⁾

그런데 지리산 등 산간마을에 위치한 대부분의 마을은 지리적인 위치로 인해 ‘낮에는 대한민국, 밤에는 인민공화국’의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고, 이는 산간지방의 주민들이 잠재적인 빨치산협조자로 낙인찍히고 토벌 대상화하는 배경이 되었다. 다음은 소위 ‘거창사건’ 발생 이후 군 측의 조사에서 나타난 대민인식이다.

(이들 부락은) 지리산맥 최근 거리에 재하야 여순반란 이래 현재에 지하기까지 공비가 출몰하여 각 부락으로부터 양민납치와 식량강탈이 빈번한데 각 부락 중에는 물론 양민도 있거니와 약 7할 이상이 공비에게 협조하여 식량보급 및 정보를 제공하는 고로 이적행위로 인하여 아군 작전에 지장을 초래케 하며 현재 소각당한 각 부락은 주간에는 대한민국이며 야간에는 인민공화국이라 아니할 수 없는데 대한민국 정부에 납세 혹은 기타 국민된 의무는 전혀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이라 간주할 수 없음으로 지리산토벌작전에 적에게 이용당하는 인원 및 가옥을 파괴하지 않으면 작전수행을 도저히 할 수 없는 고로 불가분의 조치라고 생각함.⁶³⁾

11사단 토벌작전은 일명 ‘견벽청야’작전이였다. 이 작전은 원래 중국에서 사용된 것으로, 국공내전 중 국민당군에서 공산당에 대항하여 사용했던 것인데, 일본이 만주에서 사

60)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59권, 1987, 338~339쪽; 『미8군 정기작전보고』3, 제258·259호, 190~191쪽.

61) 『미8군 정기작전보고』3, 제263호, 199쪽.

6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59권, 1987, 344쪽; “1950년 11월 22일부로 제9연대를 지리산 전투사령부로 호칭하였다.”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5, 76쪽.

63) 본 문건에는 조사주체가 나와 있지 않으나 앞 뒤 문서가 헌병사령부의 것임으로 미루어 헌병사령부에서 조사한 것으로 추정되며 조사일시는 1951년 3월 1일, 제목은 ‘지리산 토벌작전으로 인한 민심동요에 대한 조사복명지건’으로 되어 있어 거창사건뿐만 아니라 거창사건 전후에 인근 지역인 산청군, 함양군 등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도 추가적으로 조사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육군특무부대,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396~397쪽.

용했던 초토화작전과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⁶⁴⁾ 초토화작전은 국제법상 퇴각 시에만 허용되고 있다.

중국 국민당군에서 복무한 바 있는 최덕신은 11사단이 창설되어 초기에 수복작전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자 견벽청야작전 개념을 적극 활용하였다. 그런데 “100명의 공비에 대해서 사살했다고 할 것 같으면 그중에 상당한 부분이 양민일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⁶⁵⁾는 진술에서 보듯이 그가 주장했던 견벽청야작전은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었다. 최덕신도 이에 대해 스스로 그 문제점을 인정하고 있다.

공비가 식량을 약탈하거나 인력과 건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산간벽촌을 철수시켰습니다. 도처에 산재하는 벽촌을 사단병력을 소수 부대로 쪼개서 일일이 보호할 수 없는 노릇이니 까요. 이것이 ‘청야’에 해당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이런 결과 공비들은 산 속에서 고립무원 상태에서 자진하는 형세였어요. 결국 4만 명의 공비는 토벌되었지만, ‘청야작전’에 대해 주민들의 원성이 컸어요. 집을 불사르고 철수시킨 다음, 다시 주민들이 돌아갈 때 정부에서 보상을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니 원성이 클 수밖에요.⁶⁶⁾

견벽청야에서 중요한 것은 산간지역의 주민을 치안이 확보된 소위 ‘안전지대’로 소개시키는 소개작전이었다. 그런데 11사단 사건에서 소개령이 정식 문서나 명령으로 존재한 바 없다. 특무부대의 거창사건 조사결과에서도 ‘소개령은 없었음’이 확인⁶⁷⁾되고 있는데, 이후 어떤 작전에서도 소개령이 공식적으로 존재했다는 기록은 없다. 삶의 터전을 떠나

64) ‘초토작전’이라고도 불리는 이 작전은 그 잔인성에서 악명이 높았는데, 일본군은 점령지역 내의 적 유격대의 활동과 인적·물적 지원의 근원을 봉쇄하기 위해 점령지 주민들로 하여금 부락 단위로 유격대의 침입을 자체적으로 방어하거나 토벌군에 보고하도록 했다. 만약 유격대가 부락에 침입하는 것을 목인하거나 이들을 은닉, 또는 비밀리에 지원하면 남녀노소를 가릴 것 없이 부락의 전 주민을 깡그리 죽이고 가옥과 가재도구를 소각하여 전 부락을 문자 그대로 초토화하는 작전을 폈다. 일본은 항일반만세력을 소탕하면서 “백 명의 군중을 죽이면 그 가운데 공산당이 한 두 명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대학살을 자행하였다. 신주백, 『만주지역 한인의 민족운동사(1920-1945)』, 아세아문화사, 2000, 297~298쪽; ‘견벽청야작전’은 원래 손자병법에도 나오는 전쟁술의 하나이고, 원래는 “자군의 진지를 공고히 하고 적이 쓸 수 없도록 들을 깨끗이 비운다”는 뜻이지만,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일본군이 만주에서 항일반만세력 소탕 시 사용하였던 초토화작전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최덕신이 주창한 ‘견벽청야작전’ 역시 후술하는 작전 양상에서 보듯이 유격대 활동근거 봉쇄, 주민 비협조시 인명 살상과 가옥 소각 등 초토화작전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덕신은 “공비 100명 사살 중 상당수가 양민일 것을 각오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일본군의 주장과 동일하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최덕신』(HA03025). 이 작전은 근대전에서 국제법상으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비전투원 학살의 죄목으로 이 작전을 명령한 사령관은 전범으로 규정, 처벌을 받게 되어 있다.

65)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최덕신』(HA03025).

66)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중앙일보사, 1985, 191~192쪽.

67) “부락소개명령일시 : 정식 소개명령은 무함.” 육군특무부대,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14쪽.

야 하는 상황에서 소개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절차도 없이 더군다나 문서나 사전통보 없이 행해졌던 것이 토벌작전 과정에서의 소개행위였다.

소개의 목적은 주민 보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작전의 편의'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소개 과정에서 주민들을 군주둔지로 데리고 온 후 부역자 및 사상특이자를 선별·처형하는 '주민색출'을 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소개의 시행과정이 불법적이고 폭력적이었음은 당시 소개작전을 수행했던 군인들의 직간접적인 증언에 의해 확인된다. 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주민 소개 시 시한과 목적 등이 정확히 고지되지 않았고, 가옥 등에 대한 소각 예정을 통보하지 않았으며, 노약자나 임산부 등을 선별 대피시키지 않았고, 전광석화식의 무조건적이고 무차별적인 소개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들에게 미리 통보를 하는가?) 아니다. 가자마자 빨리 나와라 여기 소개시켜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 다음에 바로 불을 지른다. (어린이, 노인, 부녀자 등을 미리 선별 대피시키는가?) 그런 일은 없었다. ... (토벌작전 나갈 때 소대장, 분대장의 지시 중 주민의 희생방지 지시가 있었는가?) 그런 선별지시는 없었다. 기억나지 않는다. (미리 가서 '며칠날 불태울 것이니 집을 비워라' 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았나?) 그렇게는 안 했다. 가다가 보이면 불태웠다.⁶⁸⁾

나중에 말 들어 보니까 늙은 어른이나 해산될 부인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 이런 말은 들었어요. 거동 못 하는 노인들도 있었고...⁶⁹⁾

이상에서 보듯 11사단의 견벽청야작전은 비민(匪民) 구분 없이 무차별적인 토벌을 전제로 한 것이었고, 소개령 역시 정식문서로 존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거창사건'이 발생하는 등 11사단의 토벌작전이 무리한 것으로 판단한 정부는, 1951년 4월 6일에 토벌부대를 8사단으로 교체하여,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한국 정부는 남부군단의 주력이 낙동강전선에서 패배한 북한 정규군이고, 남한 각 지역의 남로당 조직과 여순사건의 잔존세력이 가세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총 4천 여 명으로

68)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07. 4. 29.). 박○○은 5중대 중사였는데, 그는 중대장이었던 권○○이 군수와 출신으로 전투경험이 없던 인물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전투경험이 없다. 또 우리들한테 시키고 하는 것 보니까 무대뽀다. 군수과에 있던 놈이 일선 중대에 와 놓으니까 뭐 아느냐 이런 식으로 말도 해 놓고... 군수장교가 와서 기습을 당하니까 겁 집어 먹었는지 화풀이 한 것이다 난 그렇게 봐 줘요." 이러한 진술은 토벌작전, 특히 주민 집단희생사건의 원인과 책임을 단지 권○○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것인데, 중하급 지휘관에 대한 통제를 하지 못한 지휘관,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가가 떠안아야 할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

69)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07. 4. 29.).

추산하였다. 남부군단은 '6개 도당회의' 이후 9월부터 종래의 소수병력 운용에서 벗어나 집단병력으로 소도시와 경찰관서 습격, 철도 파괴, 군용열차 습격뿐만 아니라 마을을 일정 기간 동안 소위 '해방구'로 점령하여 식량을 약탈하는 등 대담한 전술을 채택⁷⁰⁾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8군사령관 뱅플리트⁷¹⁾는 이승만의 후방안정의 정치적 필요성이라는 청원을 받아들여 미8군 작전명령서에 의해 백선엽을 사령관으로 하는 백야사(Task Force Paik)를 발족시켰다. 작전명은 '쥐잡기 작전(Operation Rat Killer)'으로 명명되었으며, 뱅플리트는 자신이 그리스에서부터 휘하에 두었던 다즈(William Dodds) 중령을 60여 명으로 구성된 미고문단의 선임자로 임명하여 백야사의 작전을 지원하게 하였다. 미고문단은 장비 지원과 함께 작전연락, 통신, 공중연락 및 정찰, 심리전을 담당하였고, 수백만 장의 투항권유 전단⁷²⁾이 미극동사령부에서 공수되어 지리산 일대에 뿌려졌다.

백야사 예하에는 남원치안국 전방사령부, 태백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배속되는 등 경찰이 군과 합동하여 작전을 펼쳤다. 백야사는 육군본부 작전지시(113호)에 의해 1951년 11월 25일 대구에서 전주로 이동하고, 11월 26일에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 김용배)로부터 서남지구 빨치산 토벌 임무를 인수하여 1·2·9 경비대대, 107·110·117 예비연대 등 예하에 배속되었던 부대를 인수하였는데, 부대 병력은 총 3만 여 명에 달하였다.

백야사의 작전 방식은 “국내 공산유격대를 격멸소탕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물자와 보급품 일체를 파괴하는 것”⁷³⁾이었고, 토끼몰이 방식을 채택, 지리산을 포위한 3만 여 병력이 산정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면서 산간마을의 가옥과 시설을 모두 소각하여 빨치산들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앞서 11사단의 '견벽청야' 개념이 다시 적용된 것이었다.

백야사는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총 4기⁷⁴⁾에 걸친 작전을 실시하였

70) 국방부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4쪽.

71) 뱅플리트는 2차 세계대전 후 그리스의 미군사고문단장으로, 그리스 정부군에 협력, 공산 게릴라 토벌에 큰 공을 세운 대게릴라전의 전문가였다.

72) 전단은 총 9백 92만 장으로, 지리산을 하얗게 덮을 정도였다.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226쪽.

73)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81쪽.

74) 각각의 시기와 작전계획은 다음과 같다. ●1기(1951. 12. 2.~12. 14.) : 지리산을 남북으로 분할하여 남쪽에 수도사단과 북쪽에 8사단을 배치하여 지리산을 포위한 후 이들 부대를 기동타격대로, 기타 부대를 저지부대와 거점수비대로 하여 포위망을 압축하면서 빨치산의 근거지를 분쇄하고, 반복수색으로 그 잔당을 색출 격멸함. ●2기(1951. 12. 16.~1952. 1. 4.) : 운장산·회문산·백야산 지구 등으로 분산된 빨치산을 근거지별로 각개 격파함. ●3기(1952. 1. 4.~1. 31.) : 지리산 지구로 재잡입한 빨치산 토벌을 위해 지리산·백운산·덕유산에 전투부대를 동시에 투입하여 빨치산 잔당을 격멸함. ●4기(1952. 2. 4.~3. 14.) : 일명 'Rat Killer' 작전 전개. 백야산·모후산·조계산 지구에 대한 소탕작전 실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

는데, 토벌군을 피해 지리산으로 피란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것은 주로 1기(1951. 12. 2.~12. 14.)에 해당한다. 총 전과(사살 6,606명, 생포 7,115명)에서 보듯 당초 예상했던 빨치산 숫자(4,000명)의 무려 4배가 넘었다. 이는 “공비들에 포섭된 비무장 입산자가 많았음을 반증”⁷⁵⁾하는 것으로, 여기서 ‘비무장 입산자’란 상당수가 토벌을 피해 지리산으로 피란했던 일반 주민을 뜻하며, 이들이 백야사의 토벌 대상이었음을 의미한다. 백야사는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전 광주에 포로수용소를 만들어 토벌과정에서 생포된 일반 주민들을 수용하였는데, 시설의 열악과 추위, 장티푸스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에서 사망하였다.

한편 빨치산 귀순자, 생포자를 중심으로 구성된 사찰유격대도 토벌작전에 동원되어 입산 시 경험과 조직정보 등을 이용, 토벌작전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올렸는데, 사찰유격대는 각 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였다.

또한 각 지역의 경찰은 인민군 진주 시 인민위원회 활동, 의용군 입대, 포탄 운반 사역 등을 한 주민을 부역행위자로 간주, 이들을 검거·심사하여 처형하기도 하였다.

다. 부역자 처리

유엔군의 반격으로 인천상륙작전이 성공하자 정부는 인민군 치하에서 불가피하게 부역했던 국민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형금지를 선포⁷⁶⁾하고, 자수자에 대해 부역자 불처벌 약속⁷⁷⁾을 하였으나 실제로는 부역혐의자에 대한 불법적인 처형이 잇달았다. 특히, 지리산 일대의 미수복지구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였고, 거주 주민들이 군과 경찰의 약식 심사를 통해 적법절차 없이 즉결처형되는 경우가 흔하였다.

규전사, 1988, 192~218쪽.

75)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229쪽.

76) ‘사형(私刑)금지법’(법률 156호)은 한국전쟁기에 발효(1950. 12. 1. 제정)된 후 1962년 8월 13일에 폐지(법률 제1122호)되었다(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77) 산청경찰서는 사천 수복 후 사천공군기지에 모인 피란민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자수자를 살려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본의 아니게 의용군, 치안대원, 보국대로 각종 명령에 따라 흉칙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그 죄상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동포애로 관용을 베풀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졌으니, 가족 중에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 또는 국군과 대항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무기를 가지고 자수하여 생명을 구하시오.” 산청경찰서, 『지리산의 포성(산청지역경찰전사)』, 1989, 49~50쪽.

2. 사건경위

가. 한국전쟁 발발 이전

1) 산청군 사건

가) 오부면 일몰리 정경조 등 21명 집단희생사건(다-76호)

사건지역인 산청군 오부면 일몰리는 대모산(538.9m)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도 비포장도로가 마을 주변에 있을 정도로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로, 주로 논농사와 밭농사를 짓던 곳이었다. 이와 같은 지리적인 이유로 인해 사건발생 이전에도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⁷⁸⁾

일몰리는 안(내) 일몰리, 바깥 일몰리, 문암 등 세 마을로 나뉘어져 있었고 약 40호의 가구로 이루어져 있었다.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가 해체(1949. 5. 9.)된 후에도 전쟁 이전 토벌부대인 3연대 등이 계속해서 빨치산 토벌을 하고 있었다.⁷⁹⁾

평소 음식제공 등 마을주민들의 빨치산 협조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던 토벌군은, 1949년 11월 9일 아침녘에, 마을에 진입하면서 평소 빨치산에게 협조하고 있다고 판단한 마을주민 배쌍돌(1901년생)을 사살, 시체의 목을 쳐서 마을주민 민○○를 시켜 막대기에 끼워 오부면지서로 갖고 가게 하는 동시에⁸⁰⁾ 주민 체포와 소개, 소각을 실시하였다. 다음은 당시 안일몰에서 사건을 목격한 신청인의 진술이다.

마을의 공터에서 벼 타작을 하고 있었는데 군인들하고 경찰들 하고 마을에 왔습니다. 마을에 들어와서 성인 남자들은 포승줄로 꼬박 묶어서 한쪽으로 모아 놓았습니다. 그중 한 사람만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김영구의 아버지였는데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만 묶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만 잡혀가지 않고 마을 성인 남자 5~6명은 다 잡혀 갔습니다. ... 마을의 젊은 남자들을 묶어 놓고는 마을에 있는 여자들하고 아이

78) “빨치산이 마을에 몇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밥을 해 달라고 하면 해주었습니다. 마을사람들이 밥을 해 준 이유는 총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해주었을 겁니다... 수복 직후 인민군 퇴각 시기에 후퇴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주민들이 인민군 부상병을 단가에 실어 나른 적이 있습니다... 워낙 깊은 산중이라 마을 근처에서 빨치산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산에 나무 하러 갔다가 빨치산이 쏘는 총소리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청인 김봉수, 진술조서(2009. 10. 20.).

7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03쪽: “어른들의 말에 의하면 그 군인들이 김중원이 부대라고 했습니다.” 신청인 광노경, 진술조서(2006. 11. 30.).

80) 참고인 권○○, 진술조서(2009. 10. 20.).

들을 전부 나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여자와 아이들을 바깥일몰 쪽으로 넘어 가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바깥 일몰 쪽으로 넘어갈 때 군인과 경찰들은 추수하던 짚을 묶어서 마을의 집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시에는 추수할 시기여서 건조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옥들은 금방 불에 탔습니다. 마을의 모든 가옥이 불에 탔습니다.⁸¹⁾

이때 군경은 청장년을 가리지 않고 성인 남자면 무조건 끌고 갔는데, 희생된 정경조의 경우 당시 59세였으며, 정임조도 52세로 당시로서는 노인층이었다. 토벌군을 피해 화장실에 숨어 있던 김의찬이 발각되어 총에 맞았는데, 주민들은 김의찬이 피를 흘리는 상태에서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포승줄에 묶인 남자들을 제외한 안일몰 주민들은 모두 바깥 일몰로 소개되어 그곳에서 한 달가량 머물렀다.⁸²⁾

바깥 일몰 마을에도 안일몰과 마찬가지로 같은 날, 이른 아침 시각에 군경이 들이닥쳐 총으로 위협, 20여 명의 남자들을 포박하여 끌고 갔다.⁸³⁾

일몰리마을을 바로 아래에 위치하고 있던 방곡리 주민들은 사건 당일 목격자로부터 직접 이야기를 듣거나 마을주민들로부터 일몰리 사건을 전해 들었다.

사건 당일 날, 오부면 음촌리에서 같이 머슴살이를 하고 있던 민○○⁸⁴⁾으로부터 직접 목격한 바를 들었다. 민○○은 사건 당일 군인들이 일몰리에 들어와 남자들을 전부 엮어서 끌고 갔다고 했다. 민○○은 당시 음촌리 부자인 민○○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추수 끝내고 감을 따러 일몰리로 보내진 당일 날, 마을로 들이닥친 군인들이 “눈을 감으라”고 하면서 남자들을 꿰어 앉혔다. 민○○은 군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인 음촌리에서 온 머슴이다. 28년이나 머슴살이밖에 한 게 없다”고 하자 군인들이 살려주었다”는 말을 사건 당일 날 밤, 머슴방에서 같이 누워 자면서 해주었다.⁸⁵⁾

전쟁 전 가을 무렵, 일몰리 남자들이 군인들에게 다 끌려가 죽었다는 얘기를 사건 당일 동네사람들로부터 들었다.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른다. 남자들 씨가 말랐다는 얘기가 돌았다. 그때 사망한 일몰리 남자들 중 권상근과 광노경의 부친 광상근, 김종태 등을 알고 있다. 사건발생 때 죽은 것이 확실하다. 위 사람들이 같은 날 잡혀간 것이 확실하다.⁸⁶⁾

81) 신청인 정병길, 진술조서(2009. 1. 19.).

82) 신청인 정병길, 진술조서(2009. 1. 19.).

83) 신청인 광노경, 진술조서(2006. 11. 30.); 신청인 김봉수 진술조서(2006. 11. 30.); 신청인 권숙이 진술조서(2006. 11. 30.).

84) 민○○은 1932년 ○월 ○일생으로 산청군 오부면 ○○리 ○○○번지에서 출생하여 2002년 12월 27일에 사망한 것으로 제적등본에 기록되어 있다.

85) 참고인 송○○, 진술서(2010. 2. 2.).

86) 참고인 민○○, 진술서(2010. 2. 2.).

당시 오부면장이었던 이○○도 사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일물리마을이 “골짜기이기 때문에 빨갱이들이 기어 들어가 활동을 하던 곳”으로, 사건 전에 빨치산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밀접⁸⁷⁾하여 경찰이 많이 당했기 때문에 토벌군이 진주하여 일물리 일대를 토벌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1949년 초겨울 무렵 오부면 일물리마을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 처형되었습니다. … 사건 당일 날 일물리 사람들을 군인이 와서 데리고 갔다는 말을 오부면 사람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당시에는 군인이 하는 일에 아무도 말을 하지 못하고 꼼짝 못 했습니다. … (조사관이 진상규명 대상자 24명의 명단을 불러 주자) 맞는 것 같습니다. 내 친구 김종태를 비롯해 대부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을의 젊은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습니다. 한 20명 된다고 했습니다.⁸⁸⁾

바깥일물에 들어온 군경은 안일물과는 달리 이날 마을을 소각시키지 않았으나, 사건발생 한 달 후쯤인 11월 말~12월 초에 다시 마을로 들어와 가옥을 소각, 6가구가 불에 탔다.⁸⁹⁾

마을주민 20여 명을 포박한 토벌군은 이들을 산청경찰서로 끌고 간 며칠 후 당시 토벌군이 주둔하고 있던 금서면 수철리 산골짜기에서 처형하였다.

다음은 토벌대 집꾼으로 처형현장에서 시신을 목격한 의용경찰의 진술이다.

한 부락에 민병대 간부가 있는 기라. 내가 간부였던 거라. 군인들이 지시를 하는 기라. 마을마다 몇 명씩 동원하라고. 군인이 총 인솔자고, 우리는 인부들 인솔자고. 우리는 지계를 짚어지고. 탄환, 식량 등을. …수철에서부터 군인들 부식을 30~40명의 주민이 지계로 져 날랐다. 이때쯤이던가? 성재라고 있어. 한라산 같을까. 가운데가 병병해. 왜 성재인가 하면 …왕릉이 있는데. 물이 나는 기라. 성을 쌓은 터가 있는 기라. 지금은 못 찾을 기라. 길이 있는데 그 길에 사람들 시체가 여기 저기 있는 기라. 다음해 봄까지 있었어. 같이 있던 인부들이 “오부면 사람들”이라고 했다. 핫바지를 입은 20여 명의 시체가 그 이듬 해 봄까지 있더라. (당시 시신들의 상태는?) 핫바지를 입고 있었다. 일 하다가 와 죽은 거 같애. 오부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산이 너무 깊어서 사람들이 찾으러 못 온 기라.⁹⁰⁾

당시 수철리 뒷산은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곳으로, 해발이 높고 빨치산의 출몰이 잦아

87) “땅굴도 파 놓고 있고 외딴 집에도 살고 있고 주민들 부엌에 굴을 파 놓고 빨갱이가 숨어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8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3.).

89) 신청인 김봉수, 진술조서(2009. 10. 20.).

90) 참고인 민○○, 진술녹취록(2009. 12. 1.).

군경과 빨치산과의 전투가 심해 “전쟁터를 방불케” 할 정도로 불안한 지역이었다. 토별군은 수철리 뒷산 왕등재 근처 성재(성터) 부근에 주둔해 있었고, 이곳으로 수철리 주민들이 토별군의 부식 등을 저 날랐음이 확인된다.

전쟁 전 부친(당시 40세가량)이 마을주민 5명과 함께 토별군이 주둔해 있던 수철리 뒷산까지 짐을 지고 간 적이 있습니다. …부친의 경우 유평리에서 오봉으로의 빨치산 이동을 포착한 군의 총격 장면을 목격한 바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하여 마을주민 중 5명이 산으로 끌려갔다가 며칠 후 돌아 온 적이 있습니다.⁹¹⁾

유족들은 당시에 산세가 험하고 토별군이 주둔해 있던 지역이라 시신수습을 할 엄두를 내지 못했으며, 군이나 경찰로부터 사건현장에 대해 통보받지도 못했기 때문에 시신수습을 하지 못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도 사건현장은 워낙 산이 깊어 일반인의 접근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사건 당시 주민들의 전언⁹²⁾과 신청인이 목격한 바⁹³⁾에 따르면, 사건 당일 토별군과 들어온 경찰은 산청경찰서 소속으로, 최소 3명의 경찰관이 토별군과 함께 합동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인다. 다른 지역에서와 같이 이들 경찰은 주로 마을의 상황과 주민 중 부역행위자에 대한 정보를 군에 제공⁹⁴⁾하고, 지리를 안내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 사건으로 안일물에서 정임조, 정경조, 정병선 등 3명이, 그리고 바깥일물에서 김종태, 김종렬, 김종철, 민영철, 김의열, 김의경, 김의찬, 김의수, 김태수, 김병은, 광상근, 광노숙, 배쌍돌, 배덕출, 노충환, 권상근, 김의중, 김의섭 등 18명, 총 21명이 희생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91)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10. 2. 2.).

92) 신청인 광노경, 진술조서(2006. 11. 30.).

93) 신청인 정병길, 진술조서(2009. 1. 19.); 신청인 광노경, 진술조서(2006. 11. 30.); 신청인 김봉수, 진술조서(2006. 11. 30.); 신청인 배덕술, 진술조서(2010. 1. 12.); 신청인은 권숙이는 사건 당시 현장에서 보았던 경찰의 인상착의를 비교적 자세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신청인은 사건 당일 아침, 부친을 결박해 가던 경찰관이 얼굴이 넓적하고 체형은 뚱뚱하고 키는 보통이었는데, 동일한 인물을 1980년대 초에 우연히 만나 확인 결과, 사건발생 시 산청경찰서 경찰관이었음을 확인하였다. 신청인 권숙이, 진술조서(2006. 11. 30.).

94) 신청인 권숙이는 자신의 아버지가 독자였기 때문에 할머니가 집 안 은신처에 숨겨두었다가 사건 당일 새벽에 타작을 막 마쳤을 무렵에 경찰이 들이닥쳤으며, 같은 마을 주민이 아버지의 출현시각을 경찰에 알려 주었기 때문에 경찰의 출현이 가능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나) 산청읍 모고리 야산 희생사건(다-4006·6502·6863·7042·8736·10677호)

국군 제3연대와 경찰은 1949년 7월부터 12월까지 산청지역 주민들을 빨치산 협조 혐의로 산청경찰서와 산청읍 비료창고로 연행하여 구금하였다가, 산청읍 모고리 야산 원지등 일대⁹⁵⁾에서 총살과 척살 등의 방식으로 살해하였다.

○ 오부면 중촌리 황경준·황축천 형제 희생사건(다-6863호)

1949년 음력 7월경 오부면 중촌리에서는 빨치산이 마을을 습격하여 마을 경비를 담당하는 강청대원 4명이 사망하였다. 산청경찰서 경찰은 1949년 음력 7월 초 황경준·황축천(다-6863호, 황축천의 이명 : 황계천, 남·남, 39세·36세, 농업) 형제 등 오부면 중촌리 주민들을 산청경찰서에 구금하고, 모진 구타와 고문을 가했다.⁹⁶⁾

참고인 문○○(남, 당시 27세)은 황경준·황축천보다 며칠 후에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에 따르면, 구금 당시 황경준은 동생 황축천이 경찰의 모진 구타에 못 이겨 문종별 등 마을주민 3명의 이름을 언급했다고 말하며 사과했다. 참고인 문○○은 자신이 구금된 다음날 오전 산청경찰서에서 황경준과 황축천이 새끼줄에 묶인 채 끌려 나가는 것을 목격했다. 군경은 1949년 8월 8일(음력 7월 14일) 황경준·황축천 형제 등 민간인 수십명을 산청읍 모고리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총살했다.⁹⁷⁾

황경준·황축천 형제는 제적등본에 1950년 8월 10일 산청군 산청면 색동 불상번지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족보에 황경준은 제사일이 1949년(乙丑) 음력 7월 14일로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일치한다. 황축천은 족보에 제사일이 1949년(乙丑) 음력 7월 4일로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유사하다.⁹⁸⁾

○ 차황면 장위리 양촌마을 김병우 희생사건(다-4006호)

본 사건 직전 장위리 양촌마을 주민 1명이 금서면에 가서 양촌마을에 좌익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었다. 곧 함양 주둔 국군에게 이에 관한 신고가 들어갔고, 함양 주둔 국군은

95) 현장 조사 결과, 산청읍 모고리 야산은 현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산청읍 모고리 산 105-1) 인근 야산 원지 등 붉은덩이 일대를 말한다. 『경남 민간인 희생사건 출장 결과 보고서(1)』(진실화해위원회 조사2국 조사1팀-249, 2010. 04. 08); 참고인 오○○, 진술녹취록(2010. 3. 26.);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10. 6. 12.).

96)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7. 8. 29.);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3. 26.).

97) 신청인 황윤규, 진술조서(2007. 8. 29.); 참고인 문○○은 당시 논 두 마지기를 팔아 마련한 돈을 경찰에게 제공하여 산청경찰서에서 풀려날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7. 8. 29.);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3. 26.); 산청경찰서,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2010. 6. 12. 조회), 2쪽.

98) 昌原(檜山)黃氏左尹公派譜編纂委員會, 『昌原(檜山)黃氏世譜』卷一, 大譜社, 2008, 901~906쪽.

산청 주둔 국군에게 이를 알려주었다.⁹⁹⁾

1949년 9월 4~5일경(윤 7월 12~13일경) 새벽 국군 3연대는 차황면 장위리 양촌마을에 진입했다. 국군 3연대는 군경 가족만을 제외한 주민들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차황국민학교로 끌고 갔다. 국군 3연대는 김병우(다-4006호, 남, 18세, 농업) 등 양촌마을 주민들을 다시 트럭에 실어 산청읍 소재 창고로 연행하여 구금하였다.¹⁰⁰⁾

산청읍 소재 창고에서 군은 7명의 명단이 적혀 있는 서류를 가지고 와서 '병석'이란 이름을 불렀다. 김병우는 집안에서 '병석'이라고도 불렀다. 실제 이름이 김병석인 사람이 같은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으나, 그는 당시 처가에 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김병우는 집안에서 부르는 이름이 김병석과 같다는 이유만으로 산청읍 소재 창고에 보름 정도 구금되었다. 참고인(유족) 김○○에 따르면, 김병우는 구금 당시 나이가 어려서 군경의 모진 구타를 못 이겨 허위로 빨치산 협조 관계 진술을 했다고 한다.¹⁰¹⁾

이후 마을구장이 김병우의 집으로 찾아와 산청읍에 구금된 주민들이 갑과 을로 구분되어 있는데, 김병우는 갑으로 정해져 있다고 말해주었다. 이에 김병우의 큰어머니는 산청읍 소재 창고로 찾아가 김병우를 면회했다. 면회 당시 김병우는 집안의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자신을 살려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¹⁰²⁾

신청인 민순조에 따르면, 김병우의 어머니는 본 사건의 희생 당일 김병우가 민간인 20여명과 함께 손이 뒤로 묶인 채 모고리 야산으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김병우는 1949년 9월 20일(윤 7월 28일, 제사일 : 7월 27일) 20여 명의 민간인들(같은 마을 주민 1명 포함)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읍 모고리 앞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되었다.¹⁰³⁾

99)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10. 5. 3.).

100)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08. 8. 6.): 신청인 민순조는 김병우와 장위리 양촌마을 주민들이 차황국민학교에 연행되었다가, 다시 트럭에 실려 산청읍 창고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다.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10. 5. 3.): 참고인 강○○과 이○○는 본 사건 당시 국군 3연대가 양촌마을 주민들을 산청국민학교로 끌고 가서 좌익 협조 관련 여부를 취조하며 선별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강○○은 자신이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국민학교로 끌려가면서 함께 끌려가는 김병우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유족) 김○○은 김병우와 장위리 양촌마을 주민들이 구금된 창고가 산청읍 허경호 씨의 방앗간 창고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유족) 김○○, 통화보고서(2010. 5. 2.).

101)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08. 8. 6.): 신청인 민순조는 김병석은 김병우와는 5촌 정도인 관계로 본 사건 당시 연령이 30대 정도였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10. 5. 3.); 참고인(유족) 김○○, 통화보고서(2010. 5. 2.).

102)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10. 5. 3.).

103)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08. 8. 6.): 신청인 민순조에 따르면, 본 사건 당시 국군 3연대는 모고리 앞 산에서 구덩이를 파놓고 기관총으로 민간인을 집단총살했다고 한다. 본 사건의 희생규모는 20여 명 이상이며, 희생자들은 여러 곳에서 산청읍으로 끌려온 민간인들이었다고 한다. 본 사건 직후 김병우의 가족

○ 산청읍 범학리 자신마을 주민 희생사건(다-6502·7042·8736·10677호)

본 사건 이전 빨치산은 범학리 자신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강탈해간 적이 있었다. 1949년 음력 11월 초 국군 3연대는 빨치산 협조 혐의자를 수색한다며 산청읍 범학리에 진입했다. 국군 3연대는 자신마을 김임갑(다-6502호, 남, 36세)·최명영(다-7042호, 남, 23세, 상업)·진재석(다-8736호, 남, 25세, 농업)·장재호(다-10677호, 남, 32세, 농업)·김주생(미신청, 남, 43세, 이명 : 김집중, 김○○의 부) 등 마을주민 9명을 트럭에 실어 연행하여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하였다.¹⁰⁴⁾

당시 산청읍 비료창고에는 100여 명의 주민들이 구금되어 있었다. 군경은 피구금자들을 몽둥이로 구타하고 고춧가루 물과 연필 등으로 고문하며 빨치산 식량 제공 여부에 관해 취조했다.¹⁰⁵⁾ 당시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되어 고문을 당했던 참고인 김○○(여, 당시 32세)은 이렇게 진술하였다.

비료창고 옆방이었습니다. 한 사람씩 불러내 고문을 했습니다. 고문을 한 사람들은(인용자) 군인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몇 명이 돌아가면서 들어왔습니다. 연필을 꽂아 고문을 해서 손가락이 돌아가 한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팔도 돌아가고, 전신이 다 시커멓게 멍이 들어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똥물도 많이 먹었습니다. 고춧가루를 주전자에 타서 콧구멍에 들이붓는 고문을 당했습니다.¹⁰⁶⁾

참고인 김○○은 자신이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되었을 때, 김임갑·최명영·장재호 등의 주민들이 산청읍 비료창고에서 고문 받은 상태로 구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¹⁰⁷⁾

며칠간의 구타와 고문 끝에 김임갑·최명영·진재석·장재호·김주생은 1949년 12월

들은 시신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군경은 희생장소에 접근하려는 유가족들마저 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김병우의 가족들은 시신을 찾지 못했다. 신청인 민순조, 통화보고서(2010. 5. 3.); 본 사건의 희생장소에 대해 참고인 이○○는 산청읍 산청공동묘지 건너 야산(황토 산언덕)이라고 진술했고, 참고인(유족) 김○○는 모고리 앞 공동산 산청공동묘지(산청읍 상수도 정수장에서 차황 방면으로 500m 이내 위치)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강○○,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이○○, 통화보고서(2010. 4. 29.); 참고인(유족) 김○○, 통화보고서(2010. 5. 2.).

104) 신청인 진쌍호, 진술조서(2007. 8. 30.); 신청인 장기석,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진쌍호, 통화보고서(2010. 3. 18.); 신청인 장기석, 통화보고서(2010. 4. 26.); 참고인 김제권(신청인 남순금 대리), 진술조서(2007. 8. 30.); 참고인 박계순(신청인 최정소 대리),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유족) 김○○, 통화보고서(2010. 6. 7.).

10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10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107)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28일(제사일 : 음력 11월 8일) 산청읍 모고리 야산으로 끌려가 국군 3연대에 의해 수십 명의 민간인들과 함께 집단희생되었고, 이들의 시신은 수습되었다.¹⁰⁸⁾

김임갑은 제적등본에 1949년 12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유사하다. 장재호도 제적등본에 1950년 11월 10일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유사하다. 김주생은 제적등본에 1954년 11월 8일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제적등본 사망 일자가 실제 희생일자와 일치한다.

당시 모고리에 거주했던 참고인 오○○(남, 당시 27세)은 1949년 음력 7월경 산청읍 모고리 야산 원지등 붉은덩이에서 군경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처형을 위한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매장했다. 그는 당시 목격한 민간인 처살 광경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곳에 민간인들이 수십 명 잡혀와 있었는데 (중략) (군인이 - 인용자) 구덩이 앞으로 한 사람을 나오라고 하더니 경찰보고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찌르려고 하다가 못 찌렀습니다. 그러니까 지휘관으로 보이는 군인이 저리 비키라고 하더니 (군인 한 명 - 인용자)보고 찌르라고 했습니다. (중략) 구덩이 앞으로 한 사람씩 나오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나가면 그 사람에게 구덩이를 등지고 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중략) 그러면 군인이 그 앞에서 총에 대검을 착용해서 가슴을 찌렀습니다. 가슴을 찌르고 나면 칼이 잘 빠지지 않으니깐 (중략) 가슴을 딱 걷어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구덩이가 파여져 있는 뒤쪽으로 넘어졌습니다. (중략) 한 사람을 찌르고 나면 다음 사람보고 구덩이 앞으로 나오라고 하고 다른 군인이 나와서 대검으로 찌렀습니다. (중략) 칼로 찌러서 구덩이에 넣은 후에도 사람들이 다 죽지 않았습다. 그러자 군인들이 구덩이를 향해 총을 쏘았습니다. (중략) 흙을 덮는 과정에서 한 사람이 흙구덩이 사이로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오려고 하니깐 군인이 가서 그 사람 머리를 밟아 구덩이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흙을 덮었습니다.¹⁰⁹⁾

참고인 오○○은 당시 국군이 총 35명 정도의 민간인을 처살한 후 확인사살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당시 본 사건 현장에서 끌려온 주민들의 희생이유를 물어보았다. 이에

108) 본 사건의 신청인과 유족들은 본 사건 당시 희생현장에 시신이 너무 많아서, 희생자들이 착용한 옷을 확인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신을 수습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유족) 김○○은 유가족들이 당시 군경이 시신을 수습하려는 유가족들에게까지 피해를 줄까 우려하여 몰래 숨어서 시신을 수습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진쌍호, 진술조서(2007. 8. 30.); 신청인 장기석,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진쌍호, 통화보고서(2010. 3. 18.); 신청인 장기석, 통화보고서(2010. 4. 26.); 참고인 김○○은 김임갑의 시신에 총상이 없이 목에 대검으로 찌른 상처만 있었기 때문에, 김임갑은 총살당한 것이 아니라 대검으로 처살된 것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계권(신청인 남순금 대리), 진술조서(2007. 8. 30.); 참고인 박계순(신청인 최정소 대리),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유족) 김○○, 통화보고서(2010. 6. 7.).

109) 참고인 오○○, 진술조서(2009. 3. 13.).

대해 군인 한 명은 끌려온 주민들이 산청지역 일대에서 빨치산의 강요와 협박에 못 이겨 생존을 위해 빨치산에게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한 사람들이라고 답했다.

참고인 오○○은 본 사건의 가해주체가 산청국민학교 주둔 국군 제3연대 부대원 수십 명이었으며, 현장에서 부대원들이 중대장을 찾는 소리와 중대장 지시로 민간인을 살해한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에 따르면, 본 사건의 현장은 산청읍 모고리 야산의 원지등 하단 '붉은덩이'라고 불리는 산언덕이다.¹¹⁰⁾

참고인 김○○(남, 당시 17세)는 본 사건 당시 산청읍에 거주하며 산청중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참고인 김○○도 국군 제3연대가 1949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산청국민학교와 산청경찰서 뒷산 등지에 주둔하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 그에 따르면, 1949년 빨치산이 웅석봉에서 내려와 산청경찰서 등을 습격하고 식량과 가축 등을 탈취해 간 적이 있었다. 참고인 김○○은 그 후 산청국민학교 주둔 국군 제3연대가 빨치산에 의해 식량과 가축 등을 탈취당하거나 집 운반에 동원된 빨치산 협조 혐의 민간인들을 현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인근 원지등 붉은덩이로 끌고 가 총살했다고 진술했다.¹¹¹⁾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발생한 국군 3연대의 민간인 살해는 국군 3연대 출신 참고인들의 진술에서도 확인되었다.

참고인 이○○(남, 당시 17세)에 따르면, 3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신병소대)는 1949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산청읍 소재 국민학교에 주둔했다. 당시 신병소대는 주둔 학교에 구금된 100여 명의 민간인들을 군용 트럭에 태워 산청읍 북쪽 야산으로 끌고 가서 5~6개의 구덩이를 파게 했다. 참고인 이○○은 신병소대장의 명령에 따라 신병 1인당 민간인 1명을 구덩이 앞에 세워 놓고 처살했다고 진술했다.¹¹²⁾

또한 참고인 김○○(남, 당시 22세)도 3연대 1대대 3중대가 1949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경찰과 함께 산청국민학교에 주둔했다고 진술했다. 그도 당시 산청국민학교에 구금된 민간인들을 목격했으며, 부대원들이 민간인을 착검된 M1소총으로 찔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했다.¹¹³⁾

110) 참고인 오○○은 원지등 하단 붉은덩이 인근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정문 앞 일대가 한국전쟁 전후 군경이 여러 차례 민간인을 연행하여 살해하던 장소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오○○, 진술녹취록(2010. 3. 26.).

111)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10. 6. 12.).

112) 참고인 이○○은 당시 학살된 민간인이 100여 명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7. 3. 12.).

11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7. 5. 3.).

다) 차탄리 장재마을 민만호 희생사건(다-10670호)

차탄리 장재마을 민만호(다-10670호, 남, 33세)는 본 사건 당시 경호강 뱃사공이었다. 민만호는 1949년 10월 5일(음력 8월 14일) 장재마을 입구에서 산청경찰서 경찰 3~4명에 의해 연행되었다.¹¹⁴⁾

민만호는 20여 일 정도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 이후 민만호의 친척인 민영완은 산청 장날 산청경찰서에서 민만호가 트럭에 실리는 광경을 보았다. 민만호는 트럭에 실려 다시 덕산 소재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¹¹⁵⁾

당시 생초면 월내곡 거주 허○○가 민만호와 함께 덕산 소재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 본 사건 직후 허○○는 학교에서 풀려 나와 민만호의 아내와 참고인 김○○○ 등 장재마을 주민들에게 민만호가 학교에 구금된 지 며칠 후 군경에 의해 끌려 나갔다고 전해주었다. 민만호는 1949년 11월 1일경(제사일 : 음력 9월 10일) 오후 덕산 소재 국민학교에서 군경에 의해 끌려 나가 희생되었다.¹¹⁶⁾

민만호는 족보에 丁亥(1947년) 9월 11일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 일자가 실제 희생일자와 일치한다.¹¹⁷⁾

라) 차황면 장박리 오인호 등 희생사건

○ 장박리 오인호 · 김천수 · 박고비 희생사건(다-7360 · 9882호)

황매산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빨치산 20여 명은 1949년 8월 15일 06시경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차황지서를 기습했다. 이들은 차황지서 경찰이 응전하며 추격하자 다시 황매산 방면으로 퇴각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전사자가 발생하고 총기를 빼앗기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¹¹⁸⁾

한편, 빨치산은 1949년 8월경 황매산과 가까운 차황면 장박리에 내려와 젊은 주민들에게 짐을 운반시킨 적이 있었다. 이에 장박리 주민들은 차황지서에 빨치산 출현을 신고하러 갔다. 그러나 당시 나이가 많았던 오인호(다-7360호, 남, 58세, 농업)와 김천수 · 박고

114) 신청인 민영학과 참고인 김○○○은 음력 8월 14일 경찰이 민만호를 연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신청인 민영학,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민○○, 진술서(2010. 2. 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5.).

115) 신청인 민영학,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5.).

116) 신청인 민영학,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민○○, 진술서(2010. 2. 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5.).

117) 『驪興閔氏農隱公派譜』卷之二, 1412쪽.

118) 山淸警察署, 『智異山の砲聲(山淸地域警察戰史)』, 1989, 35쪽.

비 부부(다-9882호, 남·여, 59세·56세, 농업)는 마을에 남아 논에서 일하고 있었다.¹¹⁹⁾

빨치산 출현 신고를 접한 국군 3연대 1개 중대는 1949년 8월 19일(제사일 : 음력 7월 24일) 장박리에 들어 왔다. 오인호와 김천수·박고비 부부는 당시 고령이어서 빨치산에게 짐을 운반해줄 수도 없었다. 참고인 송○○(남, 당시 18세)에 따르면, 본 사건 당시 빨치산의 강요로 짐을 운반했던 주민들은 이들이 아니라 일부 젊은 주민들이었다.¹²⁰⁾

그러나 국군 3연대는 같은 날 14시경 논에서 일하고 있던 오인호와 김천수·박고비 부부를 빨치산 협조 혐의로 연행하였다. 국군 3연대는 이들을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로 끌고 가 집단총살했다. 오인호와 김천수·박고비 부부의 시신은 본 사건 직후 유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¹²¹⁾

오인호와 김천수·박고비는 제적등본에 모두 1949년 8월 19일 차황면 장박리 이목평지(梨木坪地)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장소가 실제 희생시기·장소와 일치한다.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는 오인호·김천수·박고비가 1950년 8월경 장박 배나무평지에서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²²⁾

○ 장박리 장박마을 박우출 등 희생사건(다-7719·8321·8827·8830호)

1949년 11월에는 장박리 장박마을 주민들이 산청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희생되었다. 본 사건 발생 직전 국군 3연대는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여성 빨치산 1명을 생포했다. 산청읍 주둔 국군 3연대는 1949년 11월 19일(음력 9월 29일) 생포된 여성 빨치산을 데리고 장박마을로 들어왔다. 국군 3연대는 마을회관 앞에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여성 빨치산에게 얼굴을 아는 주민들을 지목하라고 했다.¹²³⁾

119) 신청인 오문환, 진술조서(2007. 8. 29.); 신청인 김두태, 진술조서(2007. 8. 3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120) 신청인 오문환, 진술조서(2007. 8. 29.); 신청인 김두태, 진술조서(2007. 8. 31.);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121) 신청인 김두태는 본 사건 직후 사건 현장을 찾아가 김천수·박고비·오인호의 시신을 목격하고, 김천수·박고비의 시신을 수습하여 매장했다. 신청인 김두태,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오문환, 진술조서(2007. 8. 29.); 참고인 김○○과 송○○에 따르면, 본 사건의 희생장소인 황매산 밑 장고개는 장박리 장박마을에서 황매산 방향으로 1km 정도 떨어져 있는 고개이다. 참고인 김○○에 따르면, 본 사건의 정확한 희생장소가 황매산 밑 장고개에 있는 배나무평지이며, 배나무평지는 배나무가 있어 장고개 쪽으로 농사일을 나갔던 주민들이 휴식하던 장소였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31.).

12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1 -』, 2008.

12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이 과정에서 국군 3연대는 마을회관에 나와 있던 박판대(다-8827호, 남, 33세, 농업)와 박완주(다-8830호, 남, 35세, 농업 및 상업)를 연행하였다. 또한 박판대의 형 박우출(다-7719호, 남, 39세, 장박리 장박마을 거주, 농업)은 당일 가을 공출을 위해 차황면소재지에 다녀오던 길에 연행되었으며, 차황면사무소 면서기 오규환(다-8321호, 남, 28세, 장박리 거주)도 같은 날 연행되었다.¹²⁴⁾

당시 함께 연행되었던 참고인 송○○(남, 당시 18세)에 따르면, 국군 3연대는 이들을 포함한 장박리 주민 총 10여 명을 연행하여 산청경찰서에 구금했다. 구금된 주민들은 국군 3연대 군인들에 의해 모진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국군 3연대는 생포된 빨치산 여성에게 식량 제공 혐의자를 지목하게 했다. 이후 박우출·박판대·오규환·박완주는 1949년 11월 하순경 국군 3연대에 의해 끌려가 산청읍(금서면 가는 쪽)에서 희생되었다.¹²⁵⁾

박우출은 제적등본에 1949년 7월 5일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제적등본 사망 연도가 실제 희생 연도와 일치한다. 박완주는 제적등본에 1950년 10월 5일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유사하다. 박우출과 박판대는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 1949년 10월경~1950년 10월경 국군에 의해 연행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²⁶⁾

마) 생초면 향양리 임재문 등 희생사건(다-4352·7453호)

1949년 추석 전 빨치산은 생초면 향양리(일명 향촌)에 들어와 식량을 약탈해간 적이 있었다.¹²⁷⁾ 1949년 9월 29일(음력 8월 8일) 오전 함양읍 주둔 국군 3연대 30여 명은 대창을 소지한 함양군 수동면 청년 약 50명과 함께 생초면 향양리에 진입했다. 국군 3연대는 당시 신원면으로 별초를 하러 갔던 향양리 김타관을 마을로 끌고 왔다.¹²⁸⁾

국군 3연대는 점심식사 후 마을주민들 50여 명을 마을 동청에 집결시킨 후 김타관을 비롯한 성인 남성들을 무차별적으로 구타했다. 이후 국군 3연대는 향양리 임재문(다

124) 신청인 박암, 진술조서(2008. 7. 20.); 신청인 박옥선, 통화보고서(2008. 8. 6.); 참고인 오문환(신청인 오재춘 대리), 진술조서(2007. 8. 2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12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2.);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6.); 장박리 장박마을 거주 참고인 송○○도 본 사건 당시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3일 만에 풀려났다. 그는 구금 당시 산청경찰서에 국군 3연대 중대장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송○○, 진술조서(2010. 3. 26.).

12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1 -』, 2008.

127) 신청인 배춘근, 진술조서(2008. 8. 5.).

128) 신청인 배춘근, 진술조서(2008. 8. 5.); 참고인 배○은 마을에 진입한 함양군 수동면들이 호국대 또는 청년단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배○,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임○○,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임○○, 통화보고서(2010. 5. 5.).

-4352호, 남, 46세, 농업) · 배영선(다-7453호, 남, 46세, 농업) · 김타관(미신청) · 이두철(미신청) 등 주민 10여 명을 빨치산 협조 혐의로 군 주둔지인 함양경찰서로 연행하여 구금하였다.¹²⁹⁾

연행된 주민들은 함양경찰서에서 군경에 의해 많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1949년 10월 초 임재문은 함양경찰서에서 군경의 고문으로 희생되었다. 같은 시기에 마을구장이자 민보단장이었던 배영선과 김타관 · 이두철은 군경에 의해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남산)으로 끌려가 집단희생되었다.¹³⁰⁾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는 임재문 · 배영선이 한국전쟁 전후 음력 8월경 국군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임재문은 고문을 못 이겨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³¹⁾

바) 시천면 천평리 강우실 등 희생사건

○ 천평리 강우실 희생사건[다-338(1)호]

천평리 상지마을 거주 강우실[다-338(1)호, 남, 45세, 농업]은 1949년 1월경 같은 마을 주민 정정수 등과 함께 생계를 위해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에 나무를 베는 작업을 하러 갔다. 당시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직후로 국군 제15연대 · 제16연대 · 제5연대 등이 산청군 및 지리산 일대에서 입산한 14연대 반군을 토벌하고 있었다.¹³²⁾

본 사건 당시 참고인 정○○(남, 당시 14세)는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강우실이 희생되기 전날 밤 군복을 착용한 빨치산들이 당시 20여 호

129) 신청인 임수환, 진술조서(2007. 8. 29.); 신청인 배춘근, 진술조서(2008. 8. 5.); 신청인, 배춘근, 통화보고서(2010. 5. 5.); 참고인 배○,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임○○, 진술조서(2010. 1. 13.).

130) 신청인 임수환, 진술조서(2007. 8. 29.); 신청인 배춘근, 진술조서(2008. 8. 5.); 참고인 배○과 임○○ 및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 따르면, 연행된 주민들 중 박○○ · 임○○ · 임○○ · 배○○ · 임○○은 연행된 지 5일 정도 후 고문으로 몸에 상처가 많고 옷에 피가 많이 묻었으며, 팔 · 다리에 심한 부상을 당한 상태로 귀가했다. 이 중 박○○은 3년 정도 후 고문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이들은 마을주민들에게 연행된 주민들이 함양읍 군 주둔지에서 많은 구타와 고문을 당했으며, 특히, 임재문이 군 주둔지에서 고문으로 희생되었다고 전해주었다. 참고인 배○, 진술조서(2010. 1. 13.); 참고인 임○○, 진술조서(2010. 1. 13.);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1 -』, 2008; 신청인 배춘근은 본 사건의 희생장소를 함양의 남산(함양읍에서 휴천면 가는 쪽 야산)이라고 진술했다.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과 남산은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있는 작은 야산이다. 함양지역 주민들은 당그래산과 남산을 구분하지 않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본 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가 2008년 12월 결정한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에 따라, 당그래산과 남산을 당그래산으로 통일하여 표기했다. 신청인, 배춘근, 통화보고서(2010. 5. 5.);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함양 민간인 희생사건』,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8. 7. 9.~2009. 1. 5.)』(03), 2009, 84쪽.

131) 진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1 -』, 2008.

132) 참고인 송○○,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송○○,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6. 30.).

정도가 밀집된 동촌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탈취했다. 다음날인 1949년 1월 21일 국군 제5연대는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내대 뒷산을 포위하여 빨치산과 교전을 벌였다. 이에 빨치산은 거림으로 도주하였고, 국군 제5연대는 같은 날 동촌마을로 진입하였다.¹³³⁾

강우실은 1949년 1월 21일(제사일 : 음력 12월 22일) 오후 내대리 동촌마을 중앙에 있는 박연생의 집(숙식처)에 있었다. 강우실은 교전 종료 후 2~3시간 정도 지나 오후 3~4시경(일몰 전으로 어둡지 않을 때) 소변을 보기 위해 집에서 나왔다. 당시 참고인 정○○의 아버지 등 마을주민들 일부는 마을 경비를 위해 동촌마을 입구 등 가옥 외부에 나와 있었다. 강우실은 집에서 10m 정도 떨어진 화장실에 가던 도중 동촌마을에 진입한 국군 제5연대에 의해 사살되었다. 강우실과 함께 동촌마을에 갔던 정정수가 다음날 오전 시신을 시천면 천평리 상지마을로 운구하여, 강우실의 시신은 수습되었다.¹³⁴⁾

강우실은 제적등본에 1949년 1월 21일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도로변에서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장소가 실제 희생시기·장소와 일치한다. 산청군의회 보고서에는 강우실이 1949년 11월 21일 시천면 원리 뒷산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³⁵⁾

○ 반천리 송성서·송진호 형제 희생사건(다-8315호)

국군 제3연대 제2대대와 연대 정보과는 1949년 7월부터 1949년 12월까지 산청군 및 인근 지역 민간인들을 빨치산 협조 혐의 등으로 구 덕산지서(국군 제3연대 정보과 본부) 등으로 연행했다. 연행된 주민들은 시천면 사리 소재 농회창고(구 덕산지서 옆, 200평 규모)에 구금되었다가, 국군 제3연대에 의해 구 덕산지서 뒷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 및 척살되

133) 참고인 정○○는 본 사건 당시는 여수 14연대 반군이 지리산으로 입산한 직후여서 빨치산들이 군복을 착용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6. 30.).

134) 참고인 정○○는 본 사건의 내용을 본 사건 당시 마을 경비를 서다가 저녁에 집으로 돌아온 자신의 아버지에게서 전해 들었다. 참고인 정○○는 본 사건 발생지점은 오후 3~4시경인 일몰 전으로 마을에 진입한 국군은 민간인과 군복을 착용하고 있던 빨치산을 육안으로도 구별할 수 있던 때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참고인 정○○에 따르면, 강우실은 화장실 내부에서 국군에 의해 사살된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가던 도중 민간인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살되었다. 또한 강우실이 숙식하던 박연생의 집은 20여 호가 밀집된 동촌마을 중앙에 위치하고 있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6. 30.); 참고인 강○○에 따르면,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국군 제5연대이며, 발생시기는 음력 12월 23일 오후 일몰 전 어둡지 않았을 때였다. 본 사건 발생 다음날 강우실의 시신을 운구한 정정수는 참고인 강○○에게 강우실이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말했다. 참고인(유족) 강○○, 통화보고서(2010. 6. 30.); 참고인 정○○은 강우실이 여수 14연대 반란이 일어난 해 음력 겨울 오후(일몰 전)에 국군에 의해 사살되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6. 30.); 신청인 배복순은 본 사건 당시 국군이 시천면 내대리에서 강우실이 머물렀던 집 근처로 와서 강우실을 사살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배복순, 진술조서(2007. 6. 14.); 참고인 송○○,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송○○, 진술녹취록(2010. 4. 15.).

135)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31쪽.

었다.¹³⁶⁾

반천리 불계마을 송성서(다-8315호, 이명 : 군호, 남, 44세, 농업, 불계마을 구장)는 1949년 여름 국군 3연대에 의해 반천리가 소개 및 소각되자 동생 송진호(다-8315호, 남, 31세, 반천리 불계마을 거주, 농업)와 동일하게 시천면 내공리 후평마을로 내려와 소개 생활을 하고 있었다. 당시 국군 3연대는 이른바 ‘신천리 설통바위 사건’ 직후 많은 시천면 주민들을 덕산국민학교에 연행 및 구금하였다가 희생시켰다. 그러나 당시 송성서·송진호 형제에게는 피해가 없었다.¹³⁷⁾

그러나 송성서는 1949년 음력 7월 중순경 경찰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로 연행되었다. 송성서가 연행된 지 5일 정도 후 송진호도 집 뒷산에 나무하러 갔다 왔는데, 집으로 찾아온 경찰은 송진호가 산에서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의심하며 집 근처 밭에서 그를 구타한 후 연행했다. 이후 송성서·송진호 형제는 구 덕산지서로 끌려가 구 덕산지서 옆 창고에 구금되었다. 이들은 1949년 9월 24일(제사일 : 음력 8월 2일) 국군 3연대에 의해 구 덕산지서 뒷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되었다.¹³⁸⁾

136)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에 따르면, 시천면 사리 소재 농회창고는 200평 규모로 국군 제3연대 정보과 본부가 있는 덕산지서와 바로 인접해 있었다. 본 사건 당시에 연행된 주민들은 덕산국민학교에 구금되었으나, 나중에는 농회창고에 구금되어 취조를 당했다. 본 사건 당시 구 덕산지서 뒷산은 사리 농회창고 뒷산·남명 조식 묘소 인근·산업창고 뒷산 등으로도 불렸다. 2007년 진실화해위원회의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조사결과는 본 사건의 장소를 농회창고 뒷산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본 보고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그대로 반영하여 본 사건의 희생장소를 구 덕산지서 뒷산으로 기재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2007. 12. 31.)』, 2008, 683~687쪽;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3. 2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137) ‘신천리 설통바위 사건’은 1949년 7월 18일 국군 제3연대 제2대대 1개 소대 병력이 시천면 신천리 곡점 밑 바위(설통바위) 인근에서 매복한 빨치산과 교전을 벌여, 3연대 부대원 10여 명이 전사하고 24명이 빨치산에 의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말한다. 이후 국군 제3연대 제2대대와 정보과는 시천면 주민들 가운데 빨치산 협조 혐의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신천국민학교와 덕산국민학교 등지로 주민들을 연행 및 구금하였다가, 신천국민학교 운동장과 덕산국민학교 뒷산(시천면 원리 뒷산) 등지에서 집단총살 및 척살하였다. 당시 송진호만 덕산국민학교로 연행되어 구금되었으나, 곧 아무 문제없이 풀려났다. 山淸警察署, 『智異山의 砲聲(山淸地域警察戰史)』, 1989, 99~100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2007. 12. 31.)』, 2008, 678~683쪽;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3. 29.);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138) 신청인 송지영, 진술조서(2010. 4. 17.); 참고인 안○○과 이○○은 송성서와 송진호가 좌익활동을 하거나 빨치산에 협조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홍○○은 본 사건의 경위를 본 사건 당일 목격자(덕산지서 식사 제공자)의 증언을 통해 알게 되었다. 참고인 홍○○, 진술조서(2010. 3. 29.); 참고인 이○○은 반천리 불계마을은 정치적으로 우익 성향이었고, 송성서는 마을구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송성서가 빨치산 및 좌익과 관련된 일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산청군의회 보고서에는 송성서·송진호가 1949년 7월 22일 시천면 원리 뒷산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는 송성서가 국군에 의해 끌려가 양당마을 뒷산에서 집단총살되어 매장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¹³⁹⁾

○ 신천리 최우학 희생사건(다-7450호)

신천리 하신마을 최우학(다-7450호, 이명 : 또학, 남, 48세, 농업)은 1949년 음력 6월경 국군 3연대의 마을 소개와 소각으로 시천면 내공리 미륵사 인근에서 생활하고 있었다.¹⁴⁰⁾

1949년 12월 16일(제사일 : 음력 10월 27일) 최우학의 아들 최천호는 결혼을 하게 되었다. 최천호의 친구 노○○는 당시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했는데, 당시 산에서 내려와 최천호의 결혼식에 찾아왔다.¹⁴¹⁾

최우학은 아들의 결혼식에 찾아온 노○○에게 자수를 권유했다. 그러나 최우학은 노○○가 아들의 결혼식에 찾아왔다는 신고로 인해 군경에 의해 구 덕산지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다. 이후 최우학은 군경에 의해 시천면 야산에서 희생되었다.¹⁴²⁾

최우학은 제적등본에 1950년 7월 2일 경남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본적지)에서 사망했다고 신고되어 있다.

사) 단성면 창촌리 김명준 등 희생사건

○ 창촌리 구만마을 김명준 희생사건(다-10676호)

1949년 3월 25일 빨치산 50여 명은 단성면사무소와 단성지서를 습격하여, 단성지서장 경사 양재명이 사망하고 단성지서와 면사무소가 방화되었다.¹⁴³⁾ 이후 경찰과 단성지서

139) 송성서의 본적지와 유가족 이름을 확인한 결과, 송성서는 산청군의회 보고서와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 송성호라고 기재되었다. 참고인 이○○은 집안에서 송성서를 송성호라고도 불렀다고 진술했다.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24쪽;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4. 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2 -』, 2008.

140) 신청인 최근호, 진술조서(2008. 4. 23.);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8.).

141) 신청인 최근호, 진술조서(2008. 4. 23.); 신청인 최근호, 통화보고서(2010. 4. 29.); 참고인 안○○과 이○○에 따르면, 노○○는 경남 하동군 청암면 출신으로 산청군 시천면 신천리에서 술도가를 운영했으며, 입산하여 빨치산 활동을 했다. 참고인 안○○은 노○○가 본 사건 이후에 자수하여 경찰로 근무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8.).

142) 신청인 최근호, 진술조서(2008. 4. 23.); 신청인 최근호, 통화보고서(2010. 4. 29.); 참고인 안○○과 이○○은 최우학이 좌익활동을 하거나 빨치산에 협조할 사람들이 아니었는데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안○○, 진술조서(2010. 3. 28.);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8.).

143) 山淸警察署, 『智異山의 砲聲(山淸地域警察戰史)』, 1989, 33~34쪽.

특공대는 창촌리 구만마을 주민 여러 명을 단성지서로 연행했다.¹⁴⁴⁾

창촌리 구만마을 김명준(다-10676호, 남, 28세, 농업)은 지적 장애인으로 좌익 및 빨치산과는 무관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는 1949년 음력 3월 초순경 단성지서 특공대 2명에 의해 단성지서로 연행되었다.¹⁴⁵⁾

김명준은 단성지서와 산청경찰서에서 경찰이 단성지서 방화에 참여했냐고 욕박지르며 묻는 취조에 아무 것도 모르면서도 지적 장애로 인해 '네'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김명준은 구금 3일 정도 후에 국군 3연대에 인계되어 전라북도 남원으로 끌려갔다. 그는 1949년 4월 초·중순경 남원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되었다.¹⁴⁶⁾

산청군의회보고서에는 김명준이 1950년 2월 13일 창촌마을 논에서 희생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¹⁴⁷⁾

○ 청계리 진자마을 권재만 희생사건(다-9378호)

청계리 진자마을 권재만(다-9378호, 남, 28세, 농업)은 1949년 여름 군경의 마을 소개령 때문에 청계리 용두마을에서 소개 생활을 하고 있었다.¹⁴⁸⁾

권재만은 1949년 9월 7일경(음력 윤 7월 15일) 청계리 진자마을로 가서 농사일을 하다가, 국군 제3연대에 의해 목수 및 일꾼들과 함께 용두마을로 끌려 내려왔다. 곧바로 권재만은 다른 주민 3~4명과 함께 국군 제3연대에 의해 다시 연행되었다. 당시 권재만의 아내 문계선은 권재만의 연행 광경을 목격한 후 단성지서로 찾아 갔으나, 권재만은 이미 단성지서를 거쳐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있었다.¹⁴⁹⁾

당시 신등면 단계리 주민 한 명은 권재만과 함께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풀려났다. 그는 석방 당시 권재만이 다른 민간인들과 함께 군경에 의해 끌려 나가는 광경을 목격했다

144)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3. 30.)

145) 참고인 문혜경(신청인 김종원 대리), 통화보고서(2008. 8. 6.); 참고인 권○○은 본 사건 당시 김명준이 집에서 단성지서 특공대에 의해 연행되는 광경을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3. 30.).

146) 반면 김명준과 함께 연행된 주민들은 모두 귀가하였다. 김명준의 아버지는 김명준이 단성지서에서 남원으로 인계된 직후 김명준을 찾으러 남원에 갔다 와서 김명준이 이미 희생되어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인 문혜경(신청인 김종원 대리), 통화보고서(2008. 8. 6.); 참고인 권○○, 진술조서(2010. 3. 3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4. 24.).

147) 산청군의회(시청·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청·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32쪽.

148) 신청인 권유현,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권유현 진술서(2010. 5. 11.).

149) 권재만의 아내 문계선이 단성지서에 찾아가 권재만의 행방을 문의하자, 단성지서 경찰은 문계선에게 권재만이 이미 산청경찰서로 끌려가 구금되었다고 알려주었다. 신청인 권유현,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권유현, 진술서(2010. 5. 11.).

고 권재만의 가족들에게 전해주었다. 얼마 후 권재만의 아내 문계선은 마을구장으로부터 권재만이 집단희생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권재만은 1949년 9월 20일(윤 7월 28일, 제사일 : 음력 7월 27일) 산청군 야산에서 국군 제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¹⁵⁰⁾

권재만은 제적등본에 1950년 4월 5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족보와 파보에는 권재만이 1949년(己丑) 9월 7일(음력 윤 7월 15일)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족보 및 파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유사하다.¹⁵¹⁾

○ 입석리 입석마을 권월봉 희생사건(다-2283호)

단성면 입석리 입석마을 권월봉(다-2283호, 족보명 : 태민, 남, 42세)은 1949년경 방앗간을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빨치산은 권월봉의 집에 와서 총으로 위협하며 식량을 약탈해 간 적이 있었다. 이에 경찰은 권월봉을 두 차례 정도 산청경찰서로 연행하여 구타 및 고문했다.¹⁵²⁾

경찰서에서 석방된 후에도 권월봉은 다시 경찰로부터 조심하라는 경고를 들었다. 권월봉은 이번에는 경찰의 구타와 고문이 두려워 피신했다. 그러자 단성지서 경찰은 권월봉의 가족들까지 단성지서로 연행하여 구금했다. 경찰은 권월봉의 소재 파악을 위해 그의 아들 권재모(당시 13세 정도)에게까지 전기고문을 가했다.¹⁵³⁾

권월봉은 피신 중에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피해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에 그는 산청경찰서에 가서 자수하여 곧 풀려났다. 그러나 자수 다음날 산청경찰서 사복형사 2명은 그를 다시 산청경찰서로 연행했다. 권월봉은 1950년 4월 2일(제사일 : 음력 2월 14일) 산청경찰서 경찰(합천 출신 변 형사 등)에 의해 단성면 청계리 개당 앞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했고, 유가족들이 그의 시신을 수습했다.¹⁵⁴⁾

150) 신청인 권유현, 진술조서(2007. 8. 31.); 신청인 권유현, 진술서(2010. 5. 11.); 참고인 강○○,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권○○,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권○○는 권유현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발발 전(추수 직전) 국군 제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산청군 신등면 단계리 산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고 전해 들었다. 참고인 권재모는 본 사건 당시 산에서 나무를 하고 내려오던 주민 1명이 권유현의 아버지와 함께 국군 제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신등면 단계리 산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권○○, 통화보고서(2010. 6. 27.).

151) 『安東權氏佐郎公派譜』, 1980, 152쪽; 안동권씨대중회, 『안동권씨대동세보(安東權氏大同世譜)』제15권, 해돋이, 2004, 108쪽.

152) 권월봉의 아버지는 권월봉이 연행될 때마다 산청경찰서 경찰에게 돈을 주어 권월봉을 석방시켰다.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08. 7. 20.);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10. 5. 3.); 참고인 권○○, 진술서(2010. 2. 3.).

153)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08. 7. 20.);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10. 5. 3.); 참고인 권○○, 진술서(2010. 2. 3.).

154) 신청인 권재모는 권월봉이 마산에서 산청경찰서 사복형사 2명에 의해 연행되는 것을 목격했으며, 연행된 지 2일 후 권월봉의 시신을 목격 및 수습하였다. 본 사건의 희생현장인 청계리 개당 앞산은 청계리 진자

죽보와 파보에는 권월봉이 1950년(庚寅) 음력 2월 15일에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죽보와 파보의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일치한다.¹⁵⁵⁾

아) 신등면 간공리 정화석 등 희생사건

○ 모레리 권명이·권중명 형제 희생사건(다-9248호)

본 사건 당시 빨치산은 밤이면 신등면 모레리에 내려와 마을주민들을 선동했다. 반면 낮에는 신등지서 경찰이 되면 모레리에 들어와 빨치산 협조자를 색출했다.¹⁵⁶⁾ 특히, 신등지서 지서장 김○○¹⁵⁷⁾는 좌익 및 빨치산 협조 혐의로 신등지서에 구금된 주민들을 모집계 구타 및 고문하기로 유명했다. 또한 그는 나병환자들을 빨치산과 내통한다고 권총으로 총살하는 등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었다.¹⁵⁸⁾

신등면 모레리 거주 권명이(다-9248호, 남, 41세, 농업)는 1949년 봄 그의 동생 권중명(다-9248호, 남, 35세, 신등면사무소 직원)과 함께 산청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신등지서와 산청경찰서를 거쳐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 권중명은 연행된 지 1개월 정도 후 진주지역 검사 문명불상의 도움으로 석방되어 다시 신등면사무소에 근무할 수 있었다.¹⁵⁹⁾

이후 모레리 이장이 야간에 빨치산에 의해 모레리마을 입구 정자나무 인근에서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신청인 권문혁과 참고인(유족) 권○○(남, 당시 22세)에 따르면, 이 사건이 발생하자, 살해된 이장의 아들과 모레리 권○○은 권중명을 모레리 이장 살해사건 관련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무고했다. 이로 인해 권중명은 다시 산청경찰서로 연행

마을 앞산이라고도 하며, 입석리 입석마을에서 4km 정도 떨어져 있다. 신청인 권재모에 따르면, 본 사건 직후 권월봉의 동생 권○○은 권월봉이 총살당하자 너무 억울하여, 법조계 인사에게 돈을 주어 그 이유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신청인 권재모는 권월봉이 아무런 성과(동료와 동반 자수, 무기 소지 자수 등)없이 자수하여 총살당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다.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08. 7. 20.); 신청인 권재모, 진술조서(2010. 5. 3.); 참고인 강○○,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권○○, 진술서(2010. 2. 3.).

155) 『安東權氏安分堂公派譜』卷之二, 1992, 62~63쪽; 안동권씨대종회, 『안동권씨대동세보(安東權氏大同世譜)』 제15권, 해돋이, 2004, 72쪽.

156) 신청인 권문혁, 진술조서(2008. 9. 11.).

157) 山淸警察署, 『智異山의 砲聲(山淸地域警察戰史)』, 1989, 37~39쪽;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3. 27.).

158) 참고인 이○○은 당시 신등지서에 끌려가면 엄청난 구타와 고문을 당하여 살아 돌아오면 다행이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도 당시 신등지서에 잡혀가면 모진 구타와 고문이 자행되어 살아 돌아온 주민들이 몇 사람 되지 않았으며, 신등지서장 김○○가 많은 주민들을 희생시켰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3. 27.).

159) 신청인 권문혁, 진술조서(2008. 9. 1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7.); 참고인 이○○,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및 구금되어 고문당했다. 권중명은 1949년 음력 11월경(제사일 : 음력 9월 24일) 산청경찰서에서 산청군 야산으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집단총살되었다.¹⁶⁰⁾

한편, 권명이의 아들 권○○(남, 당시 17세 정도)은 한국전쟁 발발 전 진주형무소에 가서 권명이를 면회했다. 그러나 권명이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하순경(제사일 : 음력 6월 12일) 진주형무소 수감자들과 함께 진주의 산골짜기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되었다.¹⁶¹⁾

권명이는 족보에 1950년 6월 12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일치한다. 권중명도 족보에 1949년 9월 23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일치한다.¹⁶²⁾

○ 간공리 간공마을 정화석 희생사건(다-10325호)

본 사건 당시 간공리 간공마을에도 빨치산이 밤에 내려와 주민들에게 식량을 강요한 적이 있었다. 주민들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할 수밖에 없었다.¹⁶³⁾

간공리 간공마을 정화석(다-10325호, 족보명 : 화호, 남, 25세, 농업 및 한약방 조수)은 1949년경 마을청년들이 모이는 자리에 참석하여 같은 마을 정기석(미신청, 족보명 : 기호, 남, 35세)에게 심부름을 해준 적이 있었다.¹⁶⁴⁾

160) 신청인 권문혁과 참고인 이○○은 권명이·권중명 집안이 한국전쟁 중 인민군 점령기에 경찰 가족을 집안에 숨겨주었을 정도로 권명이·권중명은 좌익 및 빨치산과는 무관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이○○은 권명이·권중명 형제가 신등지에서 모진 구타를 당하여 억울하게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권문혁, 진술조서(2008. 9. 1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7.); 참고인 이○○,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 권○○에 따르면, 당시 산청경찰서 형사 강○○이 권중명을 담당했고, 권○○은 경찰에게 권중명이 빨치산에 의한 모래리 이장 살해에 가담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161) 진실화해위원회는 2009년 2월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진실을 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진주형무소에서는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에서 하순(26일)까지 최소 1,200명의 진주형무소 재소자와 보도연맹원들이 진주지구 CIC·진주지구 헌병대·진주경찰서 경찰에 의해 집단 살해되었다. 당시 진주형무소 재소자들은 진주 명석면 우수리 갯골 및 콩밭골(현 진주시 명석면 우수리 산 5번지 및 84번지)·진주 명석면 관지리 신촌마을 화령골짜기 및 삭평마을 닭죽골짜기(현 진주시 명석면 관지리 산 88-1번지·산 72번지)·진주 명석면 용산리 용산치(현 진주시 명석면 용산리 산 241-1번지·산 417-2번지)·진주 문산읍 상문리 진성고개(현 진주시 문산읍 상문리 산 312번지) 등지에서 집단희생되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 『2009년 상반기 조사보고서(2009. 1. 6.~2009. 7. 7.)』(03), 2009, 328쪽·421~434쪽·442~443쪽·519쪽;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3. 27.); 참고인 이○○,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참고인(유족) 권○○, 통화보고서(2010. 6. 4.).

162) 安東權氏 泰奉公 派宗會, 『安東權氏泰奉公派譜』卷二, 2006, 67~68쪽.

163) 참고인 정○○, 진술서(2010. 2. 3.).

1949년 음력 7월경 아침 신등지서 경찰 2명과 치안대원 3명은 간공마을에 들어와 정기석을 좌익 관련 혐의로 연행했다. 정기석은 신등지서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모진 고문을 동반한 취조를 받았다.¹⁶⁵⁾

정기석이 연행된 후 간공리에서는 정화석·정○○·정○○·정○○·정○○ 등 주민 10여 명이 약 4차례에 걸쳐 좌익 협조 혐의로 몰려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이들은 신등지서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군경에 의해 구타와 고문을 당했다. 정화석과 정기석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있다가 1949년 9월경 군경에 의해 희생되었다.¹⁶⁶⁾

측보에 정화석과 정기석은 모두 己丑(1949년) 윤 7월 15일에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있다.¹⁶⁷⁾

자) 신안면 하정리 원지마을 김상근 희생사건(다-7451호)

1949년 7월 9일(음력 6월 14일) 저녁 국군 3연대 군인 5~6명이 하정리 원지마을 주막에서 음주를 하고 있었다. 갑자기 군인 1명은 주막 맞은 편 김상근(다-7451호, 남, 51세)의 집에 있는 식모를 보자 총을 들고 김상근의 집으로 들어왔다. 군인은 식모가 도망가자 집 마당에 널려 있는 삼을 거두라고 지시하였다.¹⁶⁸⁾

김상근은 군인의 지시에 따라 집안 머슴과 함께 마당에서 삼을 거두고 있었다. 본 사건의 희생 광경을 목격한 김○○(여, 당시 18세)에 따르면, 집에 들어온 군인은 갑자기 집 마당에서 삼을 거두고 있는 김상근을 사살하였다. 김상근의 시신은 수습되어 신안면 하정리 야산에 매장되었다.¹⁶⁹⁾

164) 신청인 정영희, 통화보고서(2008. 8. 6.);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3. 27.).

165) 당시 참고인 정○○(남, 당시 16세)은 신등지서 경찰 2명과 치안대 대원 3명 정도가 마을에 찾아와 정기석을 신등지서로 연행하는 광경을 목격했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3. 27.).

166) 신청인 정영희, 통화보고서(2008. 8. 6.); 참고인 정○○, 진술서(2010. 2. 3.); 참고인 정○○에 따르면, 본 사건 당시 신등지서에서는 피구금자들에 대한 전기고문 및 고춧가루 물고문 등의 가혹한 고문과 구타가 자행되었다. 그래서 신등지서로 끌려갔다가 장애를 입거나 집에 돌아오지 못하는 주민들이 많았다. 더욱이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된 주민들은 거의 살아 돌아오지 못했다. 이러한 이유로 아무 죄가 없는 주민들도 고문에 못 이겨 죄를 뒤집어쓰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정화석도 죄가 없는데 억울하게 희생된 것이었다. 참고인 정○○은 본 사건으로 신등면 간공리 정기석과 신등면장 김○○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총살되었다고 진술했다. 당시 정화석과 함께 연행된 주민들 중 정○○은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석방되었다. 정○○·정○○은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정○○은 김천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군경에 의해 집단 학살되었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3. 27.); 산청경찰서,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2010. 6. 12. 조회), 2쪽.

167) 慶州鄭氏良景公派修譜委員會, 『慶州鄭氏良景公派世譜』, 1996, 270쪽·286쪽.

168) 신청인 김병우, 진술조서(2007. 8. 31.).

169) 신청인 김병우는 본 사건 직후 김상근의 시신을 목격 및 수습하였다. 김병우의 처 김○○은 본 사건 당시 김상근의 희생 광경을 직접 목격했다. 김○○은 신청인 김병우에 대한 진술 조사 당시 김병우와 함께 동

김상근은 제적등본에 1949년 7월 9일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780번지에서 사망한 것으로 신고되어, 제적등본 사망시기·장소가 실제 희생시기·장소와 일치한다.

2) 사천시¹⁷⁰⁾ 사건

가) 남양면 신벽리¹⁷¹⁾ 이철래·김학수 등 희생사건(다-9853·9854호)

사건발생지역인 사천군은 일제 강점 하에서 적색농민조합이 존재하였고, 해방 정국에 서는 인민위원회가 통치권을 행사할 정도로 전반적으로 좌익세가 강했고, 사건이 발생한 신벽리 역시 남로당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¹⁷²⁾으로 알려져 있다.

이철래, 김학수(1922년생), 김영현 등 세 명은 같은 마을에 살던 청년들로 좌익활동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¹⁷³⁾ 김학수의 경우 열여섯 살에 만주로 가 스물네 살 되던 해 귀국 하였는데, 만주에서 좌익사상을 갖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활동은 경찰정보원이었던 위○○에 의해 삼천포경찰에 전달되었으며, 1949년 5월경¹⁷⁴⁾에 경찰에 의해 세 명 모두 연행¹⁷⁵⁾되었다. 가족들은 경찰서에 연행된 피해자가 진주형무소로 이송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으나 이후 행적을 찾을 수 없었고¹⁷⁶⁾, 진주형무소 재소자 명단은 정부 측 기록으로 존재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고, 월북자 명단에서도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다. 전쟁이 끝난 후 김학수의 집으로 남양면사무소에서 구체적인 사망일자를 제시한 연락¹⁷⁷⁾이 온 것으로 보아 전쟁 발발 이후 진주형무소 수형인 집단처형 시 처형¹⁷⁸⁾된 것으로 판단된다.

석하여 본 사건에 대해 목격한 바를 진술했다. 신청인 김병우, 진술조서(2007. 8. 31.); 참고인 이○○, 진술서(2010. 2. 4.); 참고인 최○○, 진술서(2010. 2. 4.).

170) 현재 사천시는 1995년 5월 10일에 사천군과 삼천포읍이 행정적으로 통합된 결과이며, 한국전쟁 당시의 행정구역명은 사천군이였다.

171) 현 행정지명은 사천시 신벽동이다.

172) “(마을에) 사천 남로당 지부장이었던 김○○이 있었고, 남로당 거물급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남양면 노레마을에 김○○이 있던 마을은 좌익활동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 마을 이름이 원래 적리였는데, 6·25 전후로 선생도 하고 면서기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잡혀가 죽어서 마을 이름을 노레로 바꾸기도 했습니다.” 신청인 김학선, 진술조서(2010. 1. 14).

173) 신청인 김학선은 “사천군 남로당 지부장이었던 김○○ 등 6~7명이 우리 집에서 회의를 할 적에 내가 갱지에 한문으로 뭐가 적혀 있는 것을 보려고 하니까 김○○이 ‘뻑’하면서 못 보게 하려고 했던 기억이 난다.”고 하여 피해자인 형(김학수)이 좌익활동을 했음을 진술하고 있다. 신청인 김학선, 진술조서(2008. 7. 1).

174) 신청인 주장, 음력 4월경.

175) 연행 당일 행적은 김학수의 경우만 확인된다. 그는 짚을 사러 나갔다가 귀가한 후 밥을 먹다가 연행되었으며, 사건현장은 신청인(김학선)의 두 누이들이 목격하였다. 신청인 김학선, 진술조서(2009. 7. 1).

176) 진주형무소 수형자명부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 희생자의 수행사실 확인이 불가능하다.

177) “1950년 8월 12일자로 사망신고를 하라.”고 하였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3. 29.).

178) 진주형무소에는 한국전쟁 발발 이전에 약 1,000명의 재소자가 수용되어 있었는데, 한국전쟁이 터지자 일

나) 용현면 송지리 류하영 희생사건(다-9992호)

사건지역인 용현면 일대는 와룡산을 중심으로 좌우익 갈등이 심했다. 와룡산은 하동과 지리산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빨치산도 상당수 존재했으며, 총격전도 종종 발생하였다.¹⁷⁹⁾

학생들 사이에서도 좌우익 대립이 강하여, 진주 농림고등학교 학생이던 피해자 류하영은, 좌익활동을 권유하는 친구들을 피해 휴학을 하고 있었다.¹⁸⁰⁾ 부친인 류도선은 일제 시 민족주의자로 명망이 높았고, 과수원을 갖고 있었다.

1949년 늦여름 무렵, 와룡산 부근에 빨치산이 자주 출몰하자 류하영은 자기 집 과수원을 지키던 중 입산활동을 하고 있던 강○○¹⁸¹⁾ 등과 조우, 이들이 하룻밤 묵을 것을 요청하자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숙박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튿날 아침, 경찰에 신고하러 갔으나 세 시간 후 송지리 지서 경찰에 의해 총살되었다.¹⁸²⁾ 시신은 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

3) 거제시¹⁸³⁾ 사건

가) 일운면 구조라리 강정길 희생사건(다-5626호)

거제도는 일제강점기 활발하게 활동했던 독립운동세력이 해방 이후 대부분 좌익세력

반범죄 재소자들을 가석방한 후 7월 중순 경부터 후퇴(7월 27일) 직전인 7월 26일까지 좌익사범들에 대한 학살이 진행되었다. 당시 진주형무소 형무관으로 근무하였던 참고인 소○○는, “검찰 진주지청 산하 지역(진주, 산청, 하동, 의령, 진양, 고성, 사천, 삼천포)에서 잡혀 온 좌익사범들을 수용하였으며... 수용되어 있던 좌익사범과 보도연맹원들을 7월 중순 경 헌병들이 데리고 나갔다.”고 진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부산·경남지역 형무소재소자희생사건』(2009. 2. 18.), 85쪽.

17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4.).

180) “우리 형은 좌우익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좌익단체 활동에 동조 안 한다고 진주 남강 백사장에서 좌익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맞아 다리를 다쳤고, 그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괴롭히자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신청인 류기영, 진술조서(2008. 7. 1).

181) 용현면 송지리 평송마을 출신인 강○○은 당시 30세가량으로 면사무소 직원이었다. 평소 좌익활동을 하고 있던 강○○은 “어느 날 우익으로 추정되는 젊은 사람들이 면장실로 끌고 가 구타하는 사건이 발생한 후 와룡산으로 입산”하여 빨치산을 지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1. 14.).

182) 사건 당시 구장 직을 맡고 있었던 이웃 주민의 진술도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 “그 집 과수원에 초막이 있는데 피해자가 지키고 있다가 죽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용현면 출신 입산자인 강○○이 과수원에 찾아 왔을 때 하룻밤 재워준 것이 화근이었다고 합니다. (희생장소는) 과수원 근처 미역골 대밭이라고 얘기 들었습니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10. 1. 14.).

183) 거제는 1895년 고종 때 거제군이었으나, 일제 치하에서 용남군과 합군하여 통영군으로 개편되었다가 1953년 1월 1일에 통영군으로부터 분리되어 거제군이 되었다. 1995년 1월 1일에는 법률 4774호에 의해 장승포시와 거제군을 통합하여 거제시로 출범하였다. 해방 이후 거제의 인구는 10만 명가량이고, 행정상으로는 통영군에 속했으며, 1읍 9면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경제적인 상황은 40%가 농업, 60%가 수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나, 농업인구 중 30%는 귀속농지를, 50%는 부재지주의 농지를 소작하는 세농층이었으며, 수산업 역시 대부분이 타지방 기업가의 소유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어민들은 영세어민으로서 힘든 삶을 이어가고 있었다. 조선일보, 1949. 4. 26.

화하면서 한국전쟁 발발 이전까지 좌우익이 갈등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각하였다.

대표적인 독립운동가들이 거제인민위원회를 이끄는 등 해방 직후 거제도는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던 중, 한국 실정과 민심동향에 어두운 미군정의 정책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여 인민위원회 및 치안대 해산명령 공포, 하곡수집정책 등을 실시하면서 거제도민의 반발을 불러 일으켜 주민이 사망¹⁸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승만이 환국하자 해방정국에서 그동안 눌러 있던 우익세력은 1946년 8월 25일 독립촉성국민회의 거제지부 결성 등을 통해 우익세력 확대에 나서게 되는데, 이로 인해 좌우익은 점차 대립하게 되었다. '대청·서청·청충 등 6개단체 통합 추진체'로 발족한 대한청년단 산하 거제지부는 사사건건 좌익과 마찰을 빚었다.

남로당 불법화 조치 이후 가속화된 좌익의 투쟁은 1948년 소위 '2·7구국투쟁'¹⁸⁵⁾으로 표출되었으며, 이 투쟁을 계기로 남로당의 전술은 무장투쟁전술로 넘어가 이때부터 각 지방에는 '야산대'라는 무장 게릴라 소조가 생기게 되었고 거제지역도 예외는 아니었다.

거제지역 야산대는 주민을 대상으로 선전활동 등을 펼쳤는데, 정확한 규모는 파악되어 있지 않다. 다만 토벌이 한창 진행 중이던 1949년 4월 말경 "현존 폭도의 수는 50명에 불과"¹⁸⁶⁾하다는 토벌군 지휘관 김○○의 언급이 확인된다. 이들은 무장하지 않은 상태¹⁸⁷⁾였다.

한국 정부는 1949년 3월, 거제 전역에서 좌익세가 약화되지 않고, 이를 제압해야 한다는 우익계의 요청이 쇄도¹⁸⁸⁾하자 16연대와 호림부대를 투입, 야산대토벌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16연대는 국본 일반명령에 따라, 3여단 예하의 마산 15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1948년 10월 28일에 창설되었으며, 창설 당시 연대장은 박시창이었다. 16연대 사령부는 1949년 3월 5일, 김○○¹⁸⁹⁾ 소령을 부대장으로 하는 '거제지구 전투부대'를 토벌군으로

184) 거제군지편찬위원회, 『거제군지』, 1964, 321쪽. 이른바 '다공리 폭동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당시 좌익세력이 보리공출반대 시위를 주동하기는 하였으나, 정작 시위 현장에는 평범한 농민들만 모여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때 시위해산을 하던 경찰이 쏜 총에 맞아 김숙민(사건번호 다-2419호)이 사망하였는데, 그는 당일 아침까지도 자기 논을 돌보던 평범한 농민이었다.

185) 김남식은 이 투쟁을 '단독선거' 반대와 '인민공화국'수립 지지라는 두 가지 목적을 띤 것이었으며, 이후 '제주 4·3항쟁'과 '5·10선거 반대투쟁'으로 발전해 나갔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남식, 『남로당 연구』, 돌베개, 1984, 308쪽.

186) 조선일보, 1949. 4. 27.

187)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8. 4. 14.).

188) 당시 옥포에 사는 진명불상이라는 거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우익계 인사들이 이에 동참했다는 진술이 있다. 참고인 이○○, 통화보고서(2010. 5. 18.). 진명불상은 일제하에서 어업으로 재력을 형성한 인물로, 그의 아들인 진○○은 거제대한청년단 단장이었다. 진실화해위원회,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12. 9), 61쪽.

189) 김○○은 육사 2기 출신(군번 10234)으로, 1946년 12월 14일에 입대, 1949년 3월 1일에 소령으로 진급했고, 그 직후인 같은 해 3월 16일에 16연대로 전출되었다. 『장교입관순대장』, 『장교자력표』.

파견하였다. 부대이동은 비밀에 부쳐졌고, 16연대 각 대대에서 병력이 차출되어 토벌군이 꾸려졌다. 부대 규모는 최소 150명에서 최대 400명으로 추산되며, 의무대와 헌병대도 포함¹⁹⁰⁾되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장승포에 도착 후 거제 전역으로 흩어져 야산대 뿐만 아니라 야산대 협조 혐의자 색출에 나섰다. 한편, 1949년 2월 25일에 월남한 서북청년단원을 중심으로 북파를 목적으로 창설된 육본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는 창설되자마자 '거제파견대'라는 이름으로 거제에 파견되어 북파훈련을 목적으로 토벌작전을 벌였다. 규모는 최소 수십 명에서 최대 100여 명¹⁹¹⁾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부대장은 신의주 출신으로 서북청년단원이었던 강○○으로 확인¹⁹²⁾되었다.

일문면 구조라리 출신인 강정길은 일제시대 때 서울에서 공부하다가 해방이 되자 고향으로 내려왔으며, 나중에는 부산으로 가 학교를 다닌 바 있다. 1949년 봄 무렵, 입산하여 야산대 활동을 하고 있던 강정길은 마을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에 의해 잡혀 바로 총살되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가까이서 목격, 또는 전해들은 참고인의 진술이다.

어느 날 (강정길이) 배가 너무 고파 망치 마을(구조라리 인근)에 있는 사돈집에 밥을 얻어 먹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이 신고하는 바람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인들에 의해 잡혔습니다. ...마을 심상소학교 옆에 강정길 집안의 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총살당했다고 합니다. 마을에 대한청년단이 있었는데, 그들 중 본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처형이 밤에 이루어져서 대부분의 주민들은 몰랐을 겁니다.¹⁹³⁾

강정길의 시신은 바로 수습되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가 토벌군이 철수한 후에 가족에 의해 수습되어 화장¹⁹⁴⁾되었다.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구조라리마을에서는 야산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전 부락민을 상대로 한 토벌군의 고문과 구타, 심문, 그리고 주민 6명에

190) 당시 16연대 부대원으로 거제토벌에 참여한 바 있는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8. 3. 7.) ·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4. 17.).

191) 당시 동아일보는 '거제도 반군 소탕, 호림부대 환영리 개선'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난 2월 26일 거제도와 경북 일대에 파견되었던 국방부 2국 소속 호림부대(서청출신의 대한청년단원) 557명은 다대한 공격을 남기고 25일 개선하여 이날 상오 국무총리의 사열을 받고 환영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동아일보』, 1949. 5. 26.

192) "우리 호림부대를 책임 맡은 사람이 한○○(주 : 한○○의 오기)입니다. 그 한○○이가 현역 군인입니다. 우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조직을 하는데 4개 부대를 조직했어요. 문 : 4개 부대면 4개 중대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부대 이름은 뭐니까? 답 : 제1, 2, 3, 5 부대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제3부대 책임자입니다. 제2부대는 이 사람 아버지가 책임자고 제1부대는 청도에 있었고 제5부대는 거제도에 있었는데 책임자는 강○○입니다."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이택원』(HA01847).

193) 참고인 이○○, 통화보고서(2010. 5. 18.).

194) "결혼도 안 한 사람이라 따로 묘를 만들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묘가 없습니다." 참고인 이○○, 통화보고서(2010. 5. 18.).

대한 공개처형¹⁹⁵⁾이 있었다.

나. 한국전쟁 발발 이후

1) 산청군 사건

가) 오부면 부곡리·대현리 주민 집단희생사건

○ 부곡리 홍창곤·홍진화 희생사건(다-374·649호)

사건 당시 오부면 부곡리 중촌부락은 100여 호의 마을이었는데, 1951년 정월 초에 이미 토벌대에 의해 대부분의 가옥이 소각되고 주민들이 소개를 당한 상태였다. 사건 당일, 마을에는 미처 마을을 빠져나가지 못한 홍창곤(사건당시 72세), 홍진화(67세) 등 노인과 어린이, 부녀자 등이 남아 있었다.¹⁹⁶⁾

1951년 3월 15일에 마을에 재차 진입한 토벌대는 마을에 남아 있던 홍창곤, 홍진화, 김종분 등 3명을 끌고 갔다. 김종분¹⁹⁷⁾은 아이를 업고 있었다.

우리 집은 갈 곳이 없고, 아버지(홍진화)가 나이가 많아서 그냥 집에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곡식을 쌓아 놓은 곳에 국군이 불을 질렀지만 양식을 하기 위해 마을에 있는 노천 방앗간으로 갔습니다. 방아를 찧는데 총소리가 나서 본인과 동생은 집으로 가서 집 뒤 골짜기에 숨어 있었고, 아버지와 여동생은 옆 골짜기 감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 노인 혼자 사는 집으로 갔습니다. 국군이 마을로 오면서 홍중수(사건번호 다-649호 신청인)의 할아버지(홍창곤)와 어머니(김종분)를 잡아 오다가 아버지가 숨어 있던 집으로 와서 안에 있는 사람 나오라고 해서 그 집에 있던 병자였던 노인은 남고 아버지와 여동생(3~4세)이 국군에게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여동생에게 “너는 따라오지 마라.”고 해서 여동생은 남게 되었습니다.¹⁹⁸⁾

토벌대는 이들 3명을 끌고 거창군 신원면 방향으로 가던 중 오부면 중촌리 오휴부락 오리밭골에서 걸음이 느리다는 이유로 부대장의 지시에 의해 홍창곤, 홍진화를 사살하였다.¹⁹⁹⁾

195) 진실화해위원회, 『거제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결정서(2008. 12. 9)』, 17~20쪽.

196) “마을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남아 있으면 빨갱이라고 하면서 군인들이 잡아다가 학살해서 다 피란 갔습니다. …당시 마을 젊은이들은 군인들을 피해 새벽이 되면 산으로 도망갔다가 군인들이 철수한 밤이 되면 집으로 내려오곤 했습니다.” 신청인 홍중수, 진술조서(2008. 7. 20.). 본 사건 당일 산으로 피신해 있던 마을주민 30여 명은 식량을 가지러 마을로 들어 왔다가 토벌군의 총격을 목격하였다. 참고인 심○○, 진술조서(2009. 5. 18).

197) 다-649호 신청인의 모친(작고).

198) 신청인 홍상택, 진술조서(2008. 9. 11).

그리고 김종분은 거창의 신원국민학교까지 끌려갔다가 군인 한 명이 “눈치가 그렇게 없냐, 빨리 피하라”는 말을 듣고 군인들이 집합하느라고 어수선할 때 나무더미 밑에 숨어 있다가 혼자 산을 넘어 새벽에 마을로 되돌아왔다.²⁰⁰⁾ 김종분에 의해 두 사람의 사망소식이 마을에 전해지고, 두 사람의 시신은 다음날 마을주민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공식기록에 따르면 사건발생일인 1951년 3월 15일을 전후하여 11사단 9연대 1대대 1중대와 2중대가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덕산을 주둔지로 하여 오부면 대현리 등 산청 일대에서 빨치산과 교전을 펼쳤다.²⁰¹⁾ 따라서 이 사건의 가해주체는 11사단 9연대 1대대로 확인되는데,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을에 불을 지를 때 주민들에게 소개령을 내렸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와서는 불만 지르고 그렇게 신원면 쪽으로 가 버렸고, 나중에 홍종수씨 조부가 돌아가신 후에는 경찰들이 와서 사람들을 다 나가 살라고 그랬어요. 정월달에 불지를 때 대부분의 집들이 다 탔는데, 홍종수씨 조부가 돌아가실 때는 완전히 다 타버렸어요.²⁰²⁾

이 시기 거창, 산청, 함양군 일대에서 이루어진 부락소개와 가옥소각은 “정식 소개명령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이는 사건발생 당시에 실시된 군 자체조사에서도 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²⁰³⁾

이 사건은 토벌대가 소개작전 중에 노인을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직접적인 살해 이유는 걸음이 느리다는 것이었다. 이 사건의 희생자는 홍창곤, 홍진화 등 두 명이다.

○ 대현리 양경순 등 10명 집단희생사건(다-7394호)

사건 당시 총 180여 호에 이르는 대현마을은 큰 마을과 작은 마을로 나뉘어져 있었고,

199) 김종분(작고) “두 분은 연세가 많아서 군인들을 따라 잘 견지를 못하니까 부대장이 죽이라고 하여 군인들이 총으로 쏘 죽였습니다.” 신청인 홍종수, 진술조서(2008. 7. 20.).

200) 신청인 홍종수, 진술조서(2008. 7. 20.).

201) 일자별 작전내용은 다음과 같다. •1951년 3월 14일 : 1대대 1중대가 902.4 고지 수색 중 교전. •1951년 3월 16일 : 1중대 덕산 출발 완리동 산수 수색 경유 중 대현동에서 교전 후 645.7 고지 경유하여 덕산 복귀. 2중대 완리 출발 마근담 수색 경유 후 545.7 고지에서 교전. •1951년 3월 18일 : 1중대 덕산 출발, 장당동 수색 중 교전. 적은 지리산 방향으로 도주. 2중대 완리 출발, CQ 9010에서 교전.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59권, 1987, 428~432쪽.

202)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9. 5. 18).

203) 거창사건을 자체 조사한 문서에도 “정식소개명령은 무함.”이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 11사단 9연대 3대대장 전월봉, 『신원면 지방 적색분자사살조사 보고지건』(1951. 3. 9.). 이로써 당시 산청·함양·거창 일대에서 벌어진 11사단 9연대 작전 중 소개행위와 가옥 소각, 그리고 이로 인한 주민 사살 등은 주민들에 대한 소개령이 존재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이루어진 불법적인 행위였음이 공식문서로 확인된다. 육군 특무부대,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14쪽.

1951년 4월경에 이르러서야 치안이 확보될 정도로 좌익세가 강했다.²⁰⁴⁾

사건발생 10여 일 전인 1951년 2월 초순경, 마을에 진입한 11사단 9연대는 군경가족을 따로 구분한 후 연설만 하고 간 적이 있다. 신원면 대현리를 착각하여 사건지역에 진입한 군은 무전을 받고 퇴각한 것이었다.

사건 당일인 1951년 2월 12일은 11사단 9연대의 합동작전이 전개되던 시기로 소위 ‘산청·함양·거창사건’²⁰⁵⁾이 발생한 직후²⁰⁶⁾였는데, 토벌군은 마을에 들어오자마자 모든 집에 불을 질렀고, 닥치는 대로 사람과 짐승을 모두 사살하였다.²⁰⁷⁾

(한 장소에서 같이 총살되신 건가요?) 아니요. 마을 이곳 저곳에 하나씩 따로 떨어져서 죽어 있었다고 했어요. 모아놓고 죽인 게 아니고, 마을 곳곳에서 보이는 대로 죽인 겁니다.²⁰⁸⁾

마을에 남아 있던 주민들은 대부분 노인과 부녀자, 어린아이 등이었는데, 군은 이들이 눈에 띄면 무조건 사살하였다. 신청인들은 사건 당시 마을에 노인들이 남아 있었던 이유는 빨치산 협조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희생된 조모님은 당시 62세였다. 마을에서 젊은 사람들은 마을을 떠나 피란을 갔고 나이 많은 사람들은 집을 지키고 있었는데 당시 조모님이 집을 지킨 이유는 조부님이 차황면에서 일꾼을 여러 명 데리고 나락을 옮기려고 했기 때문이다. 집에 있던 나락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 일꾼들을 데리러 갔는데 조모님은 그 일꾼들 밥을 해주기 위해 남아 있었다.²⁰⁹⁾

우리는 생초면 내곡리로 피란 나가 있었습니다. 모친, 형님, 누나, 큰 어머니, 사촌들 모두 다 나가 있었고 할머니만 집에 남아 있었어요. 동짓달 11일에 우리 백부님(한청 소속)이 빨갱이한테 끌려 가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돌아올까 싶어서 할머니는 피란 가지 않고 집에 계시다가 그런 일을 당한 겁니다.²¹⁰⁾

이처럼 “일꾼들 밥을 해주기 위해서”, “빨치산에게 끌려간 아들을 집에서 기다리던” 노인

204) 참고인 송○○, 진술조서(2009. 5. 19.).

205) 11사단 9연대 합동작전은 오○○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연대작명 5호·6호·7호·8호에 따라 2월 5일부터 2월 11일까지 산청·함양·거창 등 3개 군에 이르는 지역에서 주민을 대량 학살하였다.

206) 신원면까지 군인들의 집을 지고 갔던 마을의 젊은이들의 진술에 의해 신원면 사건이 대현리에 알려졌다으며, 대현리 주민들은 신원면 사건을 일으킨 부대와 동일한 부대로 인지하고 있다. 참고인 송○○, 진술조서(2009. 5. 19.).

207) 신청인 차승현, 통화보고서(2008. 8. 6.).

208) 참고인 권○○, 진술조서(2009. 5. 19.).

209) 신청인 차승현, 통화보고서(2008. 8. 6.).

210) 참고인 권○○, 진술조서(2009. 5. 19.).

제 5 권

들까지 사살되었는데, 토벌군은 마을에 계속 남아 있던 주민을 보이는 대로 무차별 사살하였고²¹¹⁾, 사건이 종료된 후 토벌군은 다시 신원면 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²¹²⁾

이 사건은 연대작명 부록5호(1951년 2월 2일), 즉 “적의 손에 있는 사람은 전원 총살하라. 적은 주둔지 및(급) 각지 촌락에서 귀환하지 않고 암암리에 행동을 감행하고 있으니 차를 용허치 못할 것임”²¹³⁾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소개 후 남아 있던 주민을 적성주민 또는 통비분자로 간주하여 사살한 사건이다. 다음은 당시 토벌대원으로 작전에 투입되었던 사병의 진술이다.

고참 군인들로부터 주민들이 소개하라고 하는데 “주민들이 소개를 안 한다. 빨치산과 내 통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이들이 마을주민을 죽였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²¹⁴⁾

이들 토벌대는 그때까지 집을 비우지 않고 남아 있던 노약자와 부녀자 등을 무조건 사살하였는데, 이는 산간 주민 전체를 잠재적인 빨치산 협조자로 전제한 일명 ‘견벽청야작전’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군인을 보고 무서워서 다들 산으로 도망갔어요. ...그때 거창 쪽에서는 경찰이 들어오고 산청 쪽에서는 군인과 경찰이 함께 들어왔는데, 모두들 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보고 빨치산이라고 생각한 건지 마을로 총을 쏘면서 들어왔던 거예요. 그 총을 피하려고 주민들이 모두 산으로 도망갔는데 군경이 산으로도 쫓아왔어요.²¹⁵⁾

이 사건으로 희생된 주민은 양경순(사건 당시 68세)²¹⁶⁾, 이숙이(74세)²¹⁷⁾, 최완준(39세)²¹⁸⁾, 김옥숙(73세)²¹⁹⁾, 최낙서(68세), 박매기댁(60세), 최낙서의 외손자(4세)와 외손녀

211) 『한국전쟁사료』제59권에는 이 사건 지역이 아닌 산청군 내 다른 지역에 대한 언급이 나타나고 있다. “2월 12일 제2대대 5, 6중대는 4시에 덕산을 출발 죽전리 흥계리 부근 일대를 수색 중 잔비 완무(완전무장) 70, 비무(비무장) 80을 발견, 2월 13일 08:00 - 15:00까지 교전. 적은 분산도주함. 전과 사살 18, 생포 4, 적 부상 24, 장총 6, M-1 1, 실탄 300, 아군 피해 경상 3”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59권, 1987, 366쪽.

212) 참고인 문○○, 진술조서(2009. 5. 18.).

213) 육군특무부대, 『거창사건 관련 자료』, 1951, 97쪽.

214) 참고인 김○○, 진술조서(2008. 9. 22.). 참고인은 사건 당시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5중대원이었다.

215) 참고인 심○○, 진술조서(2009. 5. 18.).

216)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69년 3월 20일이다.

217)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와 족보 상 사망일자가 일치(1951년 1월 7일)한다.

218)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1년 2월 3일이다.

219)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27년 9월 10일이다. 가명은 김숙점이다. 가족들은 피란에서 돌아 온 후 총에 맞은 시신을 목격하였으며, 시신을 수습하여 뒷산에 무덤을 만들었다. 정월 초엿새에 제사를 지내고 있

(7세), 손현래의 누나(24세), 홍우곤(68세)²²⁰⁾ 등 10명이다.

나) 금서면 매촌리·주상리 민대식·서금득·서판준 희생사건

○ 매촌리 민대식 희생사건(다-4412호)

희생자 민대식은 농사를 짓고 있던 인물로 한국전쟁이 발발한 후 인민군이 산청에 진주하자 인민군에게 협조하라는 권유를 받고 자위대원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산청초등학교 출신으로 산청읍에 있는 친구들과 인민군을 도와 일을 하였는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민군이 퇴각하자 부역행위로 처벌받을 것을 우려하여 친척집에 피신하였다. 그 후 금서면지서로부터 자수하면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귀가하였으나, 1950년 10월 25일²²¹⁾, 매촌리 덕촌마을 위 안개골 수로에서 머리와 배 등에 총을 여러 발 맞은 시체로 발견되었다. 시신은 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

신청인은 당시 경찰이 금품을 요구했으며²²²⁾, 이를 가정형편을 들어 거절하자 금서지서의 유○○ 순경이 끌고 가 총살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유○○은 이를 부인하고 있다.²²³⁾ 참고인 이○○²²⁴⁾는 민대식을 총살시킨 순경이 서 모 순경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다.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가입, 의용군 등에 불가피하게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해 정부는 소위 자수서, 또는 자술서를 쓰게 했다. 경찰 등은 이들을 대부분 살려주었다고 하나, 사실은 자의적인 심사를 통해 적법절차 없이 즉결처형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

당시 경찰에 근무했던 대부분의 참고인들은, 수복 후 인민군 치하에서의 부역혐의자들

다. 마을주민들이 직접 시신을 목격하였다. 참고인 권○○, 진술조서(2009. 5. 19).

220) 제적등본에는 사망일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출생일자는 1883년 1월 12일이다.

221) 신청인은 희생자의 사망시기를 1951년 10월 초순경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제적등본 상 사망일도 1951년 10월 25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족보 확인 결과 1950년이 정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2) “경찰이 돈을 요구했는데 당시 우리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당시는 먹을 것도 없었는데 돈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구해오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청인 민성식, 진술조서(2007. 6. 12.).

223) 참고인은 “그런 일 없다.”며 민대식 살해혐의를 강하게 부인하였다. 참고인 유○○, 면담보고서(2009. 12. 3.).

224) 참고인은 희생자 민대식의 산청초등학교 선배이자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로, 전쟁 전에 금서면 사무소에서 급사를 했기 때문에 바로 옆에 소재하고 있던 금서지서 경찰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당시 금서지서에 지서장 임 경위, 서 순경, 유○○, 최○○, 안○○ 등 5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던 것으로 진술하였다. 그는 이들 경찰들과 친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이 금서면에 들어온 날짜와 행색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 “1950년 8월 16일(음), 추석 다음날 금서지서 경찰들이 도보로 금서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서가 있던 특리 쪽으로 걸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복 입고 철모 쓰고, 전부 미군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갑다고 인사했습니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10. 22.).

을 무조건 죽이지 않고 “대부분 자수시켜 살려주었다.”²²⁵⁾, “자수서(또는 자술서)를 받고 의용경찰이나 특공대로 썼다.”²²⁶⁾고 주장하고 있으며, 입산자로서 일부 생존한 경우도 있으나²²⁷⁾,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서도 혐의자가 처형되는 경우가 있었다.²²⁸⁾ 당시 부역자처리는 군과 경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즉 수복지구에 진입한 군은 특무부대나 정보부대 등을 통해 부역자 색출과 처형을 하였으며, 경찰은 자체적으로 부역자 명부를 작성, 이를 토대로 부역혐의자를 처형하였다.

당시 부역혐의자들에 대해서는 경찰 측 참고인도 가혹성을 지적할 정도로 심한 고문과 구타가 이어졌다.²²⁹⁾

사건의 가해주체인 금서지서는 1950년 7월 31일 철수 후 2개월쯤 뒤인 1950년 9월 27일에 다시 복원되었다. 원래 특리에 있었던 지서는 빨치산들이 다 불태워 버려서 수복 이후에는 강정산에 있는 제실에 임시지서를 만들어 놓고 근무하였다. 지서의 임무는 ‘공비출몰 저지’²³⁰⁾ 뿐만 아니라 부역자 색출과 처리도 병행되었다. 공비출몰 저지를 위해 지서에서는 주민 중에서 특공대원을 충원하여 이들에게 99식 개조 총을 지급하였고, 부역자 색출을 위해서는 한청, 민보단 등이 동원되기도 하였다.

금서면 매촌리에서 수복 이후 부역자로 처형된 사람은 민대식 한 사람이다.

225)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9. 11. 19.); 참고인 민○○, 진술녹취록(2009. 12. 1.);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9. 12. 2.);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10. 1. 11.). 사천 수복 직후 산청경찰은 혼란해진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모든 피란민을 사천 공군기지에 모아 놓고 다음과 같은 연설을 하였다. “...북괴 공산군의 잔악성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의용군으로, 치안대원으로 보국대로 각종 명령에 따라 흉측한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던 사실을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잘 알고 자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체 그 죄상을 묻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동포애로 관용을 베풀라는 특별지시가 내려졌으니 가족 중에 인민군에 부역한 사람, 또는 국군과 대항 중에 있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무기를 가지고 자수하여 생명을 구하십시오.” 산청경찰서, 『지리산의 포성(산청지역경찰전사)』, 1989, 49~50쪽.

226) 참고인 강○○, 통화보고서(2009. 11. 19.).

227) 참고인 민○○, 면담보고서(2010. 1. 14.). 민○○은 금서면 신아리 출신으로 인민군 진주 시 부역행위를 하고 이후 입산하여 연락병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경찰에 자수하자 ‘강삼수 부대’에 배속되어 빨치산토벌에 참가하였다.

228) 민○○은 부역혐의자 처형에 대해 “무조건 죽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경찰이 보기에 뭔가 색다르게 보였기 때문에 죽였을 것이다.”라고 진술함으로써 부역혐의자를 일정 기준에 의해 경찰서가 자체적으로 처형하는 경우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있다. 참고인 민○○, 진술녹취록(2009. 12. 1.).

229) “여자들 자궁에 막대기를 집어넣고... 빨갱이 마누라라고 잡아다가... 잔인한 짓을 했지... 남자들 거꾸로 매달고 고춧가루 붓고” 참고인 민○○, 진술녹취록(2009. 12. 1.). “자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는 경우 심하게 다룬 경우도 있었다.” 참고인 안○○, 면담보고서(2009. 12. 2.).

230) 당시 금서지서 특공대원이었던 참고인 이○○의 진술조서(2009. 10. 22.).

○ 주상리 서금득·서판준 형제 희생사건(다-9240·9241호)

금서면 오봉리²³¹⁾는 깊은 산골에 위치해 있어서 밤에는 빨치산 출현이 잦고, 평소에는 경찰의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었다. 오봉리마을은 30~40호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민은 약 100여 명가량이었다.

1951년 2월 7일, 당시 11사단 9연대는 지리산 자락인 거창, 산청, 함양군 등에서 공비토벌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9연대 예하 2대대는 오봉리에 들어와 총격을 가한 뒤, 마을에 불을 지르며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이들은 2월 5일과 6일 이틀간 산청군 내대리, 덕산, 홍계리 일대에서의 토벌작전을 끝낸 후 연대 합동작전에 참가하기 위해 왕등재를 넘고 고동재를 넘어 화림사 쪽으로 진출하는 길이었다.²³²⁾ 이 과정에 오봉리를 거치게 되면서 당시 전개되고 있던 3대대의 가현, 방곡, 점촌을 잇는 9연대 토벌작전²³³⁾에 맞추어 이들 지역의 후벽을 구축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다음은 당시 상황을 목격한 참고인의 진술이다.

전쟁 발발 후 겨울이었는데, 눈이 엄청 왔던 날 아침 무렵, 군인들이 마을 건너편 골짜기에서 마을을 향해 30분 이상 총을 쏘아댔습니다. 총상을 입은 마을사람들이 별집을 건드려 아수라장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후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질렀습니다. 버선발로 집을 뛰쳐나와 건너 마을 모래골로 도망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포대 아이들 7~8명이 어른도 없이 뛰어 도망갔습니다.²³⁴⁾

2대대는 이때 마을주민들을 금서면 주상리로 강제 소개시켜 서금득과 서판준의 가족이 주상리의 빈집에서 살게 되었다. 소개 후 6개월쯤이 경과한 1951년 8월경, 두 사람은 오봉리 거주 시 빨치산에게 밥을 해주었다는 이유²³⁵⁾로 금서면 화계지서 경찰 두 명에 의해 지사로 끌려가 한 달가량 고문 등을 받다가 산청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서금득과 서판준은 이송되고 얼마 안 있어 산청경찰서에서 끌려 나간 후 행방불명되었는데, 끌려 나간

231) 오봉리는 사건 당시 마을이 파괴된 후 현재 펜션 촌으로 탈바꿈한 상태이다. 따라서 당시의 마을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건을 증언해줄 만한 주민은 찾을 수 없었다.

232)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59권, 1987, 365쪽.

233) 이미 알려진 '거창사건'을 포함, 인근 지역인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벌어진 11사단 9연대 3대대의 민간인 집단학살사건을 가리킨다.

234) 참고인 서○○, 통화보고서(2010. 3. 9.). 소개과정에서 참고인의 돌박이 동생은 동상에 걸려 후유증으로 몇 개월 뒤 사망하였다.

235) 화계리 출신 입산자 조 모 씨가 잡혀서 취조받던 중 오봉리에서 서금득, 서판준으로부터 밥을 얻어먹었다는 진술을 한 것이 이들 형제의 검거 이유가 되었다. 참고인 서○○, 통화보고서(2010. 3. 9.).

날짜는 서판준의 경우 9월 10일(음력 8월 10일), 서금득은 10월 11일(음력 9월 11일)이었다. 서금득의 경우, 도 평의원 박 모씨가 구명운동을 하고 있어서 곧 풀려날 것으로 기대하였으나, 토벌 중 전사한 경찰 시체가 산청경찰서에 도착한 바로 다음날 밖으로 끌려 나갔는데²³⁶⁾, 당시 함양군이나 산청군 삼장면 방향으로 끌려가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다. 행형기록과 월북자 명단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미루어 미상의 장소에서 경찰에 의해 처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단성면 호리·당산리 한윤생·문홍조 희생사건

○ 호리 한윤생 희생사건(다-7515호)

사건이 발생한 산청군 단성면 호리마을 제호부락은 약 45호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지리적 특성상 전쟁 발발 이후는 물론 전쟁 전에도 자주 빨치산이 출현하였고, 마을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협조할 수밖에 없었다.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 와 양식을 털어가고 청년들을 끌고 갔다. 그들은 마을사람들을 모아 놓고 “우리 편이 되면 잘살 수 있다.”며 연설하곤 하였다. 선전 빼라도 마을에 많이 날아다녔다. 빨갱이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받았다. 쌀 뿐만 아니라 반찬, 장, 된장 등 다 갖고 갔다. 나중에는 들판에 있는 나락까지 다 털어 갔다. 마을청년들이 빨치산에 의해 많이 끌려갔는데, (빨치산에 의해) 마지못해 끌려갔던 사람도 (산에서 도망쳐 내려온 후에는) 군에 의해 다 죽었다.²³⁷⁾

당시에 산에 있던 빨갱이들이 마을로 내려오면 협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밤에는 빨갱이들이 내려오곤 했는데, 빨갱이들이 내려 왔을 때 협조 안 하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빨갱이들은 마을에 내려왔을 때 한 시간 정도 있다가 금방 산으로 갔습니다. ²³⁸⁾

토벌군은 수복과정에서 마을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빨치산 협조자를 색출하는 작전을 여러 번 펼쳤던 것으로 확인된다.²³⁹⁾

그런데 인민군 진주 시 적극적으로 부역한 3명은 후퇴하는 인민군을 따라갔기 때문에

236) 참고인 서○○, 통화보고서(2010. 3. 9.).

237)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 10. 21.).

238) 신청인 한명우, 진술조서(2008. 4. 23.).

239) “군이 백곡초등학교 운동장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갱이 짓 한 사람, 산에 갔다 온 사람들 나오라’며 연설하였고, 해당자들을 끌고 간 후 다 죽였다. 우리 오빠도 빨치산이 내려와 양식지고 가자고 해서 끌려갔다가 도망쳐 나왔는데 입산자로 찍혀 진주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살해되었다.” 참고인 손○○○, 진술조서(2009. 10. 21.).

이미 마을에는 없었고, 대부분의 젊은이들이 빨치산에 의해 거의 다 끌려간 상태였다. 1950년 12월경²⁴⁰⁾, 11사단 9연대가 공격태세로 마을로 진입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부역자 수색작전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한운생이 빨치산에 협조²⁴¹⁾했다는 이유로 군에 의해 끌려간 후 행방불명되었다.

○ 당산리 문홍조 희생사건(다-8145호)

1950년 9월경, 단성면 당산리 328번지 후동부락에 살던 문홍조(34세)가 ‘빨갱이 앞잡이’라는 이유²⁴²⁾로 단성지서에 끌려가 고문당한 후 사망하였다. 피해자는 당시 도민증을 만들기 위해 단성면 사무소를 방문하였으나 면사무소 입구에서 경찰에게 잡혀 단성지서로 끌려갔으며, 당일 오후에 단성지서에 잡혀있던 다른 11명의 젊은이와 함께 고문으로 사망한 후 인근에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시신은 사건이 발생한 후 100일 정도 지나 수습되었다. 가족이 시신수습을 하러 갔을 때 목격한 바에 따르면, 당시 사건현장은 한 구덩이에 12명이 매장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피해자 외 다른 피살자들의 신상에 대해서는 인근 지역 출신인 것으로 추정될 뿐, 정확한 피살동기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여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피해자의 시신도 온전한 상태는 아니었으나, 피해자는 “집에서 나갈 때 입었던 잠바를 입고 있었고, 다른 사람에 비해 키가 훨씬 컸기 때문에”²⁴³⁾ 식별이 가능하여 현장에서 수습될 수 있었다.

라) 삼장면 대하리·홍계리 조주환 등 희생사건

○ 대하리 피란민 일가족 희생사건(다-8735호)

신청인 조재현의 가족은 삼장면 대하리 20여 가구로 이루어진 보안마을에 거주하던 중 1950년 초겨울²⁴⁴⁾에 “국군이 마을을 수복하면 인민군 치하에 있던 마을사람들을 모두 죽

240) 제적등본 상 사망일자는 1950년 9월 10일이나, 신청인의 가족은 음력 11월로 기억하고 있음.

241) “당시 마을에 젊은 사람은 형님밖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내려온 빨갱이들은 식량이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금방 산으로 갔습니다. 그때 우리 형님을 데리고 마을을 다니면서 짐을 지게 한 것입니다.” 신청인 한명우, 진술조서(2008. 4. 23.).

242) 신청인 문도주, 진술조서(2008. 9. 11).

243) 신청인 문도주, 진술조서(2008. 9. 11).

244) 참고인 조○○의 진술에 따르면 마을주민들의 피란 입산 시기는 수복 직후인 9월 말경이었다. 조○○는 신청인 조재현의 친척으로 같은 마을에 살았는데, 심부름을 하던 중 지리산 쪽으로 사람들이 떼를 지어 올라오면서 “군인들이 공격해 오니까 살고 싶으면 올라가자.”고 해서 혼자 입산하게 되었다. 그는 부락 사람들이 전부 지리산으로 올라 간 것으로 진술하였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10. 22.).

인다.”²⁴⁵⁾는 마을사람들의 말을 듣고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다. 군경의 토벌작전이 본격화 되자 미수복 지역의 주민들은 군경이 빨치산 영향권에 있는 주민들, 특히 청장년들을 총살한다는 소문이 퍼져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이불까지 짚어진 채로 야산으로 피란을 다닌 경우가 많았다. 특히 주민들은 빨치산 유격지구로 몰려들었는데, 그 이유는 무차별적으로 벌어지는 토벌작전에 대한 공포감과 이를 이용한 빨치산의 선전, 즉 ‘군인이 오면 다 죽는다. 우리를 따라 오면 산다.’는 말이 주효했기 때문이다. 인근 마을인 평촌부락민들도 “그냥 있으면 죽을 것 같아”²⁴⁶⁾ 지리산으로 피란을 갔는데 그 규모는 수십 명에 이르렀으며,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 단위의 피란민도 상당수 있었다. 당시 대하리 일대는 인민군과 국군의 전쟁터였는데, 국군은 1951년 2월 4일(음력 선달그믐)이 돼서야 덕산에 진주²⁴⁷⁾할 수 있을 정도로 인민군의 세력이 더 강했으며, 대하리 일대는 좌익의 영향이 강한 지역이었다.

신청인의 가족은 피란 초창기에 마을 근처인 삼장면 일대 지리산 자락에 있다가 씨리봉, 중산리 여내골 칼바위 등을 전전하며 피란생활을 계속하였다. 인민군은 지리산에 피란 중이던 주민들에게 “내려가면 죽는다.”고 해서 못 내려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1951년 초겨울 무렵, 중산리 여내골 칼바위에 집을 지어 살고 있던 조재현의 가족은 동계토벌작전을 실시하던 백야사 토벌군에 의해 잡히게 되었다.²⁴⁸⁾ 이때 신청인의 조부 조주환(55세)은 군의 심문 도중 구타로 사망하였으며, 항의하던 작은외숙모 강월선과 품에 안겨 있던 아들 조인현(1세)이 군의 총에 맞아 사망하였다.²⁴⁹⁾

토벌군은 통상 나이와 행색 등으로 이들이 빨치산이 아닌 가족 단위의 피란민임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살하는 경우가 빈번했다.

사건발생시기로 판단되는 시기에 백야사 예하 수도사단의 지리산 토벌에 동행했던 특공대원의 진술과 지리산에서 피란민 생활을 하였던 신청인 측 참고인의 진술은 이를 입증하고 있다.

245) 신청인 조재현, 진술조서(2008. 7. 2.).

246)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10. 22.).

247)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9. 10. 22.).

248) 참고인 조○○는 1951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으나 날짜는 정확하지 않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10. 22.).

249) 신청인은 가족이 두 군데로 나뉘어 도망하였기 때문에 자신은 현장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사건현장에 있었던 마을주민 정영환이 전해주어 알게 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할머니와 큰외숙모, 사촌남동생 등이 있어 사건을 목격하였으나, 이들 세 명은 모두 광주포로수용소에서 병사하였다. 신청인 조재현, 진술조서(2008. 7. 2.).

1951년 가을에서 초겨울쯤 수도사단이 단성에서 중산리로 토벌 나갈 때 우리 특공대원 중 3명이 같이 갔는데, 우리는 주로 지리 안내역을 맡았다.

토벌 시 젊은 남자들은 없고 피란민으로 보이는 어린아이와 여자들, 노인들만 있었다. 군인들이 이들을 발견하여 이들이 갖고 있던 고추, 파, 소금 등은 눈발 위에 다 버려 버리고, 쌀과 소고기는 빼앗아 먹어 버리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나이 든 할아버지를 몽둥이로 구타하는 장면도 목격하였다. ... 피란민들은 빨치산이 “검둥개가 오면 주민들 다 죽는다.”고 하여 지리산에 들어갔는데, 군인들이 이들을 다 빨치산으로 몰아 토벌했다.²⁵⁰⁾

제가 지리산에서 보니까 국군이 토벌 들어오면서 양민인 것을 뻔히 알면서도 수류탄을 던져 죽게 했습니다. 그런 일은 흔했습니다. ...굴속에 있는 피란민들에게 나오라고 해서 안 나오면 수류탄을 던져 죽이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우리 마을을 몽땅 불태웠습니다.²⁵¹⁾

토벌과정에서 잡힌 신청인을 포함한 가족은 시천면 신천리 신천국민학교에 수용되었는데, 수용 인원은 수백 명이 넘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군 트럭에 실려 피란민들이 광주 포로수용소²⁵²⁾로 이송되었다. 이곳에서 선별과정을 거쳐 신청인은 고아원으로 보내졌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대로 수용소에 있다가 조모 권선갑, 큰외숙모 김봉순, 사촌 조기현(6세)이 장질부사로 사망하였다.²⁵³⁾

다른 지역에서는 토벌과정에서 잡힌 피란민 가족들이 모두 수용소로 이송되지도 않았을 뿐더러 젓먹이를 포함한 일가족이 경찰서나 지서에서 즉결처형되었던 경우도 있었다.²⁵⁴⁾

250)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09. 10. 22.). 참고인 이○○는 전쟁 이전부터 산청군 시천면 외공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전쟁 당시 18세의 나이로 산청경찰서 특공대원으로 지리산토벌을 주로 다녔는데, 전쟁 시 수도사단의 지리산동계토벌작전을 지원한 바 있다. 그는 특공대의 임무가 토벌군에게 지리를 안내하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251)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10. 22.).

252) 광주포로수용소는 열악한 환경과 민간인 다수 수용 등으로 당시에도 사회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이를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이 1952년 12월경에 수용소를 방문하였는데, 어린아이들까지 수용되어 있는 현장을 목격한 후 해체를 지시하였다. 이승만의 지시가 떨어지자마자 국방부 법무관실, 육군본부 정보처, 헌병사령부, 경찰청 요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이 광주포로수용소에 와서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때의 상황은 “군인, 경찰 할 것 없이 온 나라에서 모여든 취조관들이 밤낮없이 취조를 해댄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중범자는 처형 등의 방법으로 정리한 후 이듬해인 1953년 3월에 해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수용소에 대해 알려진 단편적인 사실은, 당시 수용인원이 46,000~48,000명이었으며, 초대 수용소장이 송인섭 헌병 소령이었고, 전남대 도립병원 자리에 위치했으며, 이승만의 해체지시에 따라 1953년 3월에 해체되었다는 정도이다. 『빛과 색채의 미술사 오지호』, 전남일보, 2008. 12. 15.

253) 신청인 조재현, 진술조서(2008. 7. 2.).

254) “(토벌 시 가족단위의 피란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가?) 산에서 안 내려오면 빨갱이로 취급했다. 교전 중에 죽기도 하고 잡혀 와서 산청경찰서 등지에서 죽기도 했다. 금서면에서도 가족 단위로 피란했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다. 박가라는 사람 집안인데 아주 어린아이, 젓먹이도 있었다. 그 식구들 10명쯤이 금서지에서 처형당했다. 경찰이 총살시켰다. 인민군 진주 시 빨갱이 짓을 하다가 군경이 들어오니까 입산한

위 사건은 백야사 토벌작전 시기에 발생하였다. 백야사 예하에는 남원치안국전방사령부, 태백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가 배속되는 등 경찰이 군과 합동하여 작전을 펼쳤는데 부대 병력은 총 3만여 명에 달하였다. 백야사는 토끼몰이 방식을 채택, 지리산을 포위한 3만여 병력이 산정을 향해 포위망을 좁혀 들어가면서 산간마을의 가옥과 시설을 모두 소각하여 빨치산들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작전을 펴는데, 이는 앞서 11사단이 벌인 ‘견벽청야’ 즉, 초토화작전의 연장이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백야사는 1951년 12월 2일부터 1952년 3월 14일까지 총 4기에 걸친 작전을 실시하였는데, 토벌군을 피해 지리산으로 피란하고 있던 많은 주민들이 희생된 것은 주로 1기(1951. 12. 2.~12. 14.)에 해당한다. 총진과(사살 6,606명, 생포 7,115명)에서 보듯 당초 예상했던 빨치산 숫자(4,000명)의 무려 3배가 넘었다. 이에 대해 “공비들의 세력이 예상보다 강력했고, 공비들에 포섭된 비무장 입산자도 많았음을 반증”²⁵⁵⁾ 한다는 설명은 결과적으로 ‘비무장 입산자’로 명명된 피란민들이 소위 ‘공비’와 동일시되어 백야사의 토벌대상이 되었음을 입증한다.

백야사는 토벌작전이 시작되기 전 광주에 포로수용소를 만들어 토벌과정에서 잡힌 일반 주민들을 수용²⁵⁶⁾하였는데, 시설의 열악과 추위, 장질부사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였다.

공간사에 따르면 백야사 토벌작전 1기에 수도사단 예하 기갑연대 등 3개 연대가 내대리 방면으로 진출하여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다. 특히, 기갑연대가 사건의 희생자들이 사살당한 중산리 인근 지역인 거림·세석 방면으로 진출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의 가해 부대로 확인된다.

이 사건으로 조주환, 강월선, 조인현 등 일가족 세 명이 희생되었다.

모양이라. 여자가 산에 가서 아이를 낳은 것 같던데. 식구들이 지서 유치장에 감금되어 있을 때 그 젖먹이를 데리러 오라고 지서에서 외할머니에게 연락하자 ‘내일 아침에 포대기 들고 가겠다.’고 했는데, 그 전날 밤에 싸 죽인 모양이라. 당시 입산자들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젖먹이는 처치 곤란했기 때문에 그냥 싸 죽인 것 같아.” 참고인 민○○, 면담보고서(2009. 12. 9.).

255) 백선엽, 『군과 나』, 대륙연구소, 1989, 229쪽.

256) 피란 시 지리산 빨치산 조직의 소년단에 소속되어 활동했던 조○○(당시 15세)는 백야사 토벌 시 함양군 휴천면에서 잡혀서 함양경찰서로 넘겨져 경찰서장이 “어리니까 집에 가 공부해라. 집에다 연락해두었으니 어머니 오실 거다.”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군인들이 오더니 누구냐고 해서 ‘귀순병’이라고 하니 “데리고 가.”라고 해서 광주수용소로 가서 포로 취급당했습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당시 백야사의 과도한 포로수용 행태를 엿볼 수 있다. 참고인 조○○, 진술조서(2009. 10. 22.).

○ 홍계리 강태수 희생사건(다-5264호)²⁵⁷⁾

삼장면 홍계리는 전체 60~70여 호의 가구가 살던 마을이었는데, 1950년 12월 16일 아침녘에 산청읍 쪽에서 토벌작전을 위해 밤머리재를 넘어오는 군인들이 총을 쏘면서 마을로 진입하였다.

사건 당일인 12월 16일은 단성면 입석리와 청계리에서 교전이 발생했던 날로, 빨치산과의 교전을 위해 11사단 9연대 2대대가 이동 중이었다. 이 부대는 산청읍 쪽에서 밤머리재를 넘어 삼장면 홍계리마을로 진입하였는데, 토벌군이 사격을 가하면서 들어오자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유평리 대원사로 피란을 갔다.²⁵⁸⁾ 희생자 강태수는 아들(강대식)이 군에 있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라고 하면서 부인과 함께 마을에 남았다.²⁵⁹⁾

대부분의 주민이 피란 간 홍계리 서촌부락을 수색하던 군은 방앗간에 있던 희생자 강태수와 방앗간 주인 유씨를 발견한 후 빨치산 협조혐의로 강태수를 사살하였다.

군인들이 여러 명 총을 들고 들어와 “여기에서 뭘 하고 있느냐?”고 으박지르더니 “인민군에게 식량을 대주려고 있느냐?”고 추궁하므로 아버지가 “우리 아들도 군에 가 있다.”고 하였으나 총을 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였습니다.²⁶⁰⁾

사살 직후 군인들은 덕산 방향으로 갔으며, 오후에 피란지에서 돌아온 이웃 주민 최삼수(작고) 등이 시신을 수습하여 마을 뒷산(송골)에 가매장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후 가족들이 이장하였다.

이 사건은 토벌작전을 벌이던 군이 대부분의 주민이 피란 간 상태에서 남아 있던 주민들을 대상으로 빨치산 협조자로 간주²⁶¹⁾, 사살한 사건으로, 당시 토벌작전을 펼쳤던 군부대는 11사단 9연대 2대대로 확인된다. 1950년 12월 16일에 2대대 5중대와 7중대가 각각

257) 신청인 강대식이 사망(2007. 12. 28.)하여 대신 아들 강재중에 대한 신청인 전화조사를 실시(2008. 8. 7.)하였다.

258) 토벌군이 총을 쏘며 밤머리재를 넘어 오자 동네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피란 가야한다.”고 하여 대부분의 주민들은 아무 것도 갖지 않고 인근 대원사로 피신하였고, 오후가 돼서야 귀가하였다. 참고인 강○○, 진술서(2006. 8. 27.).

259) 사건 당시 마을주민들과 함께 피란길에 나섰던 희생자의 딸, 강○○은 국군이 마을로 진입하자 동네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피란 가야 산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으며, 아무 것도 갖지 않고 혼자 피란길에 나섰다. 참고인 강○○, 진술서(2006. 8. 27.).

260) 당시 사건현장에 있었던 방앗간 주인 유씨(작고)와 희생자의 처(최연이/작고)의 전언이다. 참고인 강○○, 진술서(2006. 8. 27.).

261) 사건 이전부터 동 마을은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길목이었던 이유로 빨치산이 식량 확보를 위해 자주 출입했고, 봉화불과 뼈라가 빈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참고인 정○○, 진술서(2009. 5. 21.).

단성면 입석리와 청계리에서 교전하였고, 2대대 지휘부는 이 일로 그 다음날인 12월 17일에 단성면에 후방지휘소를 설치하고 6중대와 8중대를 추가 투입, 덕산에서 교전을 벌였으며 삼장면 내원리, 중태리로 도주하는 빨치산을 추격하는 작전을 벌인 바 있는데, 이 작전은 12월 20일까지 계속되었다.²⁶²⁾

마) 시천면 내공리 하주익 등 희생사건

○ 시천면 내공리 하주익 희생사건(다-341호)

사건 당시 내공리 가라골은 총 50여 호의 가옥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마을은 치안이 회복되지 않아 밤에는 빨치산의 출입이 빈번했고, 군 토벌이 있으면 대부분의 마을주민들은 인근 야산으로 피신하곤 하였다. 국군이 마을에 오기만 하면 “빨갱이들에게 뭘 주었냐?”면서 젊은 사람들을 폭행하고 괴롭혔기 때문에 사건 당일도 군인들이 온다는 소문을 듣고 마을사람들은 마을 인근 주산 골짜기로 피신한 상태였다.²⁶³⁾

1950년 12월 19일, 덕산 원리에 주둔하고 있던 토벌군이 내공리를 향해 이른 아침 총을 쏘면서 마을로 들어와 토벌작전을 폈는데, 마을사람들이 군인을 피해 산으로 도망가자 집집이 불을 지르고 산에 도망가 피신해 있던 사람들을 끌고 중태를 지나 덕산으로 갔다.²⁶⁴⁾

내공리 가라골 마을에 살던 하주익은 이 과정에서 피살된 시신으로 발견되었다. 희생자의 가족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토벌대를 피해 산으로 피신 중이었기 때문에 당시 현장을 목격한 사람은 없으나, 피신하지 않고 집 근처 대밭에 숨어 있던 하주익이 자기 집이 불타는 것을 보고 뛰어나와 불을 끄려고 하다가 군인에 의해 발각되어 사살된 것으로 가족들은 추정하고 있다.²⁶⁵⁾ 가슴에 총을 맞아 절명한 희생자의 시신은 해가 진 후 귀가한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당시 토벌군은 앞의 사건, 즉 홍계리 주민 희생사건의 가해부대와 동일한 11사단 9연대 2대대로 판단된다.

262) 일자별 기록은 다음과 같다. •1950년 12월 16일 : 2대대 5중대 -입석리에서 교전, 7중대 - 청계리에서 교전. •1950년 12월 17일 : 2대대 - 후방지휘소 단성에 설치, 덕산 방면에서 교전, 6중대와 8중대 - 덕산에서 교전, 적은 내원리, 중태리 방면으로 도주하여 추격 중. •1950년 12월 20일 : 2대대 - 품개동에서 15:00-18:00까지 적과 교전.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제59권, 1987, 357~360쪽.

263) 신청인 하주갑, 진술조서(2007. 8. 30.);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19.).

264) 이들은 대부분 나중에 풀려났다. 참고인 이○○, 진술조서(2009. 5. 19.).

265) 신청인 하주갑, 진술조서(2007. 8. 30.).

○ 내대리 권세도·김인구·김종철 희생사건[다-338(1)·8901·9990호]

본 사건 당시 빨치산은 내대리 인근 지리산 세석평전에 주둔하며 밤이면 내대리로 내려 왔다가 낮이 되면 다시 산으로 돌아가곤 했다. 내대리 주민들은 빨치산이 출몰하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업인 농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내대리에 들어가 거주할 수밖에 없었다.²⁶⁶⁾ 그러나 1951년 2월 5일(1950년 음력 선달 그믐날)²⁶⁷⁾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는 하동군 악양면에서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로 진입하여, 마을을 방화하고 소개시키는 과정에서 내대리 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희생시켰다.²⁶⁸⁾

같은 날 오전 국군 50여 명은 내대리 남대마을에서도 마을을 대대적으로 방화 및 소개하며, 하동군 청암면 출신 노○○를 찾아다녔다. 내대리 남대부락 권세도(다-8901·9990호, 남, 25세, 농업)는 당시 내대리 대한청년단 부단장이었다. 국군 10여 명은 권세도의 집으로 찾아가, 권세도에게 노○○가 누구냐고 물었다. 이에 권세도는 자신은 노○○가 아니라고 답했다. 그러나 국군은 권세도를 조사해야 한다며 연행했다. 이후 국군은 권세도를 남대부락 야산으로 끌고 가 총살했다. 권세도의 시신은 수습되어 남대부락 야산 희생장소 옆에 매장되었다.²⁶⁹⁾

같은 날 오후 국군은 내대리 판기마을에 진입했다. 당시 판기마을 남성들은 일하러가고 주로 노인·여성·어린이들만이 마을에 남아 있었다. 국군이 마을을 방화하자 주민들은 마을에서 뛰쳐나왔다.²⁷⁰⁾

266)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는 본 사건 당시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화랑부대)가 토벌을 하며 세석평전을 폭격하여, 빨치산들이 사령부가 있는 산청군 삼장면 유평리 조개골로 이동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67) 참고인 김○○는 본 사건이 1951년 초에 발생하였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와 김○○에 따르면, 김○○의 동생 김○○는 본 사건 당일 출생하였다. 김○○의 진술을 듣고 관련 족보를 확인한 결과, 김○○의 실제 생년월일은 1951년 2월 5일(1950년 음력 12월 29일)로 확인되었다. 참고인 정○○도 본 사건발생 시기가 1950년 음력 선달 그믐날이라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7. 10. 26.);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金海金氏三賢派大同譜』, 回想社, 1995, 199~200쪽.

268) 참고인 하○○, 진술서(2010. 2. 3.);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9.);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김○○는 본 사건의 가해주체가 국군 9연대 1대대이고, 이 부대가 본 사건 이후 산청군 금서면에 가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도 본 사건의 가해주체가 국군 9연대 화랑부대이며, 이 부대가 본 사건 이후 산청군 금서면과 거창군 신원면에 가서 민간인을 희생시켰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69) 참고인 권권도(신청인 권길영 대리 진술), 진술조서(2008. 7. 3.); 참고인 하○○, 진술서(2010. 2. 3.); 참고인(유족) 권권도, 통화보고서(2010. 3. 19.);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3. 29.);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70) 신청인 박도일, 진술조서(2006. 11. 28.);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 진술녹

국군은 마을에서 뛰쳐나온 내대리 청내마을 김인구[다-338(1)호, 여, 20세, 농업] 등 주민 50여 명을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시켰다. 이후 국군은 판기마을 앞산 밑에서 집결된 주민들에게 총격을 가했다. 이로 인해 김인구는 판기마을 앞 논에서 아들 박도일을 업은 채로 목에 총탄을 맞아 희생되었다. 김인구의 시신은 본 사건 직후인 당일 저녁에 수습되어 판기마을 뒷산에 매장되었다.²⁷¹⁾

한편, 본 사건 당시 김인구의 시모 김복례(미신청, 여, 57세, 박도일의 조모)와 서차임(미신청, 여, 79세, 남상용의 증조모)은 눈이 어둡거나 증풍에 걸린 노인들이었다. 이들은 국군이 집을 방화했는데도 거동이 불편한 관계로 집안에서 나오지 못하여 집안에서 국군의 방화로 희생되었다. 또한 김우대의 부 김재범(미신청, 남, 55세, 족보명 : 김재희, 김을수의 조부)도 당시 증풍에 걸린 노인이었다. 그는 국군의 지시에 따라 집에서 나오다가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다. 김복례·서차임·김재범의 시신은 모두 본 사건 직후 마을주민들에 의해 수습되어 당일 저녁에 매장되었다. 본 사건으로 내대리 판기마을에서는 총 4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되었다.²⁷²⁾

내대리 세석마을 거주 김종철[다-338(1)호, 남, 50세]은 김인구의 아버지였는데, 당시 한약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김종철은 딸 김인구가 희생된 당일 오전 설을 준비하기 위해

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271) 당시 김인구는 설 차례를 준비하려고 판기마을 큰집에 와 있었다. 참고인 박○○과 정○○은 본 사건 직후 목에 총을 맞아 희생된 김인구의 시신을 목격하였다. 특히, 참고인 정○○은 자신이 김인구의 시신을 수습하고 매장하는 데 참여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김○○·김○○은 김인구의 희생 과정을 직접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박○○·정○○·정○○은 본 사건 당시 국군이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된 주민을 살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참고인 정○○은 본 사건 당시 내대리 판기마을에 조카가 육군 대위인 주민이 있어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고, 그렇지 않았다면 마을주민들이 국군에 의해 몰살되었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도일, 진술조서(2006. 11. 28.);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7. 10. 26.);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유족) 김○○, 진술조서(2010. 4. 13.);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72) 참고인 정○○·김○○·김○○은 본 사건으로 내대리 판기마을에서 총 4명이 희생되었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박도일, 진술조서(2006. 11. 28.);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7. 10. 26.);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유족) 김○○, 진술조서(2010. 4. 13.); 참고인 김○○은 김재범의 희생현장을 직접 목격했고, 김복례·서차임의 시신수습 광경을 목격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은 본 사건 직후 김재범의 시신을 직접 목격했다.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은 자신이 직접 김복례·서차임·김재범의 시신을 수습 및 매장하는 데 참여하여 이들의 시신을 모두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세석마을을 떠나 덕산 장으로 가고 있었다. 김종철은 덕산 장에 가는 길에 국군에 의해 연행되었다. 국군은 같은 날 오후 그를 트럭에 실어 삼장면 뒷산(대포국민학교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집단총살했다.²⁷³⁾

권세도는 족보에 1951년(辛卯) 12월 18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⁷⁴⁾ 김인구는 족보에 제사일이 12월 28일로 기재되어, 족보 사망 일자가 실제 희생일자와 일치한다.²⁷⁵⁾ 김재범은 족보에 1950년 12월 29일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와 실제 희생시기가 일치한다.²⁷⁶⁾

산청군의회 보고서에는 김인구·김복례·서차임·김종철이 1949년 11월 20일 내대마을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⁷⁷⁾ 산청 기초사실조사표에는 김재범·김인구가 1950년 12월 29일 시천면 내대리 내대마을에서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고, 김복례는 같은 날 같은 마을 집안에서 국군의 방화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⁷⁸⁾

○ 내대리 판기마을 박우문·박근생 희생사건[다-338(1)호]

판기마을 박우문[다-338(1)호, 남, 38세]은 동생들과 함께 제기 등을 만드는 목공예업에 종사했다. 박우문과 동생 박원희(미신청, 이명 : 근생, 남, 18세)는 1951년 12월 9일(제사일 : 음력 11월 10일) 판기마을에서 1km 정도 떨어진 경명도 야산 골짜기 목공예 작업장에 있었다.²⁷⁹⁾

본 사건을 목격한 신청인 박용운에 따르면, 같은 날 오후 2시경 국군 10여 명이 경명도 야산 작업장에 들이닥쳤다. 국군은 박우문·박원희 형제를 작업장 앞으로 끌어낸 후 민간인임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3~4발의 총격을 가하여 살해했다.²⁸⁰⁾

273) 신청인 김진태, 진술조서(2010. 4. 13.); 참고인 박○○,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에 따르면, 김종철은 충북 청원 출신으로 일제 강점기에 10여년간 경찰로 근무했다. 참고인 정○○와 정○○은 김종철이 좌익사상을 소지하거나 빨치산에 협조한 사람이 아니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74) 『安東權氏僕射公派默翁公系世譜』, 回想社, 1994, 73~74쪽.

275) 密城朴氏啞堂派譜所, 『密城朴氏啞堂派世譜』, 卷之下, 1987, 322쪽.

276) 慶州金氏樹隱公派世譜編纂委員會, 『慶州金氏樹隱公派世譜』, 回想社, 1991, 310~311쪽.

277)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30쪽.

27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대외협력과, 『기초사실조사표 - 경남 산청 2 -』, 2008.

279) 신청인 박용운, 진술녹취록(2010. 4. 14.).

280) 신청인 박용운, 진술조서(2007. 8. 6.); 신청인 박용운, 진술녹취록(2010. 4. 14.);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신청인 박용운, 통화보고서(2010. 5. 10.);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한편, 박우문의 동생 박근생[다-338(1)호, 이명 : 동생, 남, 24세, 목공예업]도 박우문과 박원희가 희생된 지 열흘 정도 후인 1951년 12월 20일(제사일 : 음력 11월 21일) 내대리 야산에 일을 하러갔다가 국군에 의해 총살당했다.²⁸¹⁾

박우문은 족보에 1951년(辛卯) 11월 11일 사망하였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희생시기와 일치한다. 박근생은 족보에 1952년(壬辰) 11월 21일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 일자가 실제 희생일자와 일치한다.²⁸²⁾ 산청군의회 보고서에는 박또문(박우문의 이명)과 박근생이 1949년 11월 20일 내대마을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⁸³⁾

○ 내대리 청내마을 정오교 희생사건[다-338(1)호]

내대리 청내마을 거주 정오교[다-338(1)호, 이명: 문교, 남, 25세, 농업]는 본 사건 당시 한청단원이었다. 그는 국군이 마을을 소개했어도 부모님이 연로한 관계로 청내마을에 남아 있었다.²⁸⁴⁾

정오교는 본 사건 직전 빨치산에게 쫓기는 시천면 한청단장 정갑수를 단성지서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가족들을 데리러 청내마을로 돌아왔다. 그러나 국군은 1951년 12월 10일(제사일 : 음력 11월 11일) 오전 청내마을에 들어와 정오교와 같은 마을 거주 이영수(미신청, 남, 59세, 이재진의 부)·하점구(미신청, 여, 55세, 이영수의 처) 등을 집단총살했다. 정오교의 시신은 같은 날 오후 그의 동생 정○○에 의해 수습되어 청내마을 인근에 매장되었다. 이영수와 그의 아내 하점구의 시신도 본 사건 직후 참고인 정○○에 의해 목격되었으며, 이영수의 사위에 의해 수습되었다.²⁸⁵⁾

정오교는 족보에 1951년(辛卯) 11월 10일 사망했다고 기재되어, 족보 사망시기가 실제

281) 신청인 박도열, 진술조서(2007. 8. 6.); 참고인 김○○, 진술조서(2010. 4. 13.);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10. 5. 10.); 신청인 박도열,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282) 密城朴氏啞堂派譜所, 『密城朴氏啞堂派世譜』, 卷之下, 1987, 321쪽·323쪽.

283)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30쪽.

284) 신청인 정의선, 진술조서(2007. 6. 13.); 참고인(유족)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285) 신청인 정의선은 본 사건 이후 정오교의 유가족들이 남원으로 끌려가 빨치산 협조 혐의 관련 조사를 받고 며칠 후 풀려났다고 진술했다. 신청인 정의선, 진술조서(2007. 6. 13.); 참고인(유족)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참고인 정○○, 진술녹취록(2010. 4. 15.); 정오교의 동생 정○○은 본 사건 당일 오후 내대리 청내마을에서 정오교·이영수·하명불상(이영수의 처)의 시신을 목격했고, 정오교의 시신을 직접 수습했다고 진술했다. 참고인(유족)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참고인 정○○, 통화보고서(2010. 5. 11.); 신청인 정의선, 통화보고서(2010. 5. 12.).

희생시기와 일치한다.²⁸⁶⁾ 산청군의회 보고서에는 정오교가 1949년 7월 18일 시천면 동당리 신천국민학교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이영수와 하점구는 1949년 11월 20일 내대마을에서 희생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²⁸⁷⁾

바) 산청읍 차탄리 김차조 희생사건(다-7717호)

1950년 9월 하순경, 사건발생지역인 산청읍 차탄리는 함양으로 가는 중요한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던 관계로 북진작전의 주요 통로였다. 유엔군의 북진작전은 당시 ‘마산 서부 지역 돌파작전’이었는데, 미 25사단²⁸⁸⁾이 북진하고 있었다.

자료 검토 결과, 사건 당시 차탄리에 진입하였던 부대는 미 8군 9군단 25사단 35연대의 돌빈특수임무부대로 확인되는데, 이때 국군은 없었고, 함안 군북에서 미군과 함께 전투를 벌였던 산청경찰 등 경찰병력은 존재했다. 이들은 진주를 통해 산청으로 진입하면서 미군에서 지급한 군복을 착용하고 미제 무기 등을 소지하고 있었다. 당시 주민들이 목격하였다는 군은 미군이 지급한 군복을 착용한 경찰이었거나 수복지역의 부역자처리 업무를 담당한 특무부대, 또는 군정보대(G-2)였을 수도 있다.

마을에 진입한 군경은 퇴각하는 인민군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마을사람들을 색출하였고, 가족들은 김차조가 끌려가는 모습을 목격하였다.²⁸⁹⁾

부역자로 색출된 사람들은 차탄리마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산청 밑에서부터 훑어 온 것으

286) 迎日鄭氏世譜廳, 『迎日鄭氏世譜』卷之四, 回想社, 1981, 453~454쪽.

287)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19쪽·30쪽.

288) 신청인이 진술한 유엔군으로 참전한 미군이란 25사단이었다. 당시 미 25사단은 인민군 6사단, 7사단과 대치하면서 낙동강 방어선의 맨 남쪽인 마산 서부지역을 맡고 있었는데, 미8군 반격계획에 따라 9월 16일 09:00부터 작전을 전개, 예하 24연대와 27연대, 그리고 35연대가 진주 탈환을 목표로 전진하고 있었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이 확실해진 9월 23일에 김일성은 전 인민군에게 후퇴명령을 하달하였는데, 하루 앞선 9월 22일에 미 8군사령관은 ‘적의 부대를 추격하여 전과 확대를 작전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이른바 ‘추격명령’을 하달 받은 미25사단 35연대는 돌빈(Dolvin)특수임무부대로 하여금 사단의 우측(북)에서 진주-함양-남원-전주-이리-강경을 경유, 금강선으로 진출하도록 하였다. 1950년 9월 26일 06:00 돌빈특수임무부대는 1개 전차중대와 1개 보병중대를 1개조로 한 2개 보·전 편성으로 보병은 전차에 탑승한 채 진격하였다. 이 부대는 공중폭격지원까지 받아가면서 인민군 6사단을 추격하여 지리산을 북쪽으로 우회하여 함양을 경유, 28일 오후에 남원에 진입하였다.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상)』, 1995, 447쪽: “미군들이 먼저 올라가면서 저보고 예쁘다고 하면서 안고 하다가 저에게 비스킷과 카드도 주고 했는데...” 신청인 김일선 진술조서(2008. 5. 14.): “유엔군이 오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아서 대부분의 마을사람들이 뒷산으로 도망을 갔는데, 할머니는 ‘별 일이야 있겠느냐’하면서 집에 남아 있었다. 할머니는 유엔군이 마을로 들어와서 영어로 떠드는 것을 들었고, 마을에서 훑을 쏘아 까치와 까마귀 등을 잡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참고인 김○○, 진술서(2010. 2. 24.).

289) 신청인 김일선, 진술조서(2008. 5. 14.).

로 보였는데, 트럭 두세 대에 가득 실릴 정도였다. 희생자 김차조는 당시 자전거 사고로 다리를 절룩이는 상태였으며, “자기 눈이 없어서 남의 눈을 부치고 시사를 지내주면서 어렵게 생활하던 사람으로 공부도 하지 못해 좌익활동을 하지 않은”²⁹⁰⁾ 평범한 소작인이었다.

살해장소는 희생자의 마을인 차탄리 인근 구시골이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의 살해 사실은, 생존자에 의해 마을사람들에게 알려졌다.²⁹¹⁾

당시 시신을 본 목격자의 전언에 따르면 “시신들이 뒤죽박죽이고 사건현장이 온통 피투성이”²⁹²⁾였다. 김차조의 시신을 찾으러 사건현장을 찾은 김차조의 부인 민을순(작고)은 시신을 확인할 수도 없고 무섭기도 해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였다.

사) 신등면 간공리 김상수 희생사건(다-4441호)

신등면 간공리 연산부락은 총 40여 호의 마을로, 사건 전에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와 식량을 가져가곤 했으며, 전쟁 때에는 인민군이 마을로 들어와 돼지를 잡아먹고 소를 끌고 가려고 하는 등 민폐를 끼친 바도 있다.²⁹³⁾

희생자 김상수는 단계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가정형편 상 공부를 더 하지 못했으나, 한문으로 시를 짓는 등 마을에서는 똑똑하다는 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1950년 11월경, 신등지서 경찰 두 명에 의해 연행되었다. 마을주민들은 인민군이 마을에 진주하였을 때도 김상수는 부역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데,²⁹⁴⁾ 빨치산 출몰이 잦았다는 주변 진술로 미루어 신등지서 경찰이 김상수를 부역혐의로 끌고 갔을 것으로 보인다. 김상수는 경찰에 의해 연행된 후 행방이 알려진 바 없는데, 당시 인근 마을에서 비슷한 경우로 끌려갔던 주민들이 처형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김상수가 월북자 명단이나 행형기록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미상의 장소에서 살해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당시 신등지서에는 5~6명의 경찰이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가족들은 김상수와 관련된 어떠한 이야기도 들은 바 없으며, 김상수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해 사망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다.

290) 참고인 김○○, 진술서(2010. 2. 24.).

291) 생존자의 이름은 확인되지 않으며, 몇 년 전에 작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는 총살 직후 가벼운 부상만 입은 상태에서 죽은 적하고 있다가 살아났는데, 생존 시 “군인들이 확인사살을 위해 발로 쿡쿡 찌르면서 확인하고 다니는 와중에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군인들이 물러간 후 처형지에서 빠져 나왔다.”고 진술한 바 있다.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10. 1. 27.).

292) 참고인 박○○, 통화보고서(2010. 1. 27.).

293) 참고인 김○○, 진술서(2010. 2. 25.).

294) 참고인 김○○, 진술서(2010. 2. 25.).

2) 함양군 사건

가) 함양읍 백천리 정위상 희생사건(다-951호)

사건 당시 함양읍 백천리는 80여 호의 마을로, 함양에서 진주·부산으로 가는 도로가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였다.

함양읍 백천리 1572번지에서 살던 정위상(17세)은 함양중학교 학생으로 군청 직원(사환)이었는데,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인민군이 함양을 점령한 상태에서 인민군에 의해 차출당해 군청에 주둔한 인민군의 무기고를 관리하면서 무기를 운반하게 되었다. 낙동강전선에서 국군과 인민군 간에 치열한 전투를 벌여지고 있을 때, 인민군은 낙동강 일대 마을 주민을 강제로 동원²⁹⁵⁾, 인민군이 사용할 실탄과 포탄을 운반하게 하였다.

피해자 정위상은 같은 마을에 사는 정○○²⁹⁶⁾과 함께 노무자로 차출되어 인민군이 퇴각할 때인 9월 하순까지 탄약고 열쇠를 관리하면서 함양에서 산청군 신안면까지 매일 밤마다 소와 달구지를 이용하여 인민군이 사용할 실탄과 포탄을 운반하였다.

인민군이 낙동강전선에서 패하여 후퇴한 후 군과 경찰이 마을을 수복하자 경찰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인민군에 동조했거나 부역행위를 한 사람들을 색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인민군에 의해 차출되었던 희생자 정위상과 정○○이 1950년 9월말~10월 초순경 함양경찰서로 끌려갔는데, 정○○은 며칠 후 귀가하였으나 정위상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

정위상은 구시골에서 희생되었다는 소문²⁹⁷⁾이 돌았으나, 시신이 수습되지 못하였는데, 인근에서 경찰에 의해 살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고성군 사건

가) 영오면 오서리 최연갑 희생사건(다-9872호)

인민군이 후퇴하자 고성경찰은 인민군 진주 시 인민군에 입대했거나 협조했다고 판단되는 남자들을 부역혐의자로 색출하여 사살하였다.

사건 당시 오서리마을은 150호 정도의 큰 마을로 한국전쟁 시 인민군이 한 달가량 주둔하다가 후퇴하였는데, 인민군은 이 마을에 주둔하면서 인근 지역 오동리에 병원을 짓

295) “당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반동분자로 몰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죽지 않기 위해 동네 주민들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7. 15.).

296) 정○○은 희생자와 같은 함양중학교 학생으로 사건 당시 17세였고, 경찰서에서 며칠 간 조사받은 후 집으로 귀가, 생존해 있다가 2005년도에 부산에서 사망하였다. 신청인 정연상, 진술조서(2008. 3. 25.).

297) 참고인 정○○, 진술조서(2008. 7. 23.).

제 5 권

기도 하였다.²⁹⁸⁾ 최연갑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특별한 단체 활동은 하지 않은 보통 정도의 경제력을 갖고 있었다. 인민군 진주 시 인민군 입대를 중용받은 최연갑은 계속 피신하다가 인민군 후퇴 무렵 잡혀서 인민군이 점령하고 있던 사천비행장까지 끌려가 짐 나르기 등의 부역을 했던 것으로 확인된다.²⁹⁹⁾

인민군이 퇴각한 후 집으로 돌아온 최연갑은 경찰의 부역혐의자 검거를 피해 도피·은신 생활을 계속하던 중³⁰⁰⁾, 1950년 가을 무렵, 고성경찰서에서 나온 15명의 경찰에 의해 마을 수색과정에서 잡히게 되었는데, 이때 같은 마을 주민 3~4명³⁰¹⁾과 함께 트럭에 실려 고성경찰서로 끌려갔고, 경찰서 인근인 개천면 원동골에서 사살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처형지에는 트럭 한 차 정도, 약 20~30구 정도의 시체가 있었으며, 시신은 마을주민 최낙천이 수습하여 신고 와 가족에게 인계되었다.³⁰²⁾

잡혀갔던 마을사람 중 최○○(작고)는 사살 현장에서 총을 맞고도 도망쳐서 살아 돌아왔으며, 그를 통해 마을사람들에게 부역혐의자 집단사살 사실이 알려졌다.³⁰³⁾

4) 거창군 사건

가) 북상면 갈계리·병곡리·월성리·소정리 정동해 등 주민 집단희생사건

북상면은 덕유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쟁 전부터 빨치산의 출몰이 잦은 오지였다. 전쟁 발발 후 인민군 후퇴 시 잔류 인민군을 토벌하기 위해 11사단 9연대의 작전구역이었던 북상면 일대의 갈계리, 병곡리, 월성리, 산수리 등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모두 소개되었다. 이때 마을의 가옥은 모두 불탔으며, 주민들은 면사무소 소재지 등에서 삶을 꾸려가야 했다.

○ 갈계리 정동해·정을해·정관해 3형제 희생사건[다-358(2)호]

사건지역인 갈계리 중산부락은 150여 호의 산간마을로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사를 짓거나 머슴살이를 하며 생활하고 있었다.

298)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299) 신청인 최선아, 진실규명신청서(2006. 11. 28.);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최○○의 진술조서 작성에는 같은 마을에 사는 이○○(78세)도 함께 참여하였다.

300)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301) 최연갑·최○○ 등 2명이 확인된다.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302)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당시 마을에는 수레(구루마)가 귀했기 때문에 유일하게 이를 보유하고 있었던 참고인의 부친이 사건현장에서 최연갑의 시신을 실어다 가족에게 인계하였는데, 최연갑 외에도 이웃마을 주민들의 시신도 몇 구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03) 참고인 최○○, 진술조서(2009. 7. 29.).

1950년 12월 10일 이른 새벽, 마을에 진입한 토벌대는 정동해 등 3형제의 행동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이들 3형제를 마을 앞 진땀이 논에서 사살하였다. 정동해(31세)는 농사를 짓고 있었으며, 정을해(26세)와 정관해(22세)는 남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무학이었다. 다음은 목격담이다.

정관해는 임종상의 집에서 쇠죽을 끓이던 중 행동과 옷차림이 수상하다는 이유로 끌려가고, 정을해는 정창섭 씨 집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변소에서 용변을 보고 있었는데, 수색하던 군인들이 이를 발견하고 숨어 있는 것이 이상하다며 끌고 갔습니다. 정동해는 자택에서 동생들이 군인들에게 잡혀간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들에게 동생들을 풀어달라고 말을 하러 갔다가 세 명 모두 총에 맞아 살해당했습니다.³⁰⁴⁾

사건 직후 부대 지휘관이 “초상이나 잘 치러 주라”고 하여 같은 마을에 살던 친척, 방위대원들이 시신을 수습하여 마을에 묘를 만들었고, 많은 주민들이 시신수습 장면을 목격하였다.³⁰⁵⁾

사건의 가해주체는 11사단 9연대로 추정된다. 당시 11사단 9연대 예하 부대는 1950년 11월 22일 연대작명 18호에 의해 “11월 24일까지 함양으로 이동하여 덕유산 일대에 준동 중인 잔비와 대대 지경 내에 출몰하는 잔비를 1950년 12월 22일까지 완전 소탕하라”는 명령을 받고 진주와 함양, 하동지구로 이동하여 빨치산 토벌작전에 돌입하였다. 그런데 11월 29일에 사단(남원 주재) 출장 도중 미 고문관 이하 37명이 빨치산의 습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투지경의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병력을 이동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함양-남원 간의 도로와 산청-함양 간의 도로 및 통신망을 확보할 것과 작전지역 내의 빨치산을 12월 22일까지 소탕 완료할 것을 강조하는 지시(사단작명 18호)를 발령하였다. 이후 산청군 덕산 일대에서 토벌군과 빨치산과의 교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고, 9연대는 작명 22호를 발령하여 작전 지역 내의 경찰, 청방부대 등을 군 지휘 하에 두어 토벌작전을 전개해 나갔다.³⁰⁶⁾

○ 병곡리 부역혐의 자수자 최진순 등 민간인 집단희생사건[다-358(2)호]

사건이 발생한 병곡리 분계마을은 남덕유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50여 호의 산간마을로, 전쟁 전에도 빨치산의 출몰이 빈번했고 이로 인해 경찰의 취조를 받는 등 주민피해가

304) 신청인 정동일, 진술조서(2008. 9. 11).

305) 참고인 임○○, 진술조서(2009. 10. 21).

306) 육군본부, 『한국전쟁사료』 제59권, 1987, 345~354쪽.

계속되었다.³⁰⁷⁾

수복 후인 1950년 겨울 무렵, 마을은 덕유산을 거쳐 입북하려는 인민군 패잔병의 점령 하에 있었다. 인민군들은 주민들에게 협조하도록 총을 쏘면서 협박하여, 김○○가 인민위원장을 맡는 등 마을주민들은 불가피하게 인민군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산 능선을 차지하고 있던 인민군 패잔병들은 밤이면 마을로 내려와 총으로 위협하면서 밥을 해 내라는 요구를 하여 여러 집에서 밥을 해주기도 하였다.

이 무렵 경찰 8명이 인민군의 주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능선을 정찰하다가 몰살당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이후 이 지역 토벌을 맡고 있던 11사단 9연대 3대대 군인들이 마을을 불태우고 면소재지 등으로 주민들을 소개시켰다.

1951년 1월 21일, 거창읍을 출발하여 “북상면에 있는 적 100명과 교전”³⁰⁸⁾을 치른 9연대 3대대는 다음날인 1월 22일, 북상지서에 마을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민군에게 밥을 해 준 주민들은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고 하여 다섯 집에서 최진순(여, 27세), 김철주, 김판금, 김창수, 김창식, 정갑수의 처(성명 불상, 여) 등 여자 두 명과 남자 4명이 자수하였다. 그런데 군인들은 이들 6명을 면사무소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사살하였고³⁰⁹⁾, 임시로 구덩이를 파서 한 곳에 묻혀 있던 이들 6명의 시신은 몇 해 지나 가족들이 수습하였다.³¹⁰⁾

이 사건은 토벌군이 인민군 패잔병에게 밥 등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자수하면 용서해 준다고 속여 주민들을 절차 없이 사살한 사례이며, 이는 주민소개가 ‘작전의 편의’를 위한 것이고, 부역자 선별을 위한 절차로 이어지는 것이었음을 입증한다.

○ 월성리 이덕술 희생사건(다-1282호)

1951년 3월 16일, 11사단 9연대의 소개 작전 후 이덕술(57세, 제적등본상 이름은 이득술)이 절도혐의로 북상지서 경찰의 취조를 받던 중 사망하였다.

삼베농사를 짓고 있던 이덕술은 마을사람들보다 하루 늦게 마을을 떠나오면서 집에 있던 족보와 삼베를 지고 나왔는데, 마을 이웃인 서○○의 모친이 이덕술이 자기 집 삼베를 훔쳐 왔다고 북상지서에 신고를 하였다. 북상지서에 끌려간 이덕술은 장○○이라는 경찰의 가혹한 취조와 고문으로 사망하였다. 가족들은 구타로 사망한 이덕술의 시신을 목격

307) 신청인 김성기의 모 정복남, 진술조서(2008. 4. 17.).

308) 육군본부, 『한국전쟁 사료』제59권, 1987, 363쪽. 이 기록에 따르면 ‘전과 포로 1, 사살 10, 부상 15, 다발총 1’ 등으로 되어 있다.

309)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 11. 17.).

310) 참고인 이○○, 면담보고서(2010. 1. 25.).

했다. 시신은 지서 앞 주민(임영웅)의 집에 안치되었다가 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³¹¹⁾

사망 후 북상지서는 사과하거나 다른 조치를 취한 바 없다.³¹²⁾ 또한 가해자인 북상지서 경찰관 장○○은 이 사건으로 인해 조사나 재판을 받은 바 없다.

○ 소정리 김점순 희생사건(다-5682호)

1951년 11월 21일 밤, 소정리마을 김점순이 사찰유격대의 총에 맞아 희생되었다.

사건 당시 소정리는 약 65호 정도의 마을로, 신청인 정동한의 집에 빨치산 30여 명이 들어와, 이들 중 10명은 현물세로 받은 쌀을 찢기 위해 집안에서 운영하던 방앗간(집에서 200m 떨어진 곳)으로 신청인의 아버지(정승춘)를 위협하여 끌고 갔고, 나머지는 신청인의 대청마루와 뒷방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으며, 희생자인 김점순을 비롯한 신청인 정동한(5세), 이복 형(10세) 등 3명은 빨치산의 감시를 받으면서 방 안에 갇혀 있었다.³¹³⁾

빨치산이 하산할 때부터 뒤를 밟아 오던 사찰유격대 30여 명은 신청인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방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바람에 신청인의 어머니 김점순이 사망하였다. 신청인과 이복형은 김점순이 방바닥에 눕히고, 방구석에 숨어서 겨우 살아났다.³¹⁴⁾ 김점순의 시신은 가족에 의해 수습되었다.

당시 사찰유격대는 빨치산 귀순자와 생포자 등을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거창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고 있었다.³¹⁵⁾ 이 사건은 사찰유격대가 “방 안에 빨치산과 주민이 같이 있음을 알고도”³¹⁶⁾ 고의로 사격하여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사건으로,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있던 사찰유격대의 불법살해행위에 해당한다. 당시 각 경찰서에 소속되어 있던 사찰유격대는 경찰로부터 무기와 실탄 등을 지급받고 있었다.

나) 신원면 박시남 희생사건[다-358(2)호]

사건이 발생한 신원면 과정리는 40~50호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11사단 9연대 3대대의 소위 ‘거창사건’을 전후하여 과정리 일대의 주민들은 소개를 당해 뿔뿔이 흩어져 피란길에 올라야 했다.

과정리에 살고 있던 피해자 박시남(여, 41세)은 평범한 가정주부였고 농사를 짓고 있었

311) 참고인 광○, 진술조서(2009. 10. 22.).

312) 신청인 이무근, 진술조서(2008. 4. 16.).

313) 신청인 정동한, 진술조서(2010. 4. 29.).

314) 신청인 정동한, 진술조서(2010. 4. 29.).

315) 참고인 전○○, 면담보고서(2010. 1. 20.).

316)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10. 1. 20.).

다. 집은 머슴을 둘 정도로 부유하였는데, 남편(엄판술)이 구장(이장)인 관계로 야간에는 빨치산의 협박 등으로 식량조달이 가능한 집 등을 알려주기도 하였으며, 주간에는 경찰과 군인들에게 작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도 하였다.³¹⁷⁾ 박시남의 가족은 설 직전에 피란길에 올라 박시남은 딸을 데리고 합천군 봉산면 봉계리에 있는 친정집으로 가고, 나머지 가족들은 남해군에 있는 친척 집으로 피란을 가다가 못 가고 산청군 신안면 청현리에서 피란생활을 하고 있었다.³¹⁸⁾

‘거창사건’이 발생한 직후인 1951년 2월 18일, 박시남은 친정집으로 찾아 와 엄판술의 행방을 찾던 신원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남편의 행방을 묻는 경찰의 취조를 받았으나, 모른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일단 지서 인근 헛간에 구금되었다. 당시 지서에 근무하던 경찰들에 따르면, 좌익에게 가족이 희생당한 바 있는 한 경찰이 헛간에 구금되어 있던 박시남을 산으로 끌고 가 권총으로 살해하였다고 한다.³¹⁹⁾

박시남의 시신은 피란에서 돌아온 가족들에 의해 수습되었다.

다. 진실규명불능 사건 : 거창군 마리면 김동락 행방불명사건(다-3726호)

말흘리는 남덕유산과 지리산이 연결되는 마을로, 밤에는 빨치산이 내려 와 총으로 위협하면서 식량제공, 짐 운반 등을 요구하였으며, 전쟁 중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읍내로 피란 가 지내는 상황이었다.³²⁰⁾

마을주민 김동락(호적상 이름 김종락)은 좌익사상에 심취해 있던 같은 마을의 신○○과 자주 어울렸으며, 친구들과 어울려 좌익활동을 하였다.³²¹⁾ 김동락은 전쟁이 나자 친구들과 함께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았다.

친구와 김동락을 경찰이 찾아 다녔다는 주민의 목격담과 이를 근거로 경찰이 김동락을 체포한 후 살해했을 것이라는 가족의 추정³²²⁾이 있으나, 경찰에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한 주민이나, 이후 살해됐다는 소문이 없는 점, 그리고 시기적으로 8월은 경찰이나 군인이 주민을 끌고 갈 정황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판단하여 볼 때, 김동락의 실종은 경찰이나 군의 행위로 보기 어렵다. 피랍 가능성과 월북 가능성을 전제로 관련 자료를 검

317)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 11. 18.).

318) 신청인 엄석주, 진술조서(2008. 9. 11.).

319) 참고인 김○○, 면담보고서(2009. 11. 18.).

320) 신청인 김동오, 통화보고서(2009. 11. 23.).

321) 참고인 이○○, 진술조서(2010. 1. 11.).

322) 신청인 김동오, 통화보고서(2009. 11. 23.).

토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아³²³⁾,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3. 사건 조사결과

가. 희생자의 신원과 특징

1) 희생자의 신원

진실화해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하여 ① 목격자 진술 유무 ② 시신수습 여부 ③ 제3자 전문 유무 ④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 기재 여부 등을 기준으로 희생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또한 진실규명대상자의 희생사실 및 시기·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적등본과 족보 등을 참고하였다.

신청인의 진술이 사건 관련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1차 자료)과 일치할 경우, 진실규명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또한 목격 참고인 또는 2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있거나, 1인 이상의 전문 참고인이 존재하며 시신이 수습되었을 경우에는 본 사건의 진실규명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하였다.

참고인 진술이 부재하나, 신청인의 진술이 제적등본과 같은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2차 자료)과 일치할 경우, 진실규명대상자를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또한 1인의 전문 참고인 진술 또는 유족의 진술만 존재하는데, 이것이 신청인의 진술과 일치할 경우에도 진실규명대상자를 희생자로 '추정'하였다.

신청인과 참고인의 진술이 불일치하며, 희생사실을 입증할 만한 국가기관의 공식 기록도 부재하거나, 사건의 객관적 정황마저 파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진실규명불능'으로 하였다.

323) 내무부 치안국, 『피납치자명부』(출간연도 미상): 월간조선, 『6·25납북자 82959명』, 2003; 공보처 통계국, 『월북자 명단』, 1951. 이 통계에는 경상남도에서 총 12명(여자 1명, 남자 11명)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 명단이 작성되어 있으나 거창군에는 해당자가 없다.

〈표 2〉 희생자 신원 및 확인 근거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산청군											
1	76	정임조 (鄭任朝)	남	52	1949.11. 중순	금서면 수철리 골짜기	정병길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³²⁴⁾	확인
2		정경조 (鄭敬朝)	남	59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정병길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3		정병선 (鄭炳善)	남	3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정병길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4		김종태 (金鍾泰)	남	2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김택수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5		김종렬 (金鍾列)	남	25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김봉수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6		김종철 (金鍾喆)	남	2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7		민영철 (閔泳喆)	남	2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8		김의열 (金義烈)	남	2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9		김의경 (金義景)	남	2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0		김의찬 (金義贊)	남	3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1		김의수 (金義洙)	남	18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2		김태수 (金泰洙)	남	14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3		김병은 (金炳殷)	남	1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4		곽상근 (郭相根)	남	22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곽노경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15	76	곽노숙 (郭盧叔)	남	1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곽노경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6		배쌍돌 (裴雙鬪)	남	48	1949.11.9.	오부면 일물리	배덕술 권수연 김택수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7		배덕출 (裴德出)	남	19	1949.11. 중순	수철리 골짜기	배덕술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8		노충환 (盧忠煥)	남	27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배덕술 권수연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19		권상근 (權相根)	남	33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권숙이 정병길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20		김의중 (金義鍾)	남	66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배덕술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사망신고	확인
21		김의섭 (金義燮)	남	50	위와 같음	위와 같음	배덕술 민중호	이병진 송제익 민영승	×	참고인 진술서	확인
22		338(1)	김인구 (金仁球)	여	20	1951.2.5.	시천면 내대리 판기마을 앞 논	정대교 김생이 김형순 박용운	정재근 김수태	○	사망신고 족보 산청군의회보고서 산청기초사실조사표 유족 김진태 전문
23	박근생 (朴根生)		남	24	1951.12.20.	시천면 내대리 야산		박용운 정대교 정재근 김진태	×	산청군의회보고서 족보 사망신고	확인
24	박우문 (朴又文)		남	38	1951.12.9.	시천면 내대리 경명도 골짜기	박용운	정대교 정재근 김진태	×	산청군의회보고서 족보 사망신고	확인
25	강우실 (姜又實)		남	45	1949.1.21.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		송용도 송호식 정도교 정태갑	○	제적등본 산청군의회보고서 유족 강영호 전문	확인
26	김종철 (金鍾喆)		남	50	1951.2.5.	삼장면 뒷산 (대포국민학교 인근)		박용운 정대교 정재근	×	산청군의회보고서 사망신고	확인
27	정오교 (鄭五敎)		남	26	1951.12.10.	시천면 내대리 청내마을	정대교	정재근	○	산청군의회보고서 족보 사망신고	확인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28	341	하주익 (河周益)	남	23	1950.12.19.	시천면 내공리	하주갑	이점수	○	사망신고	확인
29	374	홍진화 (洪鎭華)	남	67	1951.3.15	오부면 부곡리	김중분 홍중수 홍상택	심청남 문종별	○	사망신고	확인
30	649	홍창곤 (洪昌坤)	남	72	1951.3.15	오부면 부곡리	김중분 홍중수 홍상택	심청남 문종별	○	사망신고	확인
31	2283	권월봉 (權月鳳)	남	42	1950.4.2.	단성면 개당 앞산	권재모	강정수 권영달	○	족보 및 파보 사망신고	확인
32	4006	김병우 (金炳祐)	남	18	1949.9.20.	산청읍 모고리 야산		강상열 이무조	×	사망신고 유족 김병오 전문	확인
33	4352	임재문 (林在文)	남	46	1949.10. 초	함양경찰서		배한 임정규 배준근	×	사망신고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34	4412	민대식 (閔大植)	남	20	1950.10.25	오부면 매촌리	민성식	이성우 이윤우	○	사망신고	확인
35	4441	김상수 (金相洙)	남	17	1950.10.	미상	김성덕	김문수 오호연	×		확인
36	5264	강태수 (姜泰守)	남	48	1950.12.6	삼장면 흥계리	최연이 최삼수	정기영 강용순	○	사망신고	확인
37	6502	김임갑 (金任甲)	남	36	1949.12.28.	산청읍 모고리 야산		김제권 김수연	○	제적등본	확인
38	6863	황경준 (黃庚俊)	남	39	1949.8.8.	산청읍 모고리 야산		문종별 홍요봉	×	족보 사망신고 경찰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	확인
39		황죽천 (黃丑賤)	남	36	1949.8.8.	산청읍 모고리 야산		문종별 홍요봉	×	족보 사망신고	확인
40	7042	최명영 (崔明永)	남	23	1949.12.28.	산청읍 모고리 야산		김제권 김수연	○	사망신고	확인
41	7360	오인호 (吳仁鎬)	남	58	1949.8.19.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	김두태	김창운 송영수	○	제적등본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42	7394	양경순 (梁敬順)	여	72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사망신고	확인
43	7450	최우학 (崔又學)	남	48	1949.12.경	시천면 야산		안갑생 이정원	×	사망신고	확인
44	7451	김상근 (金尙根)	남	51	1949.7.9.	신안면 하정리 780	김판임 김병우	이남도 최정순	○	제적등본	확인
45	7453	배영선 (裵永簫)	남	46	1949.10. 초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배한 임정규	×	사망신고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46	7515	한윤생 (韓允生)	남	19	1950.11	미상	손팔막이 한명우		×		확인
47	7717	김차조 (金且祚)	남	37	1950.10.	산청읍 차탄리	김일선	김규정 박숙자	×		확인
48	7719	박우출 (朴又出)	남	39	1949.11. 하순	산청읍		김창운 송영수	×	제적등본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49	8145	문홍조 (文洪祚)	남	34	1950.10.	단성면 당산리	문도주	이문술	○	사망신고	확인
50	8315	송성서 (宋成序)	남	44	1949.9.24.	구 덕산지서 뒷산		안갑생 이정원 홍필언 이문달	×	사망신고 산청군의회보고서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51		송진호 (宋辰虎)	남	31	1949.9.24.	구 덕산지서 뒷산		안갑생 이정원 홍필언 이문달	×	사망신고 산청군의회보고서	확인
52	8321	오규환 (吳奎煥)	남	28	1949.11. 하순	산청읍		김창운 송영수	×	사망신고	확인
53	8735	조주환 (曹柱煥)	남	55	1951.12.	시천면 중산리	정영환	정윤종 조영규 조규태 조수환	○	제적명실확인원 족보	확인
54		강월선 (姜月善)	여	23	1951.12.	위와 같음	정영환	정윤종 조영규 조규태 조수환	○	제적명실확인원 족보	확인
55		조인현 (曹仁鉉)	남	1	1951.12.	위와 같음	정영환	정윤종 조영규 조규태 조수환	○		확인
56	8736	진재석 (陣在錫)	남	25	1949.12.28.	산청읍 모고리 야산		김제권 장기석	○	사망신고	확인
57	8827	박판대 (朴判大)	남	32	1949.11. 하순	산청읍		김창운 송영수	×	사망신고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58	8830	박완주 (朴完柱)	남	35	1949.11. 하순	산청읍		김창운 송영수	×	제적등본	확인
59	8901/ 9990	권세도 (權世道)	남	25	1951.2.5.	시천면 내대리 남대부락 야산		하재호 김야무 정대교	○	족보 사망신고	확인
60	9240	서금득 (徐今得)	남	39	1951. 가을	미상	서중운	김오현 김석홍 서기석	×	사망신고	확인
61	9241	서판준 (徐判俊)	남	32	1951. 가을	미상 ³²⁵⁾	서중운	김오현 김석홍 서기석	×	사망신고	확인

제 5 권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사신 수습	기타		
62	9248	권명이 (權命伊)	남	41	1950.7. 중·하순경	진주형무소 (진주시 산골짜기)		이호상 이종열 김점인	×	족보 사망신고 유족 권영호 전문 유족 권진혁 전문	확인	
63		권중명 (權中命)	남	35	1949.11.경	산청군 아산		이호상 이종열 김점인 권진혁	×	족보 사망신고 유족 권영호 전문 유족 권임순 전문	확인	
64	9378	권재만 (權載萬)	남	28	1949.9.20.	산청군 아산		강오석 권영부 권재모	×	족보 및 파보 사망신고	확인	
65	9882	김천수 (金千壽)	남	59	1949.8.19.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	김두태	김창운 송영수	○	제적등본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66		박고비 (朴古非)	여	56	1949.8.19.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	김두태	김창운 송영수	○	제적등본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67	10325	정화석 (鄭華錫)	남	25	1949.9.경	산청경찰서		정택시 정환석	×	족보 사망신고 경찰 보안기록 조회 회보서	확인	
68	10670	민만호 (閔萬鎬)	남	33	1949.11.1.	덕산 소재 국민학교		민치학 김우점 달	×	사망신고	확인	
69	10676	김명준 (金命俊)	남	28	1949.4. 초·중순경	전북 남원		권복순 정정자	×	산청군의회보고서 사망신고	확인	
70	10677	장재호 (張在鎬)	남	32	1949.12.28.	산청읍 모고리 아산		김제권 김수연 박계순 김병득	○	제적등본	확인	
함양군												
71	951	정위상 (鄭瑋相)	남	17	1950.10.	미상	노성기 장창렬 정종렬 정기상 정일상		×	직권제적 (2002.7.23 창원 지원) 족보(1951년 행방 불명) 기재	확인	
사천시												
72	9853	이철래 (李喆來)	남	27	1949. 봄	미상	김두이	이필구 김학선	×	사망신고	확인	
73	9854	김학수 (金學守)	남	28	1949. 봄	미상	김두이	이필구 김학선	×	사망신고	확인	
74	9992	류하영 (柳河永)	남	18	1949.11.5.	사천시 용현면 송지리	류기영	정록배	○	사망신고	확인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고성군											
75	마-9872	최연갑 (崔然甲)	남	28	1950.10.	고성군 개천면 원동골	최정수 최낙천	최용판 이장열	○	사망신고	확인
거창군											
76	358(2)	정동해 (鄭東海)	남	30	1950.12.10.	북상면 갈계리 중산마을		임영철	○	제적멸실확인원 족보	확인
77	358(2)	정을해 (鄭乙海)	남	25	1950.12.10.	북상면 갈계리 중산마을		임영철	○	제적멸실확인원 족보	확인
78	358(2)	정관해 (鄭寬海)	남	21	1950.12.10.	북상면 갈계리 중산마을		임영철	○	제적멸실확인원 족보	확인
79	358(2)	박시남 (朴時南)	여	41	1951.2.18	신원면 과정리	엄석주 김창용		○		확인
80	358(2)	최진순 (崔鎭順)	여	26	1951.1.21.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1	358(2)	김철주 (金喆注)	남	29	1951.1.21.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2	358(2)	김창수 (金昌洙)	남	30	1951.1.22.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3	358(2)	김창식 (金昌植)	남	28	1951.1.22.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4	358(2)	김판금 (金判金)	남	32	1951.1.22.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5	1282	이득술 (李得術)	남	57	1951.3.16.	북상지서		곽목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6	5682	김점순 (金点順)	여	40	1951.11.21.	북상면 소정리 자택	전양수 김두만		○	제적멸실확인원	확인
87	3726	김종락 (金鍾洛)	남	22	전쟁 중 행불	미상		이필남 신용달			불능
거제시(당시 통영군)											
88	5626	강정길 (姜正吉)	남	23	1949.5.	일운면 구조라리	이만복		○	사망신고	확인
미신청사건											
89	미신청	이숙이 (李淑伊)	여	68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사망신고	확인
90	미신청	최완준 (崔完俊)	남	39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사망신고	확인
91	미신청	김옥숙 (金玉淑)	여	73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사망신고	확인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92	미신청	최낙서	남	68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확인
93	미신청	박매기택 (최낙서 의 처)	여	60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확인
94	미신청	최낙서의 외손녀	여	7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확인
95	미신청	최낙서의 외손자	남	4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확인
96	미신청	손현래의 누나	여	24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확인
97	미신청	홍우곤 (洪羽坤)	남	68	1951.2.12	오부면 대현리	송규선 송병익 권은근	박한식 최명관	○	사망신고	확인
98	미신청	김복례 (金福禮)	여	57	1951.2.5.	시천면 내대리 판기마을 793	정대교 김생이	정재근 김진태 김형순	○	사망신고 산청군의회보고서 산청기초사실조사표 유족 박용운 전문	확인
99	미신청	서차임 (徐且林)	여	79	1951.2.5.	시천면 내대리 판기마을 548	정대교 김생이	정재근 김형순	○	산청군의회 보고서	확인
100	미신청	김재범 (金在凡)	남	55	1951.2.5.	시천면 내대리 판기마을 798 인근	김생이 김형순 정대교		○	사망신고 족보 산청기초사실조사표	확인
101	미신청	박원희 (朴元熙)	남	18	1951.12.9.	시천면 내대리 경명도 골짜기	박용운	정대교 정재근	×	사망신고	확인
102	미신청	이영수 (李英秀)	남	59	1951.12.10.	시천면 내대리 청내마을	정대교	정재근	○	사망신고 산청군의회보고서	확인
103	미신청	하점구 (河点九)	여	55	1951.12.10.	시천면 내대리 청내마을	정대교		○	사망신고 산청군의회보고서	확인
104	미신청	김주생 (金柱生)	남	43	1949.12.28.	산청읍 모고리 야산		김제권 장기석	○	제적등본 유족 김병득 전문	확인
105	미신청	김타관	남		1949.10. 초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배한 임정규 배춘근	×		추정
106	미신청	이두철	남		1949.10. 초	함양군 함양읍 이은리 당그래산		배한 임정규	×		추정
107	미신청	정기석 (鄭基錫)	남	35	1949.9.경	산청경찰서		정환석 (연행 목격)	×	사망신고 족보	추정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대상자					판단 근거				확인
		성명 (한자)	성별	당시 나이	사망연월일	사망장소	목격자 진술	제3자 전문	시신 수습	기타	
108	미신청	김영현	남	27	1949. 봄	미상	김두이	이필구 김학선	×		확인
109	미신청	정갑수의 처	여	27	1951.1.22.	북상면사무소 근처	이용희	김재철	○		확인
총계		총 109명(확인 105명, 추정 3명, 불능 1명)									

2) 희생자의 특징

희생자는 대부분이 남자이나 여자도 16명이 포함되어 있다. 남자들은 군경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를 받아 희생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산간마을의 경우 대부분의 성인 남자들은 잠재적인 빨치산 협조자로 인식되어 토벌대에 의해 체포·구금·살해되었는데, 수복 이후에는 인민군 점령 당시 부역혐의로 불법살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여자들의 경우, 빨치산 부역혐의뿐만 아니라 소개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다는 이유로 토벌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살되었고, 부역혐의가 있는 남편 대신 살해되기도 하였다.

희생자의 대부분은 20~40대 청장년층이지만 50~70대 노인층도 25명이 포함되어 있고, 10대 및 10세 이하도 14명이나 포함되어 있다. 노인들의 경우 군경 토벌 시 소개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 있던 중 토벌대에 의해 살해되거나, 피란 시 토벌대에 의해 구타당하여 사망하기도 했다. 어린 아이들은 부모 혹은 조부모와 함께 마을에 남아 있거나, 피란 중에 어른들과 함께 토벌대의 총에 희생되었다.

나. 가해주체 및 가해의 지휘·명령계통

1) 국군

정부는 여순사건 이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지리산 일대에 호남방면전투사령부(북지구사령관 원용덕, 남지구사령관 김백일 : 1948. 10. 30.~11. 30.), 호남·지리산지

324) '사망신고'는 제적등본에 사망 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을 뜻한다. '제적등본'은 제적등본에 기재된 사망시기·장소 등 사망 관련 내용이 본 조사결과와 희생시기·장소 등 희생 관련 내용과 일치하거나 유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25) 서금득, 서관준은 금서면 화계지서에서 한 달가량 고문 등을 받다가 산청경찰서로 이송되어 감금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정황상 산청 인근에서 처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전투사령부(사령관 원용덕·정일권 : 1949. 3. 1.~5. 9.), 지리산지구 전투사령부(사령관 김백일 : 1949. 9. 28.~1950. 3. 15.) 등을 설치하여 14연대 반군과 빨치산 등을 토벌하였다. 토벌작전에 투입된 부대는, 3연대(연대장 : 함○○ 중령)³²⁶, 5연대(연대장 : 장○○ 중령)³²⁷, 17연대(연대장 : 백○○ 중령) 3대대(대대장 : 오○○ 소령)³²⁸, 20연대(4연대의 재편), 23연대 1대대(대대장 : 김○○ 소령), 9연대, 19연대, 서울유격대(일명 김○○ 부대)³²⁹, 해병대(일명 김○○ 부대) 등 최소 9개 부대³³⁰였다. 이 외에 치안국도 1949년 9월 25일 지리산지구전투경찰대(부대장 : 최치환 총경)를 남원에 설치하여 1950년 2월 28일까지 육군과 합동으로 토벌작전을 전개했다.³³¹

한편 거제도에서는 16연대와 호림부대가 투입되어 야산대토벌작전을 수행하게 하였다. 16연대는 국본 일반명령에 의거, 3여단 예하의 마산 15연대를 기간으로 하여 1948년 10월 28일에 창설되었으며, 창설 당시 연대장은 박시창이었다. 16연대 사령부는 1949년 3월 5일, 김○○³³² 소령을 부대장으로 하는 ‘거제지구 전투부대’를 토벌군으로 파견하였다. 또

326) 연대 정보과장 : 김○○ 대위, 1대대장 : 박○○·양○○ 소령, 2대대장 : 조○○ 소령, 3대대장 : 한○○ 소령, 2대대 정보참모 : 정○○, 2대대 보급관 : 홍○○, 3대대 정보참모 : 김○○, 8중대장 : 지○○, 9중대장 : 서○○ 대위. 『장교자력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한웅진』(HA027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주남경』(HA0401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최석용』(HA0249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백병순』(HA02079); 산청군의회(시천·삼장면양민학살사건청원심사특별위원회진상조사반), 『산청(시천·삼장)양민학살사건진상조사실태보고서』, 2000, 68~69쪽; 참고인 서○○, 진술조서(2007. 11.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산청 시천·삼장 민간인 희생사건』, 『2007년 하반기 조사보고서(2007. 7. 1.~2007. 12. 31.)』, 2008, 702~708쪽; 참고인 양○○, 통화보고서(2008. 2. 11.); 참고인 차○○, 면담보고서(2008. 8. 25.).

327) 1대대장은 소령 임○○이었으며, 동원된 대대는 1개 대대였다. 부산일보, 1948. 12. 30.·1949. 1. 11.·1949. 1. 20.·1949. 2. 8.; 『장교자력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한웅진』(HA02700);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김재춘』(HA00156);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권재수』(HA0085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 하갑청』(HA04050); 장도영, 『망향』, 숲속의 꿈, 2001, 178~179쪽.

328) 대대장 오○○은 ‘거창사건’ 당시 11사단 9연대장으로 민간인 집단희생을 주도한 인물이다.

329) 서북청년회 출신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1948년 11월 25일에 육군총사령부 직할로 ‘육군수색학교’(교장 김○○)라는 이름으로 편제되었으며, 1949년 1월 31일에 경남 산청으로 이동, 5여단장의 통제 하에 빨치산 토벌에 합류할 것을 명령받아 토벌작전을 펼쳤다. 이때 서울에서 파견된 부대라는 의미에서 ‘서울유격대’로 불리었으며, 김○○가 부대장으로 이 부대를 이끌었다. 산청 일대에서의 토벌이 끝난 후 같은 해 7월 15일에 5사단에 편입, 호남지구의 빨치산 토벌을 담당하면서 ‘독립제1대대’로 개칭하였다.

330) 『장교자력표』: 육군본부, 『공비토벌사』, 1954;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 해방과 건군(1945~1950.6)』(제1권), 196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증언록』: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331) 大韓民國 參戰警察有功者會 경찰전사편찬위원회 편저, 『아~ 살아있다! 大韓民國 警察의 魂』, 月刊朝鮮社, 2003, 328~329쪽.

332) 김○○은 육사 2기 출신(군번 10234)으로, 1946년 12월 14일에 입대, 1949년 3월 1일에 소령으로 진급한 직후인 3월 16일에 16연대로 전출한 것으로 확인된다. 『장교임관순대장』: 『장교자력표』.

한 1949년 2월 25일에 월남한 서북청년단원을 중심으로 북파를 목적으로 창설된 육본 정보국 소속 호림부대는 창설되자마자 '거제파견대'라는 이름으로 거제에 파견되어 북파훈련을 목적으로 토벌작전을 벌였다. 부대장은 신의주 출신으로 서북청년단원이었던 강○○이었다.

한국전쟁 이후에는 11사단과 백야전 전투사령부가 설치되어 후방안정작전의 일환으로 토벌작전을 펼쳤다.

○ 11사단(1950. 10. 1.~1951. 3. 12.)

9·28수복 직후 창설된 11사단(사단장 : 최덕신)은 9, 13, 20연대 등 3개 연대가 예하에 있었는데, 경상남도 수복 및 토벌작전은 9연대가 주로 담당하였으며, 사단장(최덕신)↔국방장관(신성모)↔대통령(이승만)으로 지휘체계가 성립되어야 하나, 한국전쟁 발발 직후 한국정부의 작전지휘권 이양으로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행사하였다.

사건과 직접 관련된 지휘 명령계통은 사단장↔연대장↔대대장↔중대장↔소대장↔사병이고, 사단장은 가해의 직접 책임자로서 명백한 지휘책임이 있다. 또한 사단장은 육군참모총장과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군정과 군령상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지휘책임 역시 면할 수 없으며, 헌법상의 군 통수권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표 3〉 국군 제11사단 지휘관 및 인적 사항³³⁴⁾

부대	직책	지휘관 이름	비고
11사단	사단장	육군준장 최덕신	1950. 9. 25 초대사단장 부임
20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박○○	1950. 9. 25~1951. 2. 28.
		육군대령 박○○ ³³³⁾	1951. 3. 이후
13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유○○	1950. 11. 6 이전
		육군대령 최○○	1950. 11. 7 이후
9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김○○	1951. 1. 22 이전
		육군대령 오○○	1951. 1. 23 이후

333) 박○○의 경우 11사단 사건과 관련하여 현재 생존해 있는 최고 지휘관으로서, 위원회에서는 중요한 지휘 명령체계상의 인물이라고 판단, 면담을 시도하였으나, 자신의 작전지역 내에서 이루어진 최소 6개 사건에 대해서 기억이 없으며, 자신이 20연대장 명령을 받은 날짜와 동일한 시기에 복무했던 정보참모, 작전

제 5 권

○ 백야전 전투사령부(1951. 11. 30.~1952. 3. 15.)

육군본부는 후방지역 군사시설 보호와 군 보급로의 정리, 치안질서 유지를 위하여 호남지역의 빨치산을 섬멸할 목적으로 군 2개 사단, 즉 수도사단(사단장 : 송요찬 준장)³³⁵과 8사단(사단장 : 최영희 준장)³³⁶을 특수임무부대로 편성하고, 백선엽 준장(당시 1군단장)을 사령관으로 임명하였다.

백야사는 육군본부 작전지시(113호)에 의거, 1951년 11월 25일 대구에서 진주로 이동하고, 11월 26일부로 서남지구전투사령부(사령관 : 김용배 준장)로부터 토벌임무를 인수함과 동시에 이 사령부에 배속되었던 부대, 즉 1·2·9 경비대대와 107·110·117 예비연대를 지휘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남지구전투사령부, 남원치안국전방사령부(사령관 최치환 경무관), 태백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이성우 경무관), 지리산지구전투경찰사령부(사령관 신상묵 경무관) 등 전투경찰 병력도 백야사에 소속되었다. 백야사에 예속된 부대는 사단급 이상 부대 3개, 전투경찰연대 4개, 전투경찰대대 7개, 지원부대 3개 등이다.³³⁷

각 부대 지휘관은 백야사 사령관의 지휘를 받으며, 대통령↔국방부장관↔백야사 사령관으로 이어지는 임명체계를 갖는다.

2) 경찰

조사결과, 본 사건 당시 경남지역 경찰은 각 지서주임↔각 경찰서장↔경상남도 경찰국장↔치안국장↔내무부장관↔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다. 예를 들면 산청경찰서의 경우, 각 지서주임↔산청경찰서장↔경남도경국장↔치안국장↔내무부장관↔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지휘·명령체계와 보고 체계를 갖고 있었다.

참모, 연대본부의 위치 등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토벌 당시 사단회의 내용이나 공간사에 20연대장 재임 시 남해여단 토벌성과로 미국으로부터 훈장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벌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박○○으로부터 11사단 20연대의 토벌작전의 구체적인 내용은 한 건도 확인할 수 없었다. 참고인 박○○, 면담보고서(2009. 6.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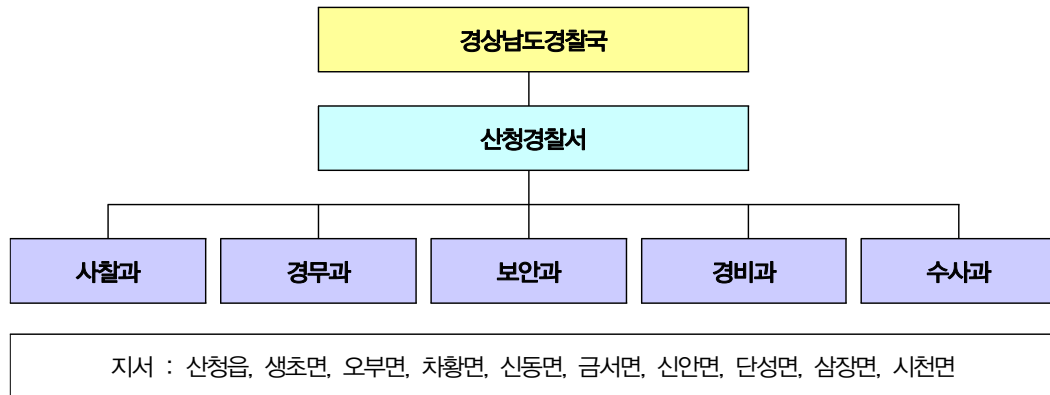
334) 『장교자력표』: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68쪽; 보병 제11사단, 『화랑약사』, 1976, 64쪽.

335) 수도사단 예하 동원부대와 부대장은 다음과 같다. 기갑연대(이 ○), 1연대(박○○), 26연대(이○○).

336) 8사단 예하 동원부대와 부대장은 다음과 같다. 10연대(정○), 16연대(이○○), 21연대(전○○).

337)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대비정규전사』, 1988, 187~190쪽.

〈표 4〉 산청경찰서 지휘체계도



산청경찰서 등은 토벌군이 구성되면 군대와 합동작전을 펼쳤다. 각 마을에 대한 토벌 시 마을주민의 좌익 동향을 파악하고 있던 사찰과가 주로 동원되어 주민검거와 길 안내 등을 맡았고, 경비과와 보안과뿐만 아니라 경무과도 동원되었다. 전쟁 발발 이후에는 의용경찰을 조직, 토벌대를 지원하는 임무를 띠었다.

산청경찰서의 경우, 1개 읍과 10개 면에 지서를 두고 있었다. 보통 지서의 경우 정식경찰 3~5명, 의용경찰 10~20명 정도가 있었는데 삼장면, 시천면, 금서면 등 빨치산 세가 강한 곳에는 의용경찰이 40~50명에 이르기도 하였다. 의용경찰의 무장은 주로 38식과 99식이었으며³³⁸⁾, 소련제 등 노획무기가 지급되기도 하였는데, 수복 이후에는 미군에 의해 무기와 군복 등이 지급되기도 하였다.

조사결과, 사건 해당 시기의 산청경찰서장은 경감 김○○(金○○, 1948. 7. 31.~1949. 4. 15.)·경감 문○○(文○○, 1949. 4. 15.~1949. 5. 25.)·경감 문○○(文○○, 1949. 5. 25.~1949. 7. 26.)·경감 조○○(趙○○, 1949. 7. 26.~1949. 12. 3.)·경감 정○○(鄭○○, 1949. 12. 3.~1950. 10. 23.)·경감 권○○(權○○, 1950. 10. 23.~1951. 8. 25.)·경감 박○○(朴○○, 1951. 8. 25.~1953. 1. 28.)·경감 곽○○(郭○○, 1953. 1. 28.~1953. 6. 29.)으로 확인되었다. 함양경찰서장은 경감 김○○(金○○, 1950. 11. 4.~1951. 8. 25.), 사천(삼천포)경찰서장은 경감 임○○(林○○, 1948. 6. 29.~1949. 6. 8.), 고성경찰서장은 경감 손○○(孫○○, 1950. 5. 10.~1950. 10. 20.), 경감 우○○(禹○○, 1950. 10. 20.~1951. 8. 25.), 거창경찰서장은 경감 김○○(金○○, 1950. 8. 25.~1951. 4. 5.), 거제경찰서장은 경감 유○○(劉○○, 1949. 2. 4.~

338) 참고인 김○○, 통화보고서(2009. 11. 19.).

1949. 5. 3.), 경감 김○○(金○○, 1949. 5. 4.~1949. 8. 25.)로 확인되었다.

한편, 경상남도 경찰국장은 경무관 이익흥(李益興, 1948. 9. 21.~1949. 6. 12.)·경무관 최철용(崔喆龍, 1949. 6. 13.~1950. 4. 26.)·경무관 이동철(李東喆, 1950. 4. 27.~1950. 7. 26.)·경무관 최천(崔天, 1950. 7. 27.~1950. 11. 2.)·경무관 이성주(李成株, 1950. 11. 3.~1951. 3.)·경무관 이동철(李東喆, 1951. 4. 27.~1952. 6. 26.)·경무관 박형배(朴炯培, 1952. 6. 27.~1953. 7. 10.)로 확인되었다.³³⁹⁾

다. 가해의 위법성 여부

당시 좌익활동 혐의자 또는 좌익사상 소지 혐의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으로는 (구)형법, 국방경비법, (구)국가보안법 등이 있었다. 이 중 국방경비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에서, (구)형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아 형을 집행하도록 하는 실체적, 절차적 규정이 있었다.

본 사건의 희생자들은 대부분 빨치산이나 인민군 점령 시 이들로부터 생명을 위협받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협력할 수밖에 없었던 평범한 주민들이었다. 토벌 군경은 이들에 대해 토벌 작전의 명분으로, 그리고 빨치산과 인민군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좌익으로 취급하고 법적 절차 없이 살해하였으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위법행위이다.

본 사건의 부역혐의 희생자들은 앞서 언급한 바대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형금지법을 선포하고, 자수자에 대해 부역자 불처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절차 없이 살해되었다.

사형(私刑)금지법(1950. 12. 1. 공포)은 “역도 또는 부역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이유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수속 또는 재판을 경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생명, 신체, 자유, 재산에 침해를 가함”을 사형으로 규정(2조)하고, “군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가 비상사태를 빙자하여 사형을 감행하거나 사형을 명령 또는 용인하였을 경우에는 … 처벌한다”(3조)라고 못 박고 위반자에 대한 형량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여기서 ‘군사 또는 치안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란 군인, 경찰관뿐만 아니라 청년방위대원, 자위대원 등도 포함(3조 2항)함으로써 이들도 국가공권력의 하나였음과 이들의 책임이 국가에 귀속됨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본 법은 계엄지구 내에서도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한다”(4조)고 명시하여 법률적으로는 사형금지를 엄격히 적용할 것임을 천명하였음에도 불

339) 內務部治安局, 『韓國警察史』(Ⅱ), 1973, 1392~1401쪽; 在鄉警友會 慶尙南道支部, 『慶南警友45年史』, 1993, 130~131쪽·386쪽·434쪽·445쪽·491쪽·543쪽·567쪽.

구하고, 정당한 절차 없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즉결처형된 사례가 빈번하였는데, 특히 지리산 일대처럼 미수복지구로 알려진 지역의 경우 그 정도가 심하였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인민군 치하에서 인민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단체 가입과 의용군 징집 등에 불가피하게 참여했던 주민들에 대해 수복 후 자수서(또는 자술서)를 쓰게 하였다. 전직 경찰 등은 이들을 석방시켰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실은 자의적인 심사를 통해 적법절차 없이 즉결처형을 하는 경우가 흔했다. 경찰 외에도 부역혐의자는 토벌군에 의해서, 그리고 경찰의 지시를 받는 사찰유격대 등에 의해 처리되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시 부역자처리는 군과 경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즉 수복지구에 진입한 군은 특무부대나 정보부대 등을 통해 부역자 색출과 처형을 하였으며, 경찰은 자체적으로 부역자 명부를 작성, 이를 토대로 부역혐의자를 처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군과 경찰 등 국가공권력이 사법절차 없이 민간인을 살해한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바, 토벌군이 사건 당시 희생자를 모두 적법한 심사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총살시킨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이처럼 국가기관의 하나로 공권력을 행사하는 군과 경찰이 비무장의 민간인을 빨치산 활동 및 좌익 협조 등의 이유로 비교전상태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살한 행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생명권과 적법절차 원칙, 재판받을 권리(헌법 제22조)를 침해한 것이다.

Ⅲ. 결론 및 권고사항

1. 결론

가. 진실규명 결정

○ 정임조 등 경상남도 산청·함양·사천·고성·거창·거제지역 주민 108명이 한국전쟁을 전후하여 좌익활동 혐의·군경 토벌작전·부역혐의 등으로 작전지역 또는 관할 지역의 국군과 경찰 등에 의해 적법절차 없이 희생된 사실을 확인 또는 추정하였다.

○ 한국전쟁 발발 이전 산청군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오부면 일몰리의 21명 집단희생을 포함하여 총 49명이며, 3명은 희생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자는 정임조(鄭任朝), 정경조(鄭敬朝), 정병선(鄭炳善), 김종태(金鍾泰), 김종렬(金鍾列), 김종철(金鍾喆), 민영철(閔泳喆), 김의열(金義烈), 김의경(金義旻), 김의찬(金義贊), 김의수(金義洙), 김태수(金泰洙), 김병은(金炳殷), 곽상근(郭相根), 곽노숙(郭盧叔), 배쌍돌(裴雙鬪), 배덕출(裴德出), 노충환(盧忠煥), 권상근(權相根), 김의중(金義鍾), 김의섭(金義燮 · 이상 다-76호), 강우실[姜又實, 다-338(1)], 권월봉(權月鳳 · 다-2283호), 김병우(金炳祐 · 다-4006호), 임재문(林在文 · 다-4352호), 김임갑(金任甲 · 다-6502호), 황경준(黃庚俊 · 다-6863호), 황축천(黃丑賤 · 다-6863호), 최명영(崔明永 · 다-7042호), 오인호(吳仁鎬 · 다-7360호), 최우학(崔又學 · 다-7450호), 김상근(金尙根 · 다-7451호), 배영선(裴永謙 · 다-7453호), 박우출(朴又出 · 다-7719호), 송성서(宋成序 · 다-8315호), 송진호(宋辰虎 · 다-8315호), 오규환(吳奎煥 · 다-8321호), 진재석(陣在錫 · 다-8736호), 박판대(朴判大 · 다-8827호), 박완주(朴完柱 · 다-8830호), 권중명(權中命 · 다-9248호), 권재만(權載萬 · 다-9378호), 김천수(金千壽 · 다-9882호), 박고비(朴古非 · 다-9882호), 정화석(鄭華錫 · 다-10325호), 민만호(閔萬鎬 · 다-10670호), 김명준(金命俊 · 다-10676호), 장재호(張在鎬 · 다-10677호), 김주생(金柱生, 이명 : 김집중 · 미신청)이다. 희생된 것으로 추정된 자는 김타관(미신청), 이두철(미신청), 정기석(鄭基錫, 미신청)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사천사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이철래(李喆來 · 다-9853호), 김학수(金學守 · 다-9854호), 류하영(柳河永 · 다-9992호), 김영현(미신청) 등 4명이다.

한국전쟁 발발 이전 거제사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강정길(姜正吉 · 다-5626호) 1명이다.

○ 한국전쟁 발발 이후 산청군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총 37명으로 하주익(河周益 · 다-341호), 홍진화(洪鎭華 · 다-374호), 홍창곤(洪昌坤 · 다-649호), 양경순(梁敬順 · 다-7394호), 이숙이(李淑伊 · 미신청), 김옥숙(金玉淑 · 미신청), 최완준(崔完俊 · 미신청), 최낙서(미신청), 박매기택(미신청), 최낙서의 외손녀(성명불상 · 미신청)와 외손자(성명불상 · 미신청), 손현래의 누나(성명불상 · 미신청), 홍우곤(洪羽坤 · 미신청), 민대식(閔大植 · 다-4412호), 서금득(徐今得 · 다-9240호), 서판준(徐判俊 · 다-9241호), 한윤생(韓允生 · 다-7515호), 문홍조(文洪祚 · 다-8145호), 조주환(曹柱煥 · 다-8735호), 강월선(姜月善 · 다-8735호), 조인현(曹仁鉉 · 다-8735호), 강태수(姜泰守 · 다-5264호), 김차조(金且祚 · 다-7717호), 김상수(金相洙 · 다-4441호), 김인구(金仁球), 박근생(朴根生), 박우문(朴又文), 김종철(金鍾喆), 정오교[鄭五敎 · 이상 다-338(1)호], 권세도(權世道 · 다-8901 · 9990호), 권명이(權命伊 · 다-9248호), 김복례(金福禮 · 미신청), 서차임(徐且林 · 미신청), 김재범(金在凡 · 미신청), 박원희(朴元熙 · 미신청), 이영수(李英秀 · 미신청), 하점구(河点九 · 미신청)이다.

함양군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정위상(鄭瑋相·다-951호) 1명이다.

고성군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최연갑(崔然甲·마-9872호) 1명이다.

거창군에서 확인된 희생자는 정동해(鄭東海), 정을해(鄭乙海), 정관해(鄭寬海), 박시남(朴時南), 최진순(崔鎭順), 김철주(金喆注), 김창수(金昌洙), 김창식(金昌植), 김판금[金判金·이상 다-358(2)호], 이덕술(제적등본상 李得術·다-1282호), 김점순(金点順·다-5682호), 정갑수의 처(성명불상·미신청) 등 12명이다.

이상 한국전쟁 전후 산청군을 비롯한 경상남도 6개 지역에서 본 사건으로 군경에 의해 희생된 희생자는 확인 105명·추정 3명으로, 총 108명이다.

○ 본 사건의 가해주체는 ① 한국전쟁 전에는 여순사건의 수습을 위해 구성된 호남방면 전투사령부와 지리산지구전투사령부 등의 예하 부대, 즉 국군 제3연대·5연대·9연대·16연대·17연대 3대대·19연대·20연대(4연대의 재편)·23연대 1대대·독립유격대대·해병대(일명 김○○ 부대)·호림부대 등과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이며, ② 한국전쟁 이후에는 국군 제11사단 제9연대·백야전 전투사령부와 본 사건 관련 지역 경찰서 및 사찰유격대 등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사건에 대한 1차적인 가해 책임은 본 사건의 발생지역에서 토벌작전을 수행한 국군과 관련 지역 경찰서 및 경상남도경찰국 등에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공권력의 불법 행사를 감시·방지하지 못했던 국가에게 책임이 있다.

○ 이들 사건에서 군경의 민간인에 대한 가해행위는 위법한 것이었다. 국군과 경찰은 민간인을 좌익활동 및 빨치산 협조 혐의와 부역혐의 등으로 불법연행·감금·구타·고문·살해하였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인 생명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불법행위였다.

○ 본 사건은 국방부의 지휘·명령·감독 아래에 있는 국군과 내무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경찰이 공권력을 오·남용하거나, 불필요하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하였다. 그러므로 본 사건의 최종 책임은 군경의 폭력을 통제·예방하지 못한 국가에 귀속된다.

나. 진실규명불능

진실화해위원회는 경상남도 거창군 마리면 주민 김동락의 희생사실을 조사하였으나, 불법적인 공권력에 의하여 희생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진실규명이 불가능하였다. 진실규명불능자는 김동락(호적상 金鍾洛·다-3726호) 1명이다.

2. 권고사항

본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었으므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화해를 위하여 국가가 취해야할 조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가. 국가의 공식사과

국가는 한국전쟁을 전후로 이들 6개 지역에서 군경이 다수의 비무장 민간인들을 좌익 활동 혐의·군경 토벌작전·부역혐의 등을 이유로 불법적으로 살해한 것에 대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나. 위령사업 지원

국가와 경상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위령제 봉행 등 유족들이 희생자에 대한 위령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 정정

희생자들의 제적부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사망일시·장소가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었다. 국가는 유족들이 원할 경우 법적·제도적 절차를 통해 제적부 와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대한 정정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공식 역사기록의 등재 및 정정

국가와 경남남도 등 관련 지방자치단체는 ‘경남 산청·거창 등 민간인 희생사건’의 내용을 『경남도지』·『산청군지』등 각종 공식 간행 기록물과 군경의 공식 역사기록물에 추가하고, 잘못 기술된 부분을 정정해야 한다.

마. 평화 인권교육 강화

국가는 군인과 경찰을 대상으로 전쟁 중 민간인 보호에 관한 법률과 국제인도법 교육을 실시하는 등 전시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첨부자료

〈별표 1〉 신청인 주요 진술내용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산청군								
1	76	정병길 (1943)	정임조	부친	2009.1.19. 진실화해위원회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11월 2일(음 9월 23일) 마을의 공터에서 버 타작을 하고 있는데 군인과 경찰이 마을로 진입하여 부친 정 임조를 포함, 마을의 성인 남자 5~6 명을 포승줄로 묶어 끌고 갔음. • 바깥 일몰까지 포함하여 총 24명의 성인 남자가 끌려갔으나 처형장소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신수습을 하지 못함. • 사건 당일 군경이 마을 집집마다 불을 지름.
		곽노경 (1935)	곽상근 곽노숙	삼촌 형	2006.11.30. 산청군 오부면사무소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늦은 가을 무렵 아침녘에 군인과 경찰이 집에 찾아와 삼촌과 형님을 나오라고 해 마을주민 20여 명과 함께 굴비 엮듯이 묶어서 어디론가 데리고 갔음. • 어른들 말에 의하면 토벌군이 김종원이 부대라고 했음. • 연행장소를 알지 못함.
		권숙이 (1943)	권상근	부친	2006.11.30. 산청군 오부면사무소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음력 9월 무렵 새벽녘에 경찰 3명이 와서 타작을 하고 있던 부친 권상근을 연행하여 데리고 감. • 동네사람들로부터 부친이 마을사람들과 함께 산청경찰서로 끌려갔다고 하는 것을 들음. • 이후 트럭에 실려 모처에서 총살되었다는 얘기를 들음.
		김봉수 (1937)	김종렬	부친	2006.11.30. 산청군 오부면사무소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이 14세 때 군인들과 경찰들이 합동해서 집집마다 총으로 위협하면서 사람들을 끌어냈음. • 부친 김종렬이 산청경찰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으나 어디서 죽었는지는 모름.
		박갑연 (1939)	김태수	시조카	2006.11.30. 산청군 오부면사무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댁 큰 어머니가 키우던 김태수가 동네사람들과 함께 끌려갔다고 함. 정확한 사건발생일시를 알 수 없음. • 골짜기에 산다는 이유로 빨갱이인 줄 알고 끌고 갔다고 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	76	배덕술 (1934)	배쌍돌 배덕출	부친 형	2010.1.12. 산청군 오부면 일몰리 자택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늦가을 무렵, 가마실에서 토벌하러 올라오던 군인들에 의해 아버지 배쌍돌이 사살당하였으며, 형 배덕출은 마을사람들과 함께 잡혀갔음. • 군인과 경찰이 합동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군인의 소속은 알지 못하나 경찰은 산청경찰서 소속이었음.
2	338(1)	박도일 (1948)	김인구	모	2006.11.28.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 김인구(여, 20세, 시천면 내대리 거주, 농업)는 한국전쟁 전후 음력 선달 그믐날(제사일 : 음력 12월 28일) 내대리 판기마을 큰집에 설을 쇠러 갔다가, 판기마을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 앞에 집결된 후, 국군 3연대의 총격으로 판기마을 앞에서 총살됨. 본 사건 직후 국군 3연대는 판기마을을 방화하여 집안에 있던 진술인의 조부·조모가 국군의 방화로 희생됨.
		박도열 (1949)	박근생	부	2007.8.6.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박근생(남, 23세, 시천면 내대리 거주, 농업)은 한국전쟁 전후(제사일 : 음력 11월 21일) 이장이 마을어른들을 내대리 판기마을 소재 바위로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그곳에서 희생됨.
		박용운 (1934)	박우문	부	2007.8.6.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2010.4.14. 사천시 참고인 자택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목격	진술 조서 진술 녹취록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박우문(남, 38세, 시천면 내대리 판기마을 거주, 목공예업)은 1951년 12월 9일경(제사일 : 음력 11월 10일) 동생 박원희(이명 : 근생, 남, 18세)와 함께 내대리 판기부락에서 1km 정도 이격된 경명도 야산 작업장에 있다가, 국군(10여 명 규모)에 의해 박원희와 함께 작업장 앞으로 끌려 나가 집단총살당함.
		배복순 (1938)	강우실	시부	2007.8.6.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부 강우실(남, 46세, 시천면 천평리 상지마을 거주, 농업)은 1950년 2월 9일(1949년 음력 12월 23일, 제사일 : 12월 22일)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산에 나무하러 가서 취침을 위해 시천면 내대리 지인의 집에 갔는데, 화장실에 갔다가 집 근처에 진입한 국군 제3연대에 의해 사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김진태 (1939)	김종철	부	2010.4.13. 부산시 해운대구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김종철(남, 49세, 시천면 내대리 세석마을 거주, 한약방 운영)은 1949년 음력 선달 그믐날(제사일 : 음력 12월 28일) 덕산 장에 가는 길에 국군에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격,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	338(1)	김진태 (1939)	김종철	부	2010.4.13. 부산시 해운대구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의해 연행된 후 트럭에서 실려 삼장면 뒷산(대포국민학교 인근 야산)으로 끌려가 국군에 의해 집단총살당함.
		정의선 (1949)	정오교	부	2007.6.13.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2010.5.12.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정오교(이명: 문교, 남, 25세, 시천면 내대리 청내마을 거주, 농업)는 부모님이 연로한 관계로 국군에 의해 소개된 청내마을 거주지에 남아 있었는데, 1950년 12월 20일(제사일 : 음력 11월 11일) 청내마을 거주지에서 국군에 의해 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3	341	하주갑 (1921)	하주익	동생	2007.8.30. 산청군청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겨울 무렵, 시천면 내공리에 서 국군들이 집에 불을 지르자 이를 끄던 하주익이 군인들의 총에 맞아 죽었음. •가슴에 총 맞은 시신을 직접 보았으며 가족이 시신을 수습함.
4	374	홍상택 (1936)	홍진화	부친	2008.9.11. 부산시청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1년 2월 8일, 국군이 마을에 불을 지르고 소개를 다 했을 때, 갈 곳이 없어서 집에 남아 있다가 마을에 남아 있던 홍진화와 이웃 노인 홍창곤, 그리고 그의 며느리 김종분 등 3명이 군인에게 끌려가던 중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오리밭골에서 홍진화(당시 68세), 홍창곤(73세) 등 2명이 사살당함.
5	649	홍종수 (1937)	홍창곤	조부	2008.7.20.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자택	목격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1년 2월 8일, 빨치산 토벌을 하던 군부대가 금서면 쪽에서 거창으로 가던 중 마을에서 홍창곤과 이웃 주민 홍진화를 끌고 거창 방향으로 가다가 오부면 중촌리 오휴부락 오리밭골에서 사살하였음. •사건현장을 목격한 김종분(신청인의 모)은 거창 신원국민학교까지 끌려 갔다가 탈출해 귀가하여 두 사람의 사망사실을 알림. •김종분은 두 사람이 나이가 많아서 군인들을 따라 잘 견지 못한다는 이유로 부대장의 지시에 의해 사살당했다고 함.
6	2283	권재모 (1937)	권월봉	부	2008.7.20. 단성면 입석리 입석경로당 2010.5.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시신 목격)	진술 조서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권월봉(남, 41세, 단성면 입석리 입석마을 거주, 방앗간 운영 및 농업)은 빨치산 식량 제공 혐의로 산청경찰서에 연행되어 구타를 당하고 석방된 후 경찰의 재연행과 구타가 두려워 피신하였다가 산청경찰서에 자수하였는데, 1950년 4월 2일(제사일 : 음력 2월 14일) 산청경찰서 경찰(합천 출신 변형사)에 의해 단성면 개당 앞산으로 끌려가 총살당하였고, 시신이 수습됨.

제 5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7	4006	민순조 (1930)	김병우	남편	2008.8.6. 진실화해위원회 2010.5.3.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연행 목적)	통화 보고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편 김병우(이명 : 병석, 남, 18세, 차황면 장우리 양촌마을 거주, 농업)는 1949년 9월 4~5일경(윤 7월 12~13 일경) 새벽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차황국민학교로 집결되었다가, 양촌마을 김병석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산청읍 소재 창고로 끌려가 구금되었는데, 1949년 9월 20일(윤 7월 28일, 제사일 : 음력 7월 27일) 같은 마을 주민 1명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읍 모고리 앞 아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됨.
9	4352	임수환 (1950)	임재문	부	2007.8.29.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임재문(남, 46세, 생초면 향양리 거주, 농업)은 1949년 9월 29일(음력 8월 8일) 밤에서 일하던 중 같은 마을 거주 배영선과 함께 함양경찰서 주둔 국군에 의해 함양경찰서로 연행되어 고문으로 희생됨.
9	4412	민성식 (1938)	민대식	형	2007.6.12. 산청군 시천면 덕산 문화의집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10월경, 민대식은 인민군 진주 시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금서지서 경찰관에 끌려가 인근 마을인 매촌리 덕촌마을 위 안개골 수로에서 사살당함. 사천 출신 백 순경이라는 자가 피해자를 끌고 가 사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음.
10	4441	김성덕 (1946)	김상수	숙부	2008.7.20. 신등면 간공리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10월경, 산청경찰서 경찰 2명에 의해 김상수가 연행된 후 행방불명됨. 소문에 따르면 경찰에 의해 처형되었을 것이라고 함.
11	5264	강대식 340) (1923)	강태수	부친	2008.8.7. 진실화해위원회	목적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11월 8일(음), 군인들이 밤머리재 쪽에서부터 총을 쏘고 들어와 물레방앗간에 있던 부친을 사살하였음.
12	6502	남순금 (1922) · 남순금의 조카 김제권 (1933) 대리 진술	김임갑	남편	2007.8.30.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임갑(남, 36세, 산청읍 범학리 자신마을 거주)은 1949년 음력 11월 초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8명과 함께 트럭에 실려 산청읍 비료창고(현 산청마트 소재)에 연행 및 구금되어 구타 및 고문당하다가, 1949년 12월 28일(음력 11월 9일) 산청읍 모고리 아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처살당하여 마을주민 5명(진재석·장재호·김집중·최명불상·강강민 등)과 함께 집단(수십명) 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3	6863	황윤규 (1942)	황경준 황축천	부 숙부	2007.8.29.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황경준·숙부 황축천(황축천의 이명 : 계천, 남·남, 39세·36세, 오부면 중촌리 거주, 농업)은 1949년 음력 7월 초 산청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8월 8일(음력 7월 14일경) 군경에 의해 산청읍 차탄리 아산(현 상수원 인근)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당함.
14	7042	최정소 (1931) · 최정소의 처 박계순 (1935) 대리 진술	최명영	숙부	2008.4.23.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부 최명영(남, 23세, 산청읍 범학리 자신마을 거주, 상업)은 1949년 11월 27일경(음력 11월 8일) 빨치산에게 연필과 공책을 팔았다는 혐의로 군경에 의해 자신마을 주민 2명과 함께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저녁 산청읍 차탄리 아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15	7360	오문환 (1949)	오인호	조부	2007.8.29.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부 오인호(남, 58세, 차항면 장박리 거주, 농업)는 1949년 8월 20일(제사일 : 음력 7월 25일) 갈밭개울 논에서 일하다가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장고개(갈밭개울 논에서 800m 정도 이격)로 끌려가 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16	7394	차승현 (1939)	양경순	조모	2008.8.6. 진실화해위원회	목적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1년 1월 7일(음) 오후 4시쯤, 국군이 거창군 신원면 소룡산을 넘어와 마을에 전부 불을 놓고 총을 쏘아 댄는데, 조모(당시 62세)는 집을 지키고 있다가 군이 쏜 총에 맞아 죽어 있었음. •이때 조모 외에도 마을사람 수십 명이 희생된 것으로 알고 있음.
17	7450	최근호 (1943)	최우학	부	2008.4.23. 산청군청 2010.4.29.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최우학(이명 : 또학, 남, 48세, 시천면 신천리 하신마을 거주, 농업)은 빨치산을 피해 시천면 내공리 미륵사(현 정각사)에서 거주하던 중 1949년 12월 26일경(제사일 : 음력 10월 27일) 아들 최천호의 결혼식에 찾아온 신천리 이웃 노○○(술도가 운영, 빨치산 협조)에게 음식을 주었다고 군경에 의해 구 덕산지서로 연행 및 구금된 후 국군에 의해 시천면 아산에서 희생됨.
18	7451	김병우 (1927)	김상근	부	2007.8.31. 산청군청	시신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김상근(남, 51세, 신안면 하정리 원지마을 거주)은 1949년 7월 9일(음력 6월 14일) 저녁 집 맞은 편 주막에서 음주를 하던 국군 3연대 군인 1명이

제 5 권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18	7451	김병우 (1927)	김상근	부	2007.8.31. 산청군청	시신 목적	진술 조서	집에 와서 마당에 널려 있는 삼을 거두 라고 지시하여 마당에서 삼을 거두고 있던 중 집 마당에 온 군인 1명에 의해 사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19	7453	배춘근 (1935)	배영선	부	2008.8.05. 진실화해위원회 2010.5.5.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연행 목적)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배영선(남, 46세, 생조면 향양리 향촌 거주, 농업, 마을구장 및 민보단장)은 1949년 9월 29일(음력 8월 8일) 함양 주둔 군경 토벌대(15명 정도)에 의해 배명준·임재문 등과 함께 함양경찰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함양읍에서 휴천면 가는 쪽 야산(함양 남산)으로 끌려가 집단희생됨.
20	7515	한명우 (1935)	한윤생	형	2008.4.23. 산청군청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11월(음) 경, 군인들 2~3명이 총을 들고 와서 집안사람들을 나오게 하였는데, 처음에는 자형을 잡아 갔다가 다시 둘째형님인 한윤생을 잡아 갔음. •잡혀가는 장면은 직접 목격하였으나 이후 귀가하지 않고 있음. 빨치산이 마을에 내려왔을 때 식량 보급을 하면서 형에게 집을 지게 한 적이 있음.
21	7717	김일선 (1941)	김차조	부친	2008.5.14. 부산시청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9월 초순경, 국군이 밀고 올라올 때였는데, 국군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부친을 손을 묶어 데리고 가는 장면을 모친과 함께 목격함. •국군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부친을 잡아갔는데, 모친이 처형 현장으로 알려진 곳으로 가 시신을 수습하려 하였으나 워낙 많은 시체가 뒤죽박죽 엉켜있어서 수습할 엄두가 나지 않아 그냥 집으로 왔다고 함.
22	7719	박암 (1945)	박우출	부	2008.7.20. 차황면 장박리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박우출(남, 39세, 차황면 장박리 장박마을 거주, 농업) 1949년 음력 9월 30일경(제사일 : 음력 9월 30일) 공출 가마를 차황면에 가져다 놓고 오다가 국군에 의해 숙부 박판대 등 마을 주민 10여 명과 함께 연행되어 금서면 방면으로 끌려가 희생됨.
23	8145	문도주 (1949)	문흥조	부친	2008.9.11. 부산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9월(음) 초순경, 도민증을 만들기 위해 면사무소로 갔던 부친이 면사무소 입구에서 단성지서에 연행되어 고문당한 후 사망함. •당시 친척되는 사람이 부친의 연행 장면을 목격하였고, 부친 사망 당일에 단성지서에 잡혀 있던 젊은 사람 12명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3	8145	문도주 (1949)	문홍조	부친	2008.9.11. 부산시청	전문	진술 조서	이 같이 사망하여 단성지서 인근에 묻었다고 함. •사건발생 후 100여 일이 지나 시신을 수습해 옴.
24	8315	송지영 (1943)	송성서 송진호	부 숙부	2007.9.17. 2010.4.17.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송성서·송진호 형제(송성서의 이명 : 송군호, 남·남, 44세·31세,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 거주, 농업, 송성서는 불계마을 구장은) 1949년 음력 7월경 군경에 의해 구 덕산지서로 연행되어 구 덕산지서 뒤편(덕산 구 장터 인근) 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9월 24일(제사일 : 음력 8월 2일) 구 덕산지서 인근 야산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총살당함.
25	8321	오재춘 (1949) · 오재춘의 11촌 오문환 (1949) 대리 진술	오규환	부	2007.08.29. 산청군청	전문	진술 조서	•부 오규환(남, 28세, 차황면 장박리 거주, 차황면사무소 면서기)은 1949년 음력 9월 29일경(제사일 : 음력 9월 29일) 차황면사무소 근무 중 마을주민 10여 명과 함께 빨치산 협조 혐의(군경에게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군경에 의해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어 희생됨.
26	8735	조재현 (1944)	조주환 강월선 조인현	조부 숙모 사촌	2008.7.2. 진주시청	전문	진술 조서	•1951년 초겨울 무렵, 가족 전체가 중산리 칼바위 근처에서 피란생활을 하던 중, 군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군에 의해 조부 조주환은 몽둥이에 맞아 죽고, 숙모 강월선은 “남편을 찾아내라.”는 군인의 명령에 항의하다가 총살당했으며, 품에 안겨 있던 사촌동생(당시 2세) 역시 사살됨. •그 후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던 가족 중 조모, 숙모, 사촌동생 등 3명이 장질부사로 병사함.
27	8736	진쌍호 (1953)	진재석	5촌당숙	2007.8.30. 산청군청 2010.3.18.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진재석(남, 25세, 산청읍 범학리 거주, 농업)은 1949년 12월 27일경 마을 주민 몇 명과 함께 국군에 의해 산청경찰서로 연행된 후 1949년 12월 28일(제사일 : 음력 11월 8일)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집단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28	8827	박암 (1945)	박판대	숙부	2008.7.20. 차황면 장박리 신청인 자택	전문	진술 조서	•숙부 박판대(남, 33세, 차황면 장박리 거주, 농업) 1949년 음력 9월 30일경(제사일 : 음력 9월 30일) 국군에 의해 형 박우출 등 마을주민 10여 명과 함께 연행되어 금서면 방면으로 끌려가 희생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29	8830	박옥선 (1942)	박완주	부	2008.8.6.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연행 목적)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박완주(남, 35세, 차황면 장박리 거주, 농업 및 상업)는 1949년 10월 30일경(제사일 : 음력 9월 30일)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회관으로 집결되었다가, 마을의 젊은 남성 12명과 함께 산청경찰서로 연행 및 구금된 후 국군에 의해 어느 골짜기에서 집단 학살되어 매장됨.
30	8901/ 9990	권길영 (1972) · 유족 권권도 (1931) 대리 진술	권세도	백부	2008.7.3. 진주시청 2010.3.19.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세도(남, 24세, 시천면 내대리 남대부락 치하 거주, 농업, 시천면 내대리 청년단 부단장)는 1950년 2월 15일(1949년 음력 12월 29일) 마을을 소개하며 노○○(하동군 청암마을 출신)를 찾아온 국군 19연대(50여 명)에 의해 남대부락 야산으로 끌려가 국군 19연대에 의해 칼빈 총기로 15발을 맞아 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31	9240	서석환 (1961)	서금득	조부	2008.8.5.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9월(음) 초순경, 조부가 산청경찰서 경찰들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로 잡혀가 취조 받던 중 도망 나왔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 후 행방불명됨. • 소문에 의하면, 산청경찰서에 잡혀있던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 가 처형되었다고 하는데 정확치 않음.
32	9241	서석환 (1961)	서판준	작은 할아버지	2008.8.5.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9월(음) 초순경, 조부 서금득이 산청경찰서에 잡혀간 후 얼마 뒤에 작은 할아버지 서판준이 산청경찰서에 역시 연행되었는데 행방불명됨.
33	9248	권문혁 (1938)	권명이 권중명	부 숙부	2008.9.11. 부산광역시청	전문 (연행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권명이·숙부 권중명(남·남, 41세·35세, 신등면 모례리·단계리 거주, 농업·신등면사무소 직원)은 1949년 봄 모례리 거주 권○○에 의해 좌익으로 몰려,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신등지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희생됨. 본 사건 무렵 빨치산에 의해 마을 이장이 살해되었음.
34	9378	권유현 (1949)	권재만	부	2007.8.31. 진주시청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권재만(남, 28세, 단성면 청계리 개당마을 거주, 농업)은 군경의 마을 소개령으로 청계리 용두마을에서 생활했는데, 1949년 9월 7일(음력 윤 7월 15일) 용두마을에서 일하던 중 국군 3연대에 의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1949년 9월 20일(음력 윤 7월 28일, 제사일 : 음력 7월 27일)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35	9882	김두태 (1935)	김천수 박고비	부 모	2007.8.31. 진주시청	시신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천수·박고비 부부(남·여, 59세·56세, 차황면 장박리 거주, 농업)는 1949년 8월 19일(제사일 : 음력 7월 24일) 14시경 논에서 일하다가 국군 1개 중대에 의해 연행되어 황매산 및 장고개로 끌려가 같은 마을 거주 오명불상과 함께 국군에 의해 집단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36	10325	정영희 (1955)	정화석	백부	2008.8.6.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화석(남, 25세, 신등면 간공리 거주, 농업)은 마을의 좌익활동가가 소집하는 모임에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1949년 8월 7일(음력 7월 13일) 마을주민 6~7명과 함께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됨.
37	10670	민영학 (1932)	민만호	부	2008.4.23. 산청군청	전문 (연행 목적)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민만호(남, 33세, 산청읍 차탄리 장재마을 거주, 경호강 뱃사공)는 1949년 10월 5일(음력 8월 14일) 장재부락 입구에서 산청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산청경찰서와 덕산 소재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10월 31일경(제사일 : 음력 9월 10일) 군경에 의해 끌려 나가 희생됨.
38	10676	김종원 (1929) · 김종원의 자부 문혜경 (1959) 대리 진술	김명준	형	2008.8.6. 위원회	전문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형 김명준(남, 28세, 단성면 창촌리 거주, 농업)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1949년 여름 단성면 창촌리 칠정마을 뒷산에 땀감을 구하러 갔다가 국군 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단성지서를 경유하여 산청경찰서에 구금된 후, 억박 지르는 심문에 지적 장애로 인해 순수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좌익 관련이 있다고 답하여 국군 3연대에 인계되어 희생됨.
39	10677	장기석 (1945)	장재호	부	2007.8.31. 진주시청 2010.4.26.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진술 조서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 장재호(남, 32세, 산청읍 범학리 자신마을 거주, 농업)는 1949년 음력 11월 초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9~10명과 함께 연행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제사일 : 음력 11월 8일) 산청읍 모고리 산 중턱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자신마을 주민 5~6명(김임갑·진채석·김집중 등)과 함께 집단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함양군								
40	951	정연상 (1937)	정위상	형	2008.3.25. 거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가을 무렵, 경찰의 수복 이 후 인민군 진주 시 인민군 포탄관리와 실탄운반 등 부역을 했다는 이유로 함 양경찰서에 연행된 후 불상의 장소에 서 총살당한 것으로 추정됨.
사천군								
41	9853	이덕선 (1948)	이철래	부친	2008.7.1. 사천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이 나던 해, 농사 외에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던 부친을 경찰이 끌고 간 후 행방불명됨.
42	9854	김학선 (1940)	김학수	형	2008.7.1. 사천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4월(음)경, 짐을 사러 갔던 형님이 귀가한 후 삼천포경찰이 와서 잡아감. • 진주형무소로 갔다는 이야기를 들 었으나 이후 행방불명됨.
43	9992	류기영 (1939)	류하영	형	2008.7.1 사천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늦여름, 외룡산 일대에 빨치 산 활동이 심해 과수원에 도둑들이 많 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안 소유의 과수원을 지키던 중, 안면이 있는 빨치 산을 하룻밤 재워줬다는 이유로 송지 리 지사로 빨치산 출현신고를 하러 갔 던 류하영을 경찰이 총살시킴.
고성군								
44	마-9872	최선아 (1951)	최연갑	부친	2007.11.21. 함안군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시 부친이 사천을 통해 지 리산 쪽으로 끌려가서 죽었을 것으로 추정함.
거창군								
45	358(2)	정동일 (1928)	정동해	숙부	2008.9.11. 부산시청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인은 당시 가족과 함께 서울에 거주하였으며 세 분 숙부님의 희생사실 은 작은할머니로부터 1년 후에 들었음. • 1950. 12.10. 새벽에 공비 토벌작전 중이던 군인이 숙부 세 분을 수상하 다 는 이유로 마을 논으로 끌고 가서 총으 로 살해하였음. • 정관해는 소죽을 꿩이다, 정을해는 용변을 보다가, 정동해는 동생들을 풀 어 달라고 말을 하러 갔다가 같이 희생 당했음.
46			정을해	숙부				
47			정관해	숙부				
48		김재명 (1947)	최진순	모	2009.11.24. 자택	전문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려서 당시 상황은 모르나 부친, 마 을주민들로부터 들었음. • 인민군이 마을에 왔을 때 어머니를 지목하여 무슨 책임자를 시켜서 식량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48	358(2)	김재명 (1947)	최진순	모	2009.11.24. 자택	전문	통화 보고서	조달, 식사준비 등을 하였다고 들었음. • 군인들이 병곡마을 소개 시 인민군에게 협조한 사람은 자수하면 용서한다는 권유로 자수하자 같은 마을 주민 6명을 야산으로 끌고 가서 총으로 살해하였음.
49		김정환 (1947)	김철주	부	2009.11.24. 자택	전문	통화 보고서	• 할머니, 어머니, 마을주민에게 들었음. • 1951년 1월(음력 1950년 12월) 군인들이 병곡리를 불태우고 면 소재지로 소개 시 북상지사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인민군에게 협조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자수하면 용서하여 준다고 하여 주민 5명과 함께 아버지가 자수하였음. • 자수한 6명을 북상면사무소 인근 야산에서 총으로 살해하였음.
50		정복남 (1939)	김창수	시숙	2008.4.17. 거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 신청인의 양모 정복남이 대리 진술. • 사건 당시 거창군 북상면 창석리에 거주하였으며, 사건 후 희생자의 동생(김용석)과 결혼하였으며, 시어머니로부터 들었음. • 전쟁 전에 산에서 내려 온 사람들이 쌀도 피가고 밥도 가져갔음. • 이 일로 시숙 두 분이 마을사람 4~5명과 함께 병곡지사에 잡혀가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을 시어머니가 들었으나 거리가 너무 멀고 남자들이 없어서 시신수습을 하지 못했음.
51			김창식	시숙				• 어머니와 마을주민들로부터 들었음. • 신청인은 결혼하여 북상면 산수리 거주하였음. • 당시 병곡마을을 군인들이 불을 지르고 북상면사무소 방향으로 이동시 면사무소 앞쪽에서 마을주민 6명(남 4, 여 2)을 군인들이 총으로 쏘 죽였다고 들었음. • 그 장면을 어머니께서 목격하셨다고 들었음. 현장에서 시신수습하고 3년 전에 마을로 모셔왔음.
52		김복달 (1932)	김판금	부	2008.4.17. 거창군청	전문	진술 조서	• 조부로부터 들었음. • 모친 박시남이 친정으로 피란 중에 신원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신원면 양지리 뒷산에서 권총으로 살해당함. • 피란에서 돌아온 후 외삼촌과 집안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53	엄석주 (1938)	박시남	모	2008.9.11. 부산시청	전문	진술 조서	• 조부로부터 들었음. • 모친 박시남이 친정으로 피란 중에 신원지서 경찰에게 연행된 후 신원면 양지리 뒷산에서 권총으로 살해당함. • 피란에서 돌아온 후 외삼촌과 집안 어른들이 시신을 수습하였음.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신청인 (출생연도)	진실규명 대상자	관계	진술일 진술장소	목적, 전문	진술 형태	주요 진술
54	1282	이무근 (1942)	이덕술	부	2008.4.16. 거창군청	목적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민군 후퇴시 군인들이 북상면 오지마을들을 소개하였음. • 하루 늦게 족보와 삼베를 가지고 북상면 농산리에 사시던 숙부 집으로 피란할 때 아랫집에 살던 ○○○이 자기 집 삼베를 훔쳤다고 지서에 신고하여 부친이 조사를 받던 중 경찰(장○○)의 가혹한 수사와 고문과 구타로 사망하였음. 시신을 수습하였음.
55	3726	김동오 (1945)	김동락	숙부	2009.11.23. 자택	전문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친과 숙모(이필남)로부터 들었음 • 숙부가 전쟁 전에 친구와 함께 자주 경찰에 불려 다녔다고 들었음. • 부친은 보도연맹원으로 희생당하였고, 숙부는 같은 해 8월에 마리면 말흘리에서 친구와 함께 항방불명됨. • 당시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쪽에서 친구와 숙부를 보았다는 주민의 이야기를 들었으나 확인 불가.
56	5682	정동한 (1947)	김점순	모	2010.4.29. 자택	전문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10월 23일 밤 10시~11시 사이에 빨갱이들이 집으로 쳐들어왔음. • 이들이 주민들로부터 현물로 거둬들인 벼를 도정하러 아버지를 협박하여 운영하던 정미소로 끌고 갔고, 어머니와 형, 신청인이 집에 잡혀서 감시를 당하고 있었음. • 밤에 불이 켜 있는 것을 보고 사찰유격대가 빨갱이가 왔음을 알고 집과 정미소를 포위, 감사하던 중 이들이 도망가자 일제 사격을 가하여 방에 있던 모친이 총에 맞아 현장에서 사망하였음.
거제								
57	5626	강명용 (1950)	강정길	삼촌	2008.2.26. 진실화해위원회	전문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군인들에게 잡혀가 마을 뒤에서 총살당함.

340) 신청인 강대식이 사망하여 그의 아들 강재중(550825-XXXXXXX)의 진술을 받음.

〈별표 2〉 피해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산청군							
1	76	정임조 외 20명	이○○ (남, 31)	오부면장	전문	2010.1.13. 참고인 자택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초겨울 무렵, 오부면 일몰리 사람들이 군인들에 의해 잡혀가 처형되었음. • 친구 김종태를 비롯해 20여 명의 젊은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음. 금서면 수철리에 처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가해군인은 5연대 또는 3연대라고 들었음. • 처형당한 주민들의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음.
			민○○ (남, 18)	이웃	전문	2010.2.2.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전 가을 무렵, 오부면 일몰리 남자들이 군인들에게 다 끌려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사건 당일 동네사람들로부터 들었음. • 어디서 처형되었는지는 모름. • 일몰리 남자들 씨가 말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송○○ (남, 26)	이웃	전문	2010.2.2.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건연도 미상 가을 무렵, 군인들이 오부면 일몰리에 들어와 남자들을 전부 엮어서 끌고 갔다는 이야기를 같이 머슴살이 하던 현장 목격자 민영창(작고)으로부터 사건 당일 날 들었음.
			김○○ (남, 15)	이웃	전문	2010.2.2. 수철리마을회관 (면담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전 부친(당시 40세가량)이 마을주민 5명과 함께 토벌군이 주둔해 있던 수철리 뒷산까지 짐을 지고 간 적이 있음. • 당시 수철리 뒷산은 해발이 높고 빨치산의 출몰이 잦아 군경과 빨치산과의 전투가 심했던 지역으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으며, 부친의 경우 유평리에서 오봉으로의 빨치산 이동을 포착한 군의 총격 장면을 목격한 바 있음. • 전쟁 전에도 빨치산의 활동이 활발하여 마을주민 중 5명이 산으로 끌려갔다가 며칠 후 돌아 온 적이 있음.
2	338(1)	김인구	박○○ (남, 17)	조카	시신 목격	2010.4.14. 사천시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은어머니 김인구는 1950년 음력 12월 29일(선달 그믐날, 제사일 : 음력 12월 28일) 오후 내대리 판기마을에 진입한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판기부락 앞 논에 집결되었다가, 마을 건너편 산에서 총격을 가하는 국군에 의해 판기부락 앞 논에서 목에 총을 맞아 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 본 사건 당시 국군은 판기마을을 방화하여 가옥들이 거의 전소되었고, 김인구의 시어머니 김복례 등이 집안에 있다가 국군의 방화로 희생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2	338(1)	김인구	정○○ (남, 24)	이웃	시신 목격	2010.4.15.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구(박도일의 어머니, 내대리 청내마을 거주)는 1950년 음력 12월 29일(섣달 그믐날) 하동 악양에서 넘어온 국군 9연대(화랑부대)에 의해 내대리 판기마을 주민 50여 명과 함께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되었다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국군 화랑부대에 의해 판기마을 앞 논에서 목에 총을 맞아 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 본 사건 당시 국군 화랑부대는 판기마을 전체를 방화하고 주민을 살해하며 마을에 진입하여, 남성들은 도망가고 대부분 노인·여성·어린이들이 국군의 방화로 집에서 뛰쳐나와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함. 국군의 마을 방화로 박도일의 할머니·남상용의 증조모가 희생되었으며, 김을수의 조부 김재범도 집안에서 국군에 의해 희생됨. 본 사건으로 판기마을에서 총 4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됨. • 본 사건 직후 저녁 진술인은 박도일 어머니·박도일의 할머니·남상용의 증조모·김재범의 시신수습 및 매장에 참여하여, 이들의 시신을 모두 목격함. • 본 사건 후 국군 9연대 화랑부대는 산청군 금서면과 거창군 신원면으로 이동하여 민간인을 희생시킴.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4.15.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인구(박도일의 모친, 내대리 청내마을 거주)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섣달 그믐날 국군에 의해 내대리 판기마을 주민들과 함께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되었다가, 산 밑에서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하는 국군에 의해 판기마을 앞 논에서 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 본 사건 당시 국군은 판기마을을 방화하여 박도일의 할머니와 남상용의 증조모 등 연장자 3명이 국군의 방화로 희생됨.
			김○○ (남, 11)	유족 (동생)	전문	2010.4.13. 부산 해운대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나 김인구는 시천면 내대리 청내마을로 시집을 갔는데, 한국전쟁 전후 음력 섣달 그믐날 차례를 준비하러 장판터 시택 큰집에 갔다가, 덕산국민학교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장판터 마을 인근 논으로 집결되어 총살당함. • 본 사건 당시 국군 3연대는 마을을 방화하여 박도일의 할머니가 나이가 많아 장판터 들판으로 나오지 않고 집에 있다가 국군의 방화로 희생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2	338(1)	김인구	김○○ (남, 13)	이웃	목격	2007.10.26.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통화보고서)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후인 1951년 초(김형순의 남동생 김수태 출생일) 국군 9연대 1대대가 내대리 판기마을을 방화하며 주민들을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시켜 총살하여, 박도일의 어머니가 목에 총을 맞고 희생됨(희생 목격). • 본 사건 당시 박도일의 할머니는 눈이 어두워 집에서 못 나와서 국군의 방화로 집에서 희생되었고(시신수습 목격), 남상용의 증조모도 국군의 방화로 집에서 희생됨(시신수습 목격). 김을수의 조부 김재희는 국군 이 손을 들고 나오라고 하여 나갔는데 국군에 의해 총살당했고(희생 목격), 시신이 수습됨. • 본 사건으로 총 4명의 내대리 판기마을(2명 총살, 2명 방화사) 주민이 국군에 의해 희생됨. 본 사건 후 국군 9연대 1대대는 음력 1월 2일경 금서면에서 민간인을 희생시킴.
			김○○ (여, 12)	이웃	목격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도일의 어머니는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선달 그믐날(진술인의 동생 김수태 출생일) 국군에 의해 판기마을 주민들과 함께 판기마을 앞 논에 집결되었다. 국군에 의해 목에 총을 맞아 총살됨(희생 목격). • 본 사건 당시 박도일의 할머니와 남상용의 증조모는 국군이 집을 방화했는데 나오지 못하고 집에 있다가 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경주 김 씨 김우대의 집안 어른(남성 노인) 1명이 국군에 의해 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시신 목격). 본 사건으로 판기마을 주민 총 4명이 국군에 의해 희생됨.
			김○○ (남, 1)	이웃	전문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박도일의 어머니가 국군에 의해 총살된 날 저녁에 출생하였는데, 정확한 생년월일이 1951년 2월 5일(1950년 음력 12월 29일)임.
3	338(1)	박근생	박○○ (남, 17)	조카	전문	2010.4.14. 사천시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도열의 부 박근생(이명 : 동생)은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11월경(형 박우문 사망 10일 정도 후) 내대리 아산으로 일하러 갔다가, 내대리 아산에서 국군에 의해 총살당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3	338(1)	박근생	정○○ (남, 24)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박근생(박도일의 숙부, 이명 : 동생, 목공예 업 종사)는 1951년경 내대리 아산 목기 작업장 에 일을 갔다가, 국군에 의해 총살당함.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박근생은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희 생됨.
			김○○ (남, 11)	이웃	전문	2010.4.13. 부산광역시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박도일의 숙부 박근생은 한국전쟁 전후 국군에 의해 희생됨.
4	338(1)	박우문	정○○ (남, 24)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박우문(박도일의 백부, 목공예업 종사)은 한국전쟁 당시(박도일 어머니 희생 후) 음 력 11월경 동생 박근생(호적명 : 박원희)과 함께 경명도 산골짜기 목공예 작업장에 있 다가, 빨치산에게 협조한 적도 없는데 국군 에 의해 작업장 앞으로 끌려 나와 박근생(호 적명 : 박원희)과 함께 집단총살당함.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박우문(박도일의 백부, 목공예업 종사)은 한국전쟁 당시 음력 11월경 동생 박근생(호적 명 : 박원희)과 함께 경명도 산골짜기 목공예 작업장에 있다가, 국군에 의해 박근생(호적 명 : 박원희)과 함께 작업장 앞으로 끌려 나와 아무런 확인절차 없이 집단총살당함.
			김○○ (남, 11)	이웃	전문	2010.4.13. 부산광역시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박용운의 부친 박우문은 한국전쟁 전후 국군에 의해 희생됨.
5	338(1)	강우실	송○○ (남, 22)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배복순의 시부 강우실(시천면 천평리 상 지마을 거주)은 한국전쟁 전인 여순사건 당 시 돈을 벌기 위해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 에 마을주민 2명과 함께 짐품을 팔러 갔는 데, 내대리에서 취침 중 소변을 보러 갔다가 군인들에 의해 총격을 당하여 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5	338(1)	강우실	송○○ (남, 29)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천평리 상지마을회관 (진술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복순의 시부 강우실(시천면 천평리 상지 마을 거주)은 한국전쟁 전인 여순사건 당시 음력 선달 23일경(제사일 : 음력 선달 22일 경) 돈을 벌기 위해 시천면 내대리에 마을주민 2~3명과 함께 일을 하러 갔는데, 내대리에서 새벽 무렵 취침 도중 소변을 보러 갔다가 총격을 당하여 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정○○ (남, 14)	본 사건 당시 동촌마을 주민	전문	2010.6.3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우실은 여순사건 발생 직후 생계를 위해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에 와서 벌목 작업을 하며 동촌마을 중앙 소재 박연생의 집에서 숙식했는데, 음력 12월 22일 또는 23일경 오후 3~4시경 동촌마을에서 집 밖으로 소변을 보러 가던 도중 빨치산 토벌을 위해 동촌마을에 진입한 국군 제5연대에 의해 무차별적으로 사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강○○ (남, 13)	유족 (아들)	전문	2010.6.3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우실은 산청지역에서 첫 난리가났던 해에 생계를 위해 같은 마을 정정수와 함께 시천면 내대리로 벌목 작업을 하러 갔는데, 같은 해 음력 12월 23일(제사일 : 음력 12월 22일) 오후 내대리에서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던 도중 빨치산을 토벌하던 국군 제5연대에 의해 사살됨. 강우실의 시신은 정정수에 의해 수습되어, 희생 다음날 오전 시천면 천평리 거주지로 운구됨. 진술인은 본 사건의 내용을 강우실의 시신을 수습 및 운구한 정정수로부터 전해 들음.
		정○○ (남, 11)	이웃	전문	2010.6.3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영호의 아버지 강우실은 희생 전 돈을 벌기 위해 시천면 내대리 동촌마을에 벌목 작업을 하러 갔는데, 1948년 음력 겨울 오후 동촌마을 집에서 나가 화장실에 가던 도중 국군 제5연대(추정)에 의해 사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6	338(1)	김종철	박○○ (남, 17)	이웃	전문	2010.4.14. 사천시 참고인 자택 (진술녹취록) 2010.5.10.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철(김진태와 김인구의 부)은 1950년 음력 12월 29일(박도일의 어머니 김인구 희생일, 제사일 : 음력 12월 28일) 덕산 장에 가는 길에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삼장면에서 국군에 의해 총살됨.
			정○○ (남, 24)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종철(김인구의 부, 내대리 세석 거주, 한의원 운영)은 1950년 음력 12월 29일(김인구 희생 당일 : 음력 선달 그믐날) 덕산 장에 가다가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총살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6	338(1)	김종철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종철(김인구의 부, 내대리 세석 거주, 한의원 운영)은 딸 김인구 희생 당시 덕산장에 가다가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총살됨.
7	338(1)	정오교	정○○ (남, 24)	유족 (동생)	시신 수습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오교(내대리 청내마을 거주, 한청단원)는 1951년 3월 27일경(박도일 어머니 사망 50일 정도 후, 제사일 : 음력 2월 19일) 오전 국군에 의해 청내마을 거주지 인근에서 청내마을 거주 이영수(이재진의 부) · 허명불상(이영수의 처) 등과 함께 집단총살되었고, 본 사건 당일 오후 진술인에 의해 시신이 수습됨. 본 사건 당일 오후 이영수 · 허명불상(이영수의 처)의 시신은 진술인에 의해 목격되었고, 이영수의 사위에 의해 수습됨.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4.15.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오교(정대교의 형, 내대리 청내마을 거주)는 한청단원이었는데, 한국전쟁 당시(박도일 어머니 김인구 희생 후) 국군에 의해 청내마을 거주지 인근에서 청내마을 거주 이영수 등과 함께 집단총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8	374/ 649	홍진화 홍창곤	홍○○ (남, 28)	이웃	전문	2010.2.23.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겨울 무렵, 이웃 마을 대현리에 토벌군이 들어와서 마을을 토벌했음. • 군인들 수십 명이 들어온 것을 목격하였으며, 토벌이 끝난 후 거창군 신원면 쪽으로 넘어갔음. • 당시 본인이 살던 중촌리는 빨치산에 의한 피해가 있었음. • 토벌군에 의해 중촌리 오리밭골에서 마을주민 홍진화, 홍창곤 등이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9	374/ 649	홍진화 홍창곤	심○○ (여, 26)	이웃	전문	2009.5.18.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초에 군인들이 마을로 들어와 홍진화, 홍창곤 등이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같이 들려줬다가 살아 돌아 온 김종분으로부터 들었음. • 본인을 포함, 사건 당일에 소개 나가 있던 마을주민 약 30명이 식량을 가지러 마을로 들어왔는데, 이들을 향해 총을 쏘는 토벌군을 피해 산으로 도망갔다가 돌아와 위 두 사람이 사살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음.
10	374/ 649	홍진화 홍창곤	문○○ (남, 29)	이웃	전문	2009.5.18.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토벌군의 총격을 피해 산으로 피신해 있다가 군인들이 신원면으로 넘어간 후 집에 돌아와 있었는데, 집 근처에 사는 마을사람이 산에 숨어 있던 중 군인들이 홍진화, 홍창곤 두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10	374/ 649	홍진화 홍창곤	문○○ (남, 29)	이웃	전문	2009.5.18. 자택 (진술서)	분에게 총 쏘는 모습을 직접 보았다고 하여 같이 가서 시신을 업고 마을로 돌아 왔음. • 시신은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는데, 토벌 군은 금서면 방항에서 올라와서 신원면 쪽 으로 갔음.	
11	2283	권월봉	강○○ (남, 15)	이웃	전문	2010.2.3.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 권월봉은 1949년 좌익에 협조하였다는 이유로 산청경찰서 경찰(변 형사)에 의해 연행되어 고문을 받은 후 단성면 개당 앞산 에서 총살당함.	
			권○○ (남, 14)	이웃	전문	2010.2.3. 산청군 단성면 입석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 권월봉(방앗간 운영)은 빨치산의 총살 위 협으로 빨치산에게 쌀을 제공한 적이 있었 는데, 이에 따른 경찰의 총살을 우려해 피신 했다가, 가족들이 경찰에 의해 고문 등의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소식에 자수했고, 자 수 후 마산에 피신했다가 경찰에 의해 재 연행되어 총살당함.	
12	4006	김병우	강○○ (남, 21)	이웃	전문 (연행 목적)	2010.1.12. 산청군 차황면 장우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 김병우는 1949년 여름 국군에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차황국민학교로 연행되었다가 산청국민학교에 구금된 후 마을주민 1명과 함께 산청읍 모고리에서 군 경에 의해 처형됨.	
			이○○ (남, 31)	이웃	전문	2010.1.12. 산청군 차황면 장우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2010.4.29.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 김병우는 1949년 여름 국군에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차황국민학교로 연행되었다가 산청국민학교에 구금된 후 군경에 의해 산청읍 산청공동묘지 건너 야 산(황토 산언덕)에서 집단희생됨.	
			김○○ (남, 12)	유족 (동생)	전문	2010.5.2.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 형 김병우는 한국전쟁 전후 음력 7월경 산청국민학교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미 주민들과 함께 연행되어 산청읍 허경호 씨 방앗간 창고에 약 1개월 정도 구금되었다 가, 추석 열마 전(제사 : 음력 7월) 국군 3연 대에 의해 산청읍 모고리 앞 공동산청공 동묘지 : 현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에서 차황 방면으로 500m 이내 위치)으로 끌려가 집 단총살당함.	
13	4352	임재문	배○ (남, 14)	이웃	전문 (연행 목적)	2010.1.13.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370 (진술조서)	• 임재문은 1949년 음력 8월경(추석 전) 함양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 과 함께 마을 동청에 집결되어 구타당하다 가, 마을주민 10여 명(배영선·김타관·이 두철 등)과 함께 함양읍 군 주둔지로 연행되 어 고문으로 희생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임○○ (남, 16)	이웃	전문 (연행 목격)	2010.1.13.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재문은 1949년 음력 8월경(추석 전) 함양읍 주둔 남원 3연대에 의해 마을 동청에 집결되어 구타당하다가, 마을주민 10여명(배영선·김타관·이두철 등)과 함께 함양읍 군 주둔지로 연행되었는데, 생존 귀한 자 증언에 따르면 임재문은 군 주둔지에서 고문으로 희생됨.
			배○○ (남, 14)	이웃	전문 (연행 목격)	2008.8.5. 진실화해위원회 (진술조서) 2010.5.5.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재문은 1949년 9월 29일(음력 8월 8일) 함양 주둔 군경 토벌대(15명 정도)에 의해 마을주민 배명준·배영선 등과 함께 함양경찰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됨.
14	4412	민대식	이○○ (남, 17)	이웃	전문	2009.10.11. 산청군 금서면사무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추석이 지난 며칠 후 피해자 민대식이 금서지서 경찰 서순경에게 끌려가 마을 인근 다리 밑 배수구에서 사살당함. • 동네 주민들로부터 사건 당일 이야기를 들었으며,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여 무덤을 만들었음.
			이○○ (남, 26)	이웃	전문	2009.10.11. 산청군 금서면사무소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가을 무렵, 마을주민 민대식이 금서지서 경찰에게 끌려가 사살당함. • 민대식의 묘가 현재도 마을에 있음.
15	4441	김상수	김○○ (남, 12)	이웃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가을 무렵, 학교 방과 후 귀가했을 때, 이웃 주민 김상수가 산등지서 경찰 두 명에게 끌려갔다는 이야기를 마을 어른들로부터 들었음.
			오○○ (여, 15)	이웃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나던 해 의령에서 시집을 온 후 가을 무렵, 경찰들이 마을로 와서 김상수를 잡아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16	5264	강태수	정○○ (남, 26)	이웃	전문	2009.5.21.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 마을 물레방앗간에 나락을 찢으러 갔던 강태수가 군인 총에 맞아 죽었음. • 마을 인근에 무덤이 있음.
			유○○ (남, 19) 정○○ (여, 15)	이웃 (부부)	전문	2006.7.27.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날짜 미상), 같은 마을에 살던 강태수가 그의 처와 함께 마을 물레방앗간에 있다가 인민군에게 식량보급하기 위해 방앗간에 있다는 이유로 토벌군에 의해 사살되었음. • 당시 마을주민들도 다 알고 있던 사실임. • 전쟁 발발 후 정월 초하루에 제사 지내고 떡국 먹고 있을 때, 군인들이 들어와 집집마다 불을 지른 적이 있음. • 이 사건으로 강태수 외에도 마을주민 한명(성명불상)이 토벌군에 의해 사살당함.

연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16	5264	강태수	강○○ (여, 23)	가족 (딸)	시신 목적	2006.8.27. 산청군 삼장면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이던 1950년 12월 16일, 군인들이 밤머리재로부터 총을 쏘면서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마을주민들과 유평리에 있는 대원사로 피란을 감. • 동네사람들이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피란 가야 산다.” 고 하여 아무것도 갖지 않고 혼자 피란 갔음. • 오후에 마을로 돌아와 보니 마을 입구에 있는 계림읍 쪽에서 사촌동생(강갑생)이 울면서 부친 강태수가 총에 맞아 돌아가셨다고 하여 동네 물레방앗간에 가 보니 부친이 가슴에 총을 맞은 시체가 되어 가마니에 덮여 있는 것을 목격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모친에 따르면 군인들이 여러 명 총을 들고 와 “여기에 뭘 하고 (무얼 하려고) 있느냐? 인민군에게 식량을 대어 줄려고 있는 거냐?” 고 추궁하므로 “우리 아들(강대식)도 군에 가 있다.” 고 하였으나, 총을 쏘 부친이 사망하였음. • 마을주민 최삼수(작고)와 여러 명이 들것을 만들어 부친 시신을 집으로 옮김. • 시신은 3일 후에 마을 뒷산(송골)에 가매장하였다가 전쟁이 끝난 후 현재 위치에 이장함. • 토벌군에 의한 부친 사살 사건은 마을주민 대부분이 알고 있었으나, 전쟁 중에 있을 수 있는 당연한 일로 알고 여태껏 지내 왔는데, 이제는 부친의 사망 원인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17	6502	김임갑	김○○ (남, 16)	조카	전문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숙부 김임갑은 1949년 음력 11월 산청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 5명(최명영·장재호 등)과 함께 연행되어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 (제사일 : 음력 11월 8일)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대검으로 처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김○○ (여, 32)	이웃	전문 (비료창고 구금 목적)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959 (진술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임갑은 1949년 음력 11월경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최명영·장재호 등과 함께 산청읍 비료창고에 연행 및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후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군경에 의해 처형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18	6863	황경준 황축천	문○○ (남, 27)	이웃	전문 (구금 및 연행 목적)	2007.8.29. 산청군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경준 · 황계천 형제는 빨치산이 마을을 습격하여 강침(마을 경비 담당) 대원 4명이 사망하자, 1949년 음력 7월 초 경찰에 의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구타당한 후 군경에 의해 끌려 나가 총살당함. • 황경준 · 황계천 형제는 1949년 음력 7월경 산청경찰서 경찰에 의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어 구타 및 고문을 당하다가, 1949년 음력 7월경 산청읍 차탄리 아산현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인근)으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총살당함.
			홍○○ (남, 27)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오부면 중촌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19	7042	최명영	김○○ (남, 16)	이웃	전문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명영은 1949년 음력 11월 산청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 5명(김임갑 · 장재호 등)과 함께 연행되어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경 (음력 11월 9일경) 산청읍 모고리 아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됨. • 최명영은 1949년 음력 11월경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김임갑, 장재호 등과 함께 산청읍 비료창고에 연행 및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후 산청읍 모고리 아산에서 군경에 의해 처형됨.
			김○○ (여, 32)	이웃	전문 (비료창고 구금 목적)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959 (진술조서)	
20	7360	오인호	김○○ (남, 13)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2010.5.3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인호는 1949년 8월 19일경(제사일 : 음력 7월 24일) 들에서 일하던 중 국군 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같은 날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로 끌려가 장박리 장박마을 거주 김천수 · 박고비와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 오인호는 1949년 8월 19일경(제사일 : 음력 7월 24일) 들에서 일하다가, 남원에서 온 국군 3연대에 의해 빨치산 짐 운반 혐의로 연행되어, 같은 날 황매산 밑 장고개에서 장박리 장박마을 거주 김천수 · 박고비와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 오인호는 1949년 8월 19일 (음력 7월 25일) 논에서 일하다가 국군 1개 중대에 의해 연행되어 황매산 밑 장고개로 끌려가 같은 마을 김천수 · 박고비 부부와 함께 국군에 의해 집단총살당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김○○ (남, 14)	이웃	시신 목적	2007.8.31. 진주시청 (진술조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21	7394	양경순 등 10명	권○○ (남, 13)	이웃	시신 목격	2009.5.19. 오부면 대현리 마을회관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2월 12일, 조모 김숙점을 비롯한 마을주민 10명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음. • 마을에 들어온 토벌대가 남아 있던 주민들을 보이는 대로 사살함. • 피란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피살된 마을주민들의 시신을 목격함.
			송○○ (남, 21)	이웃	시신 목격	2009.5.1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2월 12일, 조모 이숙이를 비롯하여 마을주민 10명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되었음. • 당시 부친이 청년단 간부로 있었는데, 사건 다음날 지서 경찰을 통해 군인이 우리 마을 사람들을 죽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을로 들어와 정자나무 밑에서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을 목격함.
			송○○ (남, 23)	이웃	시신 목격	2009.5.19.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2월 12일, 마을주민 10명이 토벌대에 의해 사살됨. • 시신수습을 위해 마을로 왔으나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고 뒷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송규선의 부친이 시신을 모시고 뒷산으로 와서 함께 매장함.
			홍○○ (남, 15)	친척	시신 목격	2010.2.23.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겨울 무렵, 토벌군에 의해 당숙 홍윤곤이 피살되었음. • 사건발생 후 총에 맞아 사망한 시신을 목격함. • 차황면 넘어가는 산길에서 홍윤곤이 사살당한 시신으로 발견되었는데, 마을주민들이 수습해 왔음.
			박○○ (남, 13)	이웃	전문	2010.2.24. 자택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정월 초에 마을주민 7~8명이 군 토벌대에 의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마을사람들로부터 들었음.
			최○○ (남, 13)	친척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 정월 초 사흘날, 사촌 형 되는 최완준이 오부면 대현리에서 토벌대에 의해 사살당했음. • 최수대(이명 낙서)에 대해서는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으나, 9촌 아저씨뻘이고 같이 사살된 부인 이름은 신안면에서 시집온 박매기댁이며, 당시 5~6세가량의 외손주 여아도 함께 살해됨.
22	7450	최우학	안○○ (남, 15)	이웃	전문	2010.3.28.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학은 1949년 음력 6월경 국군 3연대의 마을 소개와 소각으로 시천면 내공리 미륵사 인근에서 소개 생활을 했는데, 1949년 여름이 지나서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시천면 신천리 진등 언덕에서 총살당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22	7450	최우학	이○○ (남, 15)	이웃	전문	2010.3.28.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우학은 1949년 여름 국군 3연대의 마을 소개와 소각으로 시천면 내공리 미륵사 근처에서 소개 생활 중 1949년 음력 7월 보름에서 음력 8월 15일 사이 국군 3연대에 의해 덕산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시천면 원리 뒷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 총살됨.
23	7451	김상근	이○○ (여, 18)	이웃	전문	2010.2.4.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상근은 1950년 6월경 점심 무렵 식물을 잡으려고 집에 들어온 국군 3연대 군인에 의해 집에서 억울하게 사살됨.
			최○○ (여, 22)	이웃	전문	2010.2.4.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상근은 1950년 6월경 자택에서 식사 도중 마을에 주둔 중인 국군 3연대 군인에 의해 이유 없이 사살됨.
			김○○ (여, 18)	유족 (자부)	목적	2007.8.31. 진주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부 김상근은 1949년 음력 6월 14일 집 맞은 편 주택에서 음주를 하던 국군 3연대 군인 1명에 의해 아무 이유 없이 억울하게 집 마당에서 사살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24	7453	배영선	임○○ (남, 16)	이웃	전문	2010.1.13.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영선은 1949년 음력 8월경(추석 전) 함양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들과 함께 마을 동청에 집결되어 구타당하다가, 마을주민 10여 명(임재문·김타관·이두철 등)과 함께 함양읍 군 주둔지로 연행된 후 국군에 의해 함양에서 희생됨.
			배○ (남, 14)	이웃	전문	2010.1.13. 산청군 생초면 향양리 370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영선은 1949년 음력 8월경(추석 전) 함양읍 주둔 남원 3연대에 의해 마을 동청에 집결되어 구타당하다가, 마을주민 10여 명(임재문·김타관·이두철 등)과 함께 함양읍 군 주둔지로 연행된 후 국군에 의해 함양에서 희생됨.
25	7515	한윤생	손○○○ (여, 27)	이웃	연행 목적	2009.10.21.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50년 초겨울 무렵, 마을에 들어온 토벌군이 백곡초등학교에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치산 협조 금지 연설을 여러 번 하였는데, 그 즈음에 이웃이었던 한윤생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음. 이후 행방에 대해서는 모름. 전쟁 전에도 피란 다니던 중 산청군 일대의 산과 들에서 주민 처형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한 바 있음. 한 때는 덕산 강물이 핏빛이었음.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26	7717	김차조	박○○ (여, 7)	친척	전문	2010.1.25.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가을 무렵, 인민군에게 숙식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김차조가 다른 마을 주민들과 함께 2~3대의 트럭에 실려 가 사살되었다는 이야기를 남편과 시어머니(모두 작고)로부터 들었음. • 사건 당시 김차조와 함께 끌려갔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 처형 장소를 알려주어서 시어머니가 시신수습을 하러 갔으나, 시신들이 뒤죽박죽이고 사건현장이 운동 피투성이였기 때문에 무섭기도 해서 그냥 돌아왔다고 함. 	
			김○○ (남, 16)	친척	전문	2010.2.24.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이후 수복시기에 유엔군이 오면 사람을 죽인다는 소문이 돌아서 뒷산으로 피신해 있었는데, 이 시기에 먼 친척뻘인 김차조가 군인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들었음. • 김차조는 본인의 땅이 없어서 남의 논밭을 경작하는 가난한 사람이었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했으며, 죄익활동을 했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음. 	
27	7719	박우출	김○○ (남, 13)	이웃	전문	2010.1.12,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우출은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공출을 위해 차황면소재지로 가던 중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산청읍 주둔)에 의해 산청읍으로 연행되었다가, 산청읍에서 금서면 쪽으로 끌려가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리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우출은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공출을 위해 차황면소재지로 가던 중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28	8145	문홍조	이○○ (남, 12)	이웃	전문	2010.2.4.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산물, 소금 등을 지고 다니면서 장사하던 문홍조가 전쟁 발발 후 도민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단성면사무소로 만들기 위해 갔다가 경찰의 구타로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 사망 후 며칠이 지나 가족들이 시신을 수습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음. 	
29	8315	송성서 송진호	안○○ (남, 15)	이웃	전문	2010.3.28, 산청군 시천면 반천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서(이명 : 군호) · 송진호 형제는 1949년 음력 7월경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덕산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시천면 원리 뒷산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총살당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29	8315	송성서 송진호	이○○ (남, 15)	이웃	전문	2010.3.28, 산청군 시천면 내공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서(이명 : 군호) · 송진호 형제는 1949년 여름 국군 3연대에 의해 시천면 반천리가 소개 및 소각되자 시천면 내공리 후 평마을에서 소개 생활을 했는데, 1949년 음력 7월경 국군 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덕산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음력 8월 보름 전 시천면 원리 뒷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함.
			홍○○ (여, 22)	송성서의 제수	전문 (송진호 연행 목적)	2010.3.29, 진주시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숙 송성서(이명 : 군호)는 1949년 7월 중순경 경찰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로 연행되었고, 송성서가 연행된 지 5일 정도 후 송진호(송성서의 동생)도 단지 나무를 하러 갔다 왔는데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의심받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는데, 송성서 · 송진호 형제는 구 덕산지서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9월 24일(제사일 : 음력 8월 2일) 국군 3연대에 의해 구 덕산지서 뒷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당함. 진술인은 본 사건의 경위를 사건 당일 목격자(덕산지서 식사 제공자)의 증언을 들어 알게 됨.
			이○○ (여, 20)	송진호의 질부	전문	2010.4.14, 부산시 참고인 자택 인근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성서(이명 : 성호)는 1949년 7월 중순경 경찰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로 구 덕산지서에 연행 및 구금되었고, 송성서가 연행된 지 5일 정도 후 송진호(송성서의 동생)도 빨치산과 내통했다고 의심받아 경찰에 의해 구 덕산지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는데, 송성서 · 송진호 형제는 1949년 9월 24일(제사일 : 음력 8월 2일) 국군 3연대에 의해 덕산 구 장터 뒷산 실골(구 덕산지서 인근 야산)에서 집단총살당함.
30	8321	오규환	김○○ (남, 13)	이웃	전문	2010.1.12,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규환은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차황면 장박리 주민 10여 명과 함께 국군 3연대(산청읍 주둔)에 의해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산청읍으로 연행되었다가, 산청읍에서 금서면 쪽으로 가는 곳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규환은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차황면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경찰서에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31	8735	조주환 강월선 조인현	조○○ (남, 14)	친척	전문	2009.10.22. 덕산 문화의집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9월 말 경, 수복 직후에 토벌군을 피해 지리산으로 입산하였는데, 피란생활을 하던 중 신청인 조재현의 가족을 몇 번 만난 적이 있음. • 토벌군은 피란민이 일반 주민인 것을 알면서도 수류탄을 던져 죽게 만드는 일이 빈번했음. • 백야사 동계 토벌 때인 1951년 12월경에 함양군 휴천면에서 잡혀서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1952년 봄 무렵 풀려 남. • 형은 광주포로수용소에서 장질부사로 사망. • 귀가 후 조재현의 조부 등 가족 3명이 토벌대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
			정○○ ³⁴¹ (남, 15)	이웃	목격	2008.6.18. 진주 반도병원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강월선과는 같은 마을 출신으로, 1951년 동계토벌 시 같이 피란 중이던 조주환, 강월선과 품에 안겨 있던 아기 조인현(1세) 등 3명이 구타 사망·사살당하는 장면을 목격함. • 먼저 조주환(55세)이 토벌 군인들에게 구타당하여 다리뼈가 다 부러져 버린 후 사망하였음. • 그 후 강월선에게 토벌군 상급자가 “남편이 어디 갔느냐. 남편을 찾아내라.”고 추궁하면서 “안 찾아내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 • 강월선이 “마음대로 하라.”고 버티자 하급자에게 “데려가 죽이라.”고 명령하여 옆으로 끌고 가 사살해 버렸음. • 강월선이 안고 있던 아기(조인현)도 그 자리에서 사살해 버림.
			정○○ (남, 21)	이웃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11월경, 조주환 등 3명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마을주민들로부터 들었음. • 전쟁이 끝난 후 산에서 시신을 찾아와 마을 선산에 모셨음.
			조○○ (남, 13)	이웃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중 신청인 조재현의 가족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음. • 전쟁 후 시신을 수습, 선산에 모셨음.
			조○○ (남, 13)	이웃	전문	2010.2.25.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중이던 1951년 11월 경, 신청인 조재현의 가족 중 조부 조주환, 숙모 강월선, 그리고 그의 아들 조인현 등 3명이 토벌군에 의해 사망했고, 다른 식구 중 일부는 광주포로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가 병사했다는 이야기를 마을주민들로부터 들었음.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32	8736	진재석	김○○ (남, 16)	이웃	전문	2007.8.30. 산청군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재석은 1949년 음력 11월 초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8명과 함께 트럭으로 실려가 산청읍 비료창고(현 산청마트 소재)에 구금되어 구타와 고문을 당한 후, 1949년 12월 28일(음력 11월 9일)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 5명(김임갑·장재호·김집중·최명불상·강강민 등)과 함께 집단(수십 명) 희생되었고, 시신이 수습됨. • 진재석은 1949년 음력 11월 초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 9~10명과 함께 연행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음력 11월 9일) 마을주민 김임갑·김집중 등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되었음.
			장○○ (남, 5)	이웃	전문	2007.8.31. 진주시청 (진술조서)	
33	8827	박판대	김○○ (남, 13)	이웃	전문	2010.1.12,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판대는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공출을 위해 차황면소재지로 가던 중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산청읍 주둔)에 의해 산청읍으로 연행되었다가, 산청읍에서 금서면 쪽으로 가는 곳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 박판대는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공출을 위해 차황면소재지로 가던 중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경찰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34	8830	박완주	김○○ (남, 13)	이웃	전문	2010.1.12,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완주는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장박리 주민 10여 명과 함께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산청읍 주둔)에 의해 산청읍으로 연행되었다가, 산청읍에서 금서면 쪽으로 가는 곳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 박완주는 1949년 11월 19일경(음력 9월 말일) 장박리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산청경찰서에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빨치산 협조 혐의(국군 3연대에 의해 체포된 빨치산 여성이 지목)로 국군 3연대에 의해 희생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35	8901 9990	권세도	하○○ (남, 8)	이웃	전문	2010.2.3. 시천면 내대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세도는 1950년 음력 12월경 국군이 마을을 소개 및 방화하는 과정에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되었음.
			김○○ (여, 19)	이웃	전문	2010.3.29. 시천면 내대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세도는 한국전쟁 발발 후 음력 12월 말경 국군이 2차로 내대리 남대마을을 방화하며 주민을 덕산 면소재지로 소개시키던 중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남대부락 뒤 야산에서 억울하게 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되어 남대부락 뒤 야산 희생장소 옆에 매장됨.
			정○○ (남, 24)	이웃	전문	2010.4.15. 시천면 내대리마을회관 (진술녹취록) 2010.5.1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세도(갑자생, 시천면 내대리 남대마을 거주)는 1950년 음력 설달 그믐날(내대리 판기마을에서 김인구가 희생된 날) 국군에 의해 남대마을 거주지 인근에서 총살당함.
36	9240 9241	서판준 서금득	서○○ (남, 7)	가족 (아들)	연행목 격	2010.3.9.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1년 가을 무렵, 고향인 금서면 오봉리에서 소개당한 후 나와 살던 주상리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로 부친 서금득과 작은 아버지 서판준이 화계리 주둔 경찰 2명에 의해 연행되어 한 달가량 구금되어 고문과 취조를 받음. • 이후 산청경찰서로 넘겨져 9월 10일과 10월 11일에 서판준과 서금득이 각각 끌려나간 후 행방불명됨. • 소문에는 삼장면이나 함양군 인근에서 처형되었다고 함.
37	9248	권명이 권중명	이○○ (남, 18)	이웃	전문	2010.2.3.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이·권중명 형제는 1950년경 경찰에 의해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희생됨.
			이○○ (남, 11)	이웃	전문	2010.3.27. 산청군 신등면 모례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이·권중명 형제는 1949년 음력 3월 말경(담배 모종을 심을 때)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신등지서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됨.
			김○○ (여, 13)	제수	전문	2010.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이·권중명 형제는 한국전쟁 발발 전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진주형무소에 수감됨. 신등면사무소 직원이었던 권중명은 연행된 지 1개월 정도 후 귀가하였다가 다시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어 희생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김○○ (여, 13)	제수	전문	2010.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p>됨(제사일 : 음력 9월 24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이는 계속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진주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진주시 산골짜기(다부타고개)에서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됨(제사일 : 음력 6월 12일).
			권○○ (남, 22)	유족 (동생)	전문	2010.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명이(농업) · 권중명(신등면사무소 직원) 형제는 한국전쟁 발발 전 봄 산청경찰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진주형무소에 수감됨. 권중명은 진주지역 검사 문명불상의 도움으로 석방되었으나, 신등면 모례리 이장이 빨치산에 의해 살해당한 후 이장 아들과 모례리 권○○의 좌익 관련 무고로 다시 산청경찰서에 연행되어 구금되었다가 산청군 불상지로 끌려가 군경에 의해 즉결 총살당함(제사일 : 음력 9월 24일). • 권명이는 계속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어 재판도 받지 않은 상태였는데, 한국전쟁 발발 직후(제사일 : 음력 6월 12일) 진주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진주시 산골짜기로 끌려가 집단희생됨.
			권○○ (남, 17)	유족 (아들 · 조카)	전문	2010.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권명이는 한국전쟁 발발 전 억울하게 좌익 누명을 쓰고 연행되어 진주형무소에 수감되었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제사일 : 음력 6월 12일) 진주형무소 재소자들과 함께 군경에 의해 집단희생됨. 진술인은 한국전쟁 발발 전 진주형무소에 가서 권명이를 면회함(1회). • 숙부 권중명은 신등면사무소 직원이었는데, 권명과 함께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문명불상 검사의 도움으로 석방된 후 다시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됨.
			권○○ (여, 7)	유족 (딸)	전문	2010.6.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 권중명은 신등면사무소 직원이었는데, 한국전쟁 발발 전 좌익 관련 누명을 쓰고 군경에 의해 연행되었다가 석방됨. 권중명은 한국전쟁 발발 전 음력 9월(제사일 : 음력 9월 24일) 다시 군경에 의해 연행되어, 국군 3연대에 의해 트럭에 실려 산청군 덕산 야산으로 끌려가 집단총살당함.
38	9378	권재만	강○○ (남, 18)	이웃	전문	2010.2.3.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재만은 1949년 음력 7월경 농사일을 하던 중 토벌 작전을 하던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됨.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38	9378	권재만	권○○ (남, 7)	조카	전문	2010.2.3. 산청군 단성면 청계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 권재만은 1950년 7월경 농사일을 하다가 마을 소개를 진행하던 국군에 의해 연행되어 희생됨.
			권○○ (남, 13)	이웃	전문	2010.6.27,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 권유현의 아버지는 한국전쟁 발발 전 추수 직전 단성면 청계리 진자마을에서 농사일을 하다가, 국군 제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신등면 단계리 산골짜기에서 총살당함.
39	9882	김천수 박고비	김○○ (남, 13)	조카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2010.5.31,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 김천수 · 박고비는 1949년 8월 19일경 (제사일 : 음력 7월 24일) 들에서 일하던 중 국군 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같은 날 황매산 밑 장고개 배나무평지로 끌려가 장박마을 거주 오인호와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송○○ (남, 18)	이웃	전문	2010.3.26, 산청군 차황면 장박마을경로당 (진술조서)	• 김천수 · 박고비는 1949년 8월 19일경 (제사일 : 음력 7월 24일) 들에서 일하다가, 남원에서 온 국군 3연대에 의해 빨치산 집운반 혐의로 연행되어, 같은 날 황매산 밑 장고개에서 장박마을 거주 오인호와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했고, 시신이 수습됨.
40	10325	정화석	정○○ (남, 18)	조카	전문	2010.2.3.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 정화석은 빨치산의 요구로 생존을 위해 여쩔 수 없이 빨치산에게 식량을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 1949년 음력 7월경 좌익으로 몰려 마을주민들과 함께 신등지서 경찰에 연행되어 군경에 의해 희생됨.
			정○○ (남, 16)	이웃	전문	2010.3.27, 산청군 신등면 간공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 정화석은 신등면 좌익활동가 정기석의 심부름을 해준 적이 있었는데, 1949년 음력 7월 보름(백중)경 정기석이 신등지서 경찰 2명과 치안대원 3명에 의해 연행되어 취조 받은 후 신등면 간공리 주민 10여 명과 함께 좌익 협조 혐의로 신등지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신등지서와 산청경찰서에 구금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됨.
41	10670	민만호	민○○ (남, 32)	이웃	전문	2010.2.2.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참고인 자택 (진술서)	• 민만호는 1949년 8월경 산청경찰서 경찰 3~4명에 의해 오부지서로 연행되었다가 군경에 의해 희생됨.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적/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41	10670	민만호	김○○○ (여, 18)	이웃	전문	2010.3.25. 산청군 산청읍 차탄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만호는 1949년 10월 5일경(추석 전날)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 덕산 소재 국민학교에 구금되었다가, 같은 해 11월 1일경(제사일 : 음력 9월 10일) 군경에 의해 희생됨.
42	10676	김명준	권○○ (여, 17)	제수	전문 (연행 목적)	2010.3.30. 진주시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숙 김명준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1949년 음력 3월 초순경(빨치산에 의한 단성지서 방화 3일 후) 창촌리 구민마을 거주 허○○를 찾으러 온 단성지서 특공대 2명에 의해 허○○ 대신 포승줄에 묶여 다른 주민들과 함께 단성지서로 연행 및 구금되었다가, 취조 시 지적 장애로 단성지서 방화를 시인하는 답변을 하여 구금 3일 후인 1949년 음력 3월 중순경 군경에 의해 남원으로 끌려가 희생됨.
			정○○ (여, 13)	제수	전문	2010.4.2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숙 김명준은 지적장애인이었는데, 한국전쟁 전 군경에 의해 좌익 혐의로 같은 마을 주민 2명과 함께 연행되어 취조 시 아무 것도 모르는데 무조건 '예' 라고 대답하여 국군에 의해 남원으로 끌려가 희생됨.
43	10677	장재호	김○○ (남, 16)	이웃	전문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참고인 자택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재호는 1949년 음력 11월 산청읍 주둔 국군 3연대에 의해 마을주민 5명(김임갑·최명영 등)과 함께 연행되어 산청읍 비료창고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경(음력 11월 9일경)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됨.
			김○○ (여, 32)	이웃	비료창고 구금 목적	2010.1.13. 산청군 산청읍 범학리 959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재호는 1949년 음력 11월경 국군에 의해 마을주민 김임갑·장재호 등과 함께 산청읍 비료창고에 연행 및 구금되어 고문을 받은 후 산청읍 모고리 야산에서 군경에 의해 처형됨.
			박○○ (여, 14)	이웃	전문	2008.4.23. 산청군청 (진술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재호(범학리 자신마을 거주 장인준의 삼촌)는 1949년 12월 27일경(음력 11월 8일) 군경에 의해 자신마을 주민 2명(최명영 등)과 함께 산청경찰서로 연행되었다가, 같은 날 저녁 산청읍 차탄리 야산에서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희생됨.
			김○○ (남, 10)	이웃	전문	2010.6.7. 진실화해위원회 (통화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도태의 아버지는 1949년 음력 11월경 진술인의 부 김주생(이명: 김집중) 등 산청읍 범학리 자신마을 주민들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연행되어 산청읍 군 주둔지에 구금되었다가, 1949년 12월 28일(제사일: 음력 11월 8일) 산청읍 모고리 야산(뒷산)에서 김주생 등과 함께 국군 3연대에 의해 집단총살당했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44	4006 6502 6863 7042 8736 10677 관련	김병우 김임갑 황경준 황축천 최명영 진재석 장재호	오○○ (남, 27)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주민	목격	2009.3.13,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마을회관 (진술조서) 2010.3.26,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아산 현장 (진술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술인은 1922년 출생으로 27세인 1949년 여름 음력 7월경(보릿대 모자를 착용) 산청읍 장에 갔다가, 산청경찰서 경찰의 부탁으로 다른 주민 7명과 함께 모고리 아산으로 오게 됨. • 모고리 아산에는 국군 수십 명이 둘러서서 경계를 서고 있었고, 민간인 30여 명 이상이 연행되어 앉아 있었음. 민간인 앞에 착검 총기를 소지한 경찰 10여 명이 집결하였음. 당시 국군의 말에 따르면 피연행 민간인들은 산청군 일대에서 빨치산 협조 혐의(식량 제공 혐의, 전신주 절단 혐의)로 연행된 주민들이었음. 이들은 20~30대 남성 이 다수였으나, 빨치산에게 식사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연행된 여성들 3~4명도 포함됨. 군인들은 이들이 빨치산의 강요와 협박에 의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빨치산에게 협조한 억울한 주민들이라고 말함. • 진술인은 다른 7명과 함께 군경의 지시에 따라 피연행 민간인들이 있는 곳에서 20m 정도 이격된 곳에 직사각형의 구덩이(깊이 1m 미만 : 시신 매장 시 40~50cm 정도 남음)를 파고, 구덩이를 파자 군경의 지시에 따라 구덩이에서 약 30m 이격된 곳에 대기하며 피연행 민간인 살해 광경을 목격함. 군은 피연행 민간인 1인을 호명하여 경찰에게 총검으로 척살할 것을 지시했으나, 경찰이 차마 척살하지 못함. 그러자 군이 직접 피연행 민간인 1인씩을 호명하여 총검으로 가슴을 찌르는 방식으로 척살한 후 발로 차서 총검을 빼내어 시신을 바로 뒤에 있는 구덩이에 떨어뜨림. 군인 1인당 민간인 1명을 척살하는 방식이었고, 국군은 살해 종료 후 구덩이 안에 무차별 총격을 가하여 확인사살함. 이후 진술인과 함께 동원된 8명의 주민들이 구덩이에 흙을 덮었음. 흙을 덮는 중 척살된 1인이 머리를 내밀고 구덩이에서 나오려 하자 국군이 그의 머리를 밟아 구덩이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흙을 덮었음. • 진술인은 본 사건으로 총 35명의 주민들이 국군에 의해 척살당하는 것을 목격함. 피연행 주민들 중 1명은 국군에게 소리를

제 5 권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44	4006 6502 6863 7042 8736 10677 관련	김병우 김임갑 황경준 황축천 최명영 진재석 장재호	오○○ (남, 27)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주민	목격	2009.3.13, 산청읍 산청읍 모고리마을회관 (진술조서) 2010.3.26, 산청군 산청읍 모고리 아산 현장 (진술녹취록)	치며 억울함을 호소하여 살해되지 않고 군 경에 의해 다시 끌려감. • 국군은 당시 수십 명 규모였는데, 호남 출신이 많았던 제3연대로 산청국민학교에 주둔함. 진술인은 본 사건 현장에서 군인들 이 중대장을 찾는 소리와 중대장 지시로 피 연행 민간인을 살해한다는 말을 들었음. • 본 사건 현장의 명칭은 원지등 하단 '붉은 덩이'이며, 현재 현장에서 5m 정도 이격된 장소에 인동 장 씨(諱再植)의 묘지가 있으 나, 본 사건 당시에는 묘지가 없는 산언덕이 었음. •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정문 앞 일대는 한 국전쟁 전후 군경이 여러 차례 2~4명씩 민간인을 연행하여 살해하던 장소였음.	
45	8315 관련	송성서 송진호	김○○ (남, 27)	덕산지서 인근 주민	목격 및 시신 매장	2006.11.28. 자택 (진술조서)	• 마을주민들을 덕산국민학교와 농회창고 에 구금하여 고문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목 격했음. • 덕산국민학교 뒷산과 남명조식 묘소 뒷 산에서 국군이 학살하면 현장에 있다가 마 을사람들과 함께 시신을 매장했음.	
46	8315 관련	송성서 송진호	조○○ (남, 14)	덕산지서 인근 주민	전문	2007.6.13. 자택 (진술조서)	• 마을주민들을 구금했던 농회창고 옆에 거주 • 진술인의 아버지가 농회창고에 잡혀갔 다 풀려났으며, 아버지의 말에 의하면 국군 이 농회창고 안에서 고문을 함. • 농회창고 안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비 명을 지르는 소리가 나기도 했으며, 저녁때 남명 조식 묘소 근처에서 총소리가 났음.	
47	다-4006 6502 6863 7042 8736 10677 관련	김병우 김임갑 황경준 황축천 최명영 진재석 장재호 관련	김○○ (남,17)	산청읍 주민	전문	2010.6.12, 산청읍 산청리 참고인 자택 앞 (면담보고서)	• 본 사건 당시 거주지 및 신분 : 산청읍, 산청중학교 학생 • 진술인은 1949년 여름에서 가을까지 산 청국민학교에 국군 제3연대가 주둔하고 있 는 것을 목격함. 당시 3연대는 산청경찰서 뒷산에도 경찰과 함께 주둔했음. 산청읍 수 계정 공원과 꽃봉산에는 군경이 아닌 특공 대가 주둔함. 당시 금서면에서는 평촌국민 학교에 3연대가 주둔했음. • 국군 제3연대 주둔 전에는 국군 제5연대 가 주둔했는데, 5연대 주둔 당시에는 빨치 산 토벌이 별로 없었고, 5연대는 훈련하 다 가 간 것으로 기억됨. • 1949년경 빨치산이 웅석봉에서 내려와	

연 번	사건번호	진실규명 대상자	참고인				주요 진술
			이름 (성별, 당시 나이)	관계	목격/ 전문	진술시기 진술장소 (진술형태)	
47	다-4006 6502 6863 7042 8736 10677 관련	김병우 김임갑 황경준 황축천 최명영 진재석 장재호 관련	김○○ (남,17)	산청읍 주민	전문	2010.6.12, 산청읍 산청리 참고인 자택 앞 (면담보고서)	<p>산청경찰서 등을 습격하여 군경과 교전을 벌임. 3연대가 경찰과 합동으로 빨치산을 추격 및 생포함. 빨치산은 도주하며 주민들로부터 소와 식량 등을 탈취해 감. 이에 산청국민학교 주둔 국군 제3연대는 빨치산에게 쌀이나 소를 제공 또는 탈취당하거나 집을 운반해주는 등 심부름을 해준 빨치산 협조 혐의 양민을 조사하여 현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인근 원지등 붉은덩이로 끌고 가 총살함. 당시 군경은 마을에 빨치산을 잡으러 왔다가 수상하면 주민들을 연행하여 빨치산 협조 관계를 취조하여 희생시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읍 민간인 구금장소 관련 : 산청읍 허경호 씨 창고는 당시 허경호의 개인 정미소 창고를 산청군(정부)이 세를 주며 임대한 것으로 쌀가마를 저장했음. 규모는 3~4동 정도로 매우 컸으며, 위치는 현재 산청군 농협하나로마트 일대(하나로마트와 인근 한의원 자리)였음. 그러나 허경호 씨 창고에 당시 민간인들이 군경에 의해 구금되었다는 소문은 들은 적이 없음. 산청경찰서 무도관에서 일제 강점기부터 사상범을 조사했으며, 무도관을 창고처럼 사용한 적이 있어 흔히 창고라고도 불렀음. • 원지등 붉은덩이는 산청읍 상수도 정수장 인근 황도흙(붉은 흙) 산언덕임.

341) 참고인 정영환(1936년 8월 8일생)은 사건 목격자이나 2008년 6월 18일에 투병 중 사망하였다(사망기록, 삼장면사무소,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신청인 조재현은 참고인이 사망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면담기록을 2010년 2월 25일에 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고인은 면담 당시 병원에서 투병 중이었고, 면담 직후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조사가 불가능하였다.

〈별표 3〉 군경 관련 참고인 주요 진술내용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	이○○ (30)	산청경찰서 방위대장	2010.2.23. 참고인 자택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후, 미군과 함께 산청으로 수복해 들어 옴. 그 후 오부면 일몰리 일대 토벌을 다녔음. 지리산 일대도 군경과 함께 토벌 다녔음. • 한국전쟁이 터지자 보도연맹원들이 경찰서에 잡혀 있다가 경찰들이 후퇴하면서 죽인 것은 사실임. • 나중에 특공대장이 되어 경찰의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특공대가 빨치산으로부터 노획한 소련제 무기 등도 보유하고 있었음. 당시 산청경찰서장은 박우범이었고, 우리 특공대를 빨치산들이 ‘땡땡부대’ 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였는데, 빨치산 집기로 유명한 강만수도 우리와 함께 일했음. 	
2	민○○ (22)	산청경찰서 의용경찰	2009.12.1.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진술 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전쟁 발발 전 산청에서 의용경찰을 지냈음. • 1951년 11월 28일에 경찰에 입문하여, 산청경찰에 있다가 서남지구전투사령부 5연대 수색작전대에 근무. 공비토벌작전 시 지리 안내 임무 수행. • 1949년 초겨울 무렵, 토벌작전을 하던 군을 위해 부식보급을 하던 중 금서면 수철리 뒷산에서 헛바지를 입은 20여 명의 시체를 본 적이 있음. 같이 간 인부들이 이들 시체가 오부면 일몰리 사람들이라고 진술한 바 있음. • 수복 후 산청에서 부역자는 모두 자수시킴. 죽은 사람 없음. 적극적인 부역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가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역한 사람들은 우리가 자수시켜 살려주었음. 	다-76호
3	강○○ (20)	11사단 13연대 1대대 4중대	2009.7.31. 거제도 자택	진술 녹취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10월 1일에 입대하여 3주간의 훈련을 마친 후 11사단 13연대 1대대 4중대에 배속(대대장 한동석) • 10월 하순경 진주에서 함양을 거쳐 거창읍에 들어가 수복작전을 폈음. 거창읍에 3~4일간 주둔하였는데, 수복작전을 펴면서 빨치산을 향해 박격포를 쏘자 흩어져 도망갔음. 거창읍에 들어가니 인민공화국기가 그대로 걸려 있었음. • 이후 전라도 일대에서 빨치산 토벌작전을 전개하였는데,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작전을 하였으며, 때로는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되는 경우도 있었음. 	
4	김○○ (30)	사천경찰서 경찰	2010.1.14. 사천시 벌운동사무소	진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0년 10월경, 부산경찰학교에서 한 달가량 교육을 마친 후 삼천포경찰서 보안계로 발령이 난 후 계속 근무함. • 전쟁 전후에 사천군 일대는 다른 곳보다 좌익세가 강했음. 좌익 중 송지리 평송부락 출신 강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4	김○○ (30)	사천경찰서 경찰	2010.1.14. 사천시 벌운동사무소	진술서	<p>황룡과는 용현면사무소에서 같이 근무한 적이 있어서 잘 알고 있으나, 송지리사건(다-9992호)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익 처리와 명단 작성 등 관리는 사찰계에서 주로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함. • 남양 출신 김○○도 들어서 알고 있으며, 하동과 지리산으로 연결되는 와룡산에는 이지트가 있었고 빨치산 규모가 꽤 컸음. 이들은 무기도 갖고 있어서 경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했음. • 군대가 와룡산에 있는 빨치산을 토벌하러 온 적은 없음. 와룡산 빨치산 소탕은 전쟁 다음해쯤 완료된 것으로 보임. • 본인의 경우 빨치산토벌작전에 동원되어 산청의 한 지서에서 경비를 선 적이 있음. • 수복 이후에 부역혐의자에 대한 처리와 명단 작성 등 관리는 사찰계에서 했으며, 끌려 온 사람들이 자술서 쓰는 것을 본 적이 없음. • 보안계에서는 범법자들을 진주형무소로 송치했음. • 신백리의 마을 정보원 위삼술(다-9853·9854호)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알고 있음. 나중에 도의원도 한 인물임. 	
5	김○○ (27)	산청경찰서 사찰계	2009.11.19.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수립 직후 경찰에 입문. 부산 7관구 경찰청에서 1개월간 교육받음. 경찰 31기로 졸업 후 여순사건이 일어났으며, 그 즈음 산청군 삼장면 지서로 발령이 났음. • 이후 화계, 산청읍, 차항, 화계 순으로 지서 근무를 했음. • 1951년 2월경, 금서면 화계리 주둔소에 근무했음. 소장은 박동춘이었음. 의용경찰을 포함해 50 여 명이 근무하고 있었음. • 전후 군경 토벌작전에서 화계리 주민들은 한 명도 희생된 바 없음. • 전후 부역자 처리 과정에서도 주민은 한 명도 경찰에 의해 처형되지 않았음. 부역자는 모두 자수시켜 포섭했음. 내 손으로 죽인 사람은 한 명도 없음. • 당시 사찰계에는 임주례, 김판식, 황수모 등 총 8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계장은 변차수 경위임. • 통상 면지서에는 정식 경찰 3~5명, 의용경찰 10~20명 정도가 있었으나, 삼장면과 시천면, 금서면 등에는 공비토벌 강도가 셧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의용경찰이 40~50명 정도가 있었음. 	

제 5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5	김○○ (27)	산청경찰서 사찰계	2009.11.19.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용경찰의 무장은 38식, 99식이었음. • 본인의 사찰지역은 금서면 화계리, 자혜리, 유림면 등이었음. • 마을마다 작성되어 있던 보도연맹 명부가 있었는데, 도망가느라고 정신이 없었기 때문에 보도연맹원들 처리할 시간이 없었음. • 수복 후 부역자 처리는 경찰이 한 것이 아니라 군에서 했음. 3연대가 했음. • 처리 방법은 군에서 전화를 하는 것이었는데 “몇 명 죽여라.” 고 함. 당시는 개엄령 하라 군이 힘이 췌는데, 나도 날리는 사람이었지만 군인 앞에서 무릎을 꿇었음. 군이 경찰을 기합 넣기도 하고 말 안 들으면 총살시키겠다고 협박도 했는데, 우린 무서워서 군을 가까이 하지 않았음. 군이 토벌작전을 지휘했고 우리 경찰들은 심부름만 함. • 부역자가 모두 진짜가 아님. 빨갱이들은 모두 도망갔음. 남은 사람들은 양민들인데 군인들이 잡았음. 애매하게 죽은 사람도 더러 있음. 불가피했음. • 당시 보도연맹원들 안 죽였으면 우리가 그들 손에 죽었을 것임. 명예회복 타령은 잘못된 것임. 	
6	강○○ (21)	산청경찰서	2009.11.19.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8월에 경찰에 입문, 부산경찰학교에서 훈련받음. 49기. • 졸업 직후 산청으로 발령. • 산청 일대에서 토벌작전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작전계획에서부터 지시까지 다 했음. • 작전수행 군의 소속은 수도사단 기갑연대라고 들음. • 토벌작전에서 일반 주민들이 많이 희생된 이유는 군에서 내린 소개령을 안 받아 들였기 때문임.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음. • 소개령의 내용은 “가재도구 다 버리고 어디 지점으로 모여라.” 라는 것으로, 주민들이 터전을 버리고 가는 것도 어려웠고, 빨치산들이 빼앗은 경찰 옷으로 갈아입고 마을을 출입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진짜 군경의 지시인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주민들이 소개에 응하지 않았음. 금서면 화계리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 경찰은 부역자를 처형한 적이 없음. 부역혐의자들로부터 자수서를 받았고, 그래서 이 들은 입대도 안 했으며, 일부는 의용경찰이나 특공대로 채용하여 쓰기도 함. • 보도연맹원은 산청에서 많이 처형되었는데, 경찰이 후퇴하면서 신등면 단계 산골에서 처형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6	강○○ (21)	산청경찰서	2009.11.19.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통화 보고서	<p>하고 함안으로 도망갔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시가 어디로부터 내려왔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전쟁이 터지자 “보도연맹원들이 척후병 행세를 하나까 차라야 한다” 고 했고, “2급부터 처리하라.” 는 지시가 내려온 것으로 들었음. 	
7	박○○ (20)	산청경찰서	2009.12.1.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이후 경찰에 입문 • 산청경찰서에 소속되어 휴전될 때까지 공비 토벌 다님 • 1950년 8월 5일에 이현상 부대를 상대로 싸운 적이 있음. • 전쟁 전에는 방위군으로 있다가 의용경찰이 되었는데, 산청경찰서에는 의경이 80명, 방위군이 80명 등 총 160명이 있었음. 	
8	김○○ (31)	산청경찰서 오부지사	2009.12.2. 거창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52년 가을에 경찰에 입문, 이후 서전사에 배속되어 토벌 다님. • 1953년 산청경찰서 오부지사로 발령남. 부곡 마을에 파견 나가 요시찰인물이었던 안○○, 강○○의 출현 여부 등 동태를 감시하는 임무를 수행했음. 주로 사찰 임무였음. • 지서에 요시찰인명부가 비치되어 있었음. • 고향인 거창군 웅양면에서 인민군이 진주했을 때 의용군으로 징집된 적이 있으나 빠짐. • 인민군 진주 시 인민위원회, 여맹, 민청 등이 조직되어 있었음. • 당시 웅양면에 진주한 인민군에 의한 민폐는 없었음. • 공비토벌은 작명에 따라 했음. 	
9	안○○ (22)	거창경찰서 경무계	2009.12.2. 거창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입문 시기는 1951년 9월 9일임. • 1951년 11월에 거창경찰서 경무계에 소속되어 주로 인사문제를 다룸. 공비토벌 나간 적 없음. • 거창사건의 유봉순과 박세복을 알기는 하지만 얘기를 나눈 적은 없음. • 경찰에서 하는 공비토벌은 자수한 빨치산을 중심으로 사찰유격대를 조직, 이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짐. • 1953년 4월 30일에 서전사가 창설되었고, 남원에 사령부가 있었으며 초대사령관에 신상묵, 이후 이하영과 김종원 등이 사령관을 역임함. 1955년에 해체됨. • 파출소, 지서에 부역자와 요시찰인명부가 있었음. • 인민군 진주 시 부역행위를 한 사람들은 모두 다 자수해서 살았음. 죽은 사람 없음. • 조사를 받던 부역혐의자 중 자술서를 성실하게 쓰지 않는 경우 심하게 다룬 경우도 있음. 	

제 5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0	백○○ (29)	동래경찰서	2009.12.3.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황해도 장현 출신으로 전쟁 발발 직전 월남함. • 경찰 입문 시기는 전쟁 발발 이후임. • 경찰 입문 전에는 서대문 형무소 형무관으로 있었음. 법무부 소속이었음. • 전쟁 발발 직후 서대문 형무소에서 주요 죄악 인사들을 처형한 것은 김종원이었음. 처형에 헌병대가 투입됨. 약 4천 명의 재소자가 있었음. • 경찰 입문 후 동래경찰서에 배속되어 활동. • 1956년 1월 30일에 산청경찰서로 전근. • 정보과(사찰계) 근무. • 서장은 강명불상으로 산청군 내리 사람이었고, 사찰계장의 이름은 기억 안 남. 본인은 계장 밑에 차석이었음. • 경찰서에 요시찰인명부가 있었음. • 오부면 일몰리는 관내 순찰 명목으로 여러 번 갔음. • 마을주민 중 김종대라고 마름하던 사람을 주로 만났는데, 당시 구장을 하고 있었음. • 전쟁 전후에 발생한 오부면 일몰리 주민 집단 처형사건에 대해서는 모름. 	
11	유○○ (26)	산청경찰서 금서지서 순경	2009.12.3.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 입문은 전쟁 직후로, 경찰 10기임. • 1951년 1월 31일에 금서지서로 발령받음. • 오부면 일몰리 사건의 주민들은 경찰이 차로 덕산까지 실어가 그 다음에는 걷게 해서 삼정면 대원사 밑자락 토마골에서 처형함. 	
12	김○○ (22)	사천경찰서 순경	2009.11.14.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중 함양경찰서 재직 • 종전 후 1956년도에 사천경찰서 재직. 수사계 근무 • 사찰계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 • 경찰서에 부역자명부가 비치되어 있었음. • 수복 후 부역자에 대해서는 다 자수시켜 살려 주었음. 처형한 적 없음. • 사천경찰서 부임 후에도 해당 경찰서에서 전쟁 중 부역자 처형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 	
13	이○○ 342) (20)	산청경찰서 순경	2010.1.11. 진주 고려병원입원실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쟁 발발 직후 경찰에 입문. • 오부면 일몰리 사건은 모름. • 경찰 수복 후 산청 일대의 부역자 처리는 이승만의 사형금지 공포에 의해 즉결처분하지 않았음. • 웬만한 경우 부역자를 살려주었음. 	
14	김○○ (23)	울산경찰서 순경	2009.12.1.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7년 8월 19일에 경찰에 입문(경찰 20기) • 당시 경상남도는 제7관구에 속했으며, 관내 총 24개의 경찰서가 있었음. • 초기에는 부산, 마산, 진주 등 세 곳에 교습소를 설치, 1주일간의 교육을 받았음. 19기부터 교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4	김○○ (23)	울산경찰서 순경	2009.12.1. 산청경찰서 경우회 사무실	면담 보고서	<p>육기간이 3개월로 늘어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졸 이상의 학력자가 경찰에 입문하였으며, 시험을 쳐서 들어감. • 경찰 고위층은 일제 시 경찰법을 그대로 갖고 와 적용했음. • 전쟁 발발 시 울산경찰서에 재직 중이었는데, 보도연맹 800여 명을 연무관에 소집하여 갑, 을, 병 등으로 나누어 위원장과 간부 등에 해당하는 갑과 을은 유치장에 구류시켰음. 연무관 경비를 썼는데 신 내가 냈음. • 경비 중 잡혀 있던 사람들이 밤마다 사라졌는데, 풍문에 의하면 밤에 쇠사슬로 묶은 후 트럭에 실어 가 연화산에 파놓은 구덩이에서 처형했다고 함. • 이들은 사복차림의 군특무대였으며, 경찰은 따라 가기만 했음. 당시는 경찰이 맥도 못 추던 때임. • 종전 후인 55년도에 산청군 덕산지서장으로 부임함. • 합천경찰서 재직 시 '요사찰인명부 없애라.' 는 지시가 내려왔으나, 형사계장 임 경위가 "빨갱이 족보를 없애라는데 못 없앤다." 고 한 적이 있음. 계속 보관했을 가능성이 있음. 	
15	양○○ (19)	5연대 1대대 1중대	2009.5.16. 부산시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해 출신으로 1948. 7. 1. 부산 5연대에 7기로 입대 • 5연대 화랑도특별소대 배속, 여순사건 진압에 참여, 부산 복귀 후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에 참전하여 산청, 덕산 등에서 1개월 간 체재함(이 후 태백산지구 및 삼척, 울진, 포항 등으로 공비 토벌 다님. • 화랑도특별소대는 여순사건 진압 후 지리산 지구공비토벌 출동하면서 폐지됨. • 당시 5연대 지휘관은 연대장 장도영, 1대대장 김종원 등이었음. 	
16	강○○ (20)	5연대 1대대 1중대/ 연대본부	2009.5.16. 부산시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해 출신, 경찰에 대한 반감으로 1948.6.4. 부산5연대에 입대 • 여순사건 진압 후 대대장 김종원의 지휘 하에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에 참전하여 산청, 덕산 등에서 1년 6개월간 반군 토벌작전 전개. • 당시 지리산에서 수도사단과 2연대를 만났음. • 마지막 천왕봉 전투에서 이군 약 15명이 전사함. 	
17	이○○ (20)	5연대 3대대 12중대	2009.5.18. 부산시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밀양 출신. 1949. 7. 4. 5연대 입대. • 1949년 5연대가 대전으로 이동하여 온양에 주둔하며 지리산지구 공비토벌작전에 참전. • 지리산공비토벌 시 남원, 구례, 산청, 함양, 곡 	

제 5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17	이○○ (20)	5연대 3대대 12중대	2009.5.18. 부산시 자택	면담 보고서	<p>성 등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민간인들이 식량 제공 등 협조사실을 제대로 말하지 않아서 이군에 의해 즉결처분당한 사례가 많았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에서 수색대가 빨치산 및 민간인 복장을 한 반군 혐의자를 생포하여 주둔학교로 연행한 후 중대장이 대대장에게 보고, 살해를 지시하여 총기로 살해한 경험이 있음. • 민간인 즉결처분은 상부의 명령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대대장과 중대장이 좌익혐의 여부를 판단하여 상부에 보고한 후 처리함. • 주로 중대장이 민간인 즉결처분 지시를 내렸으며, 선 조치 후 상부(연대장)에 보고하는 경우도 많았음. • 민간인 즉결처분 방법은 구덩이를 파고 총살한 후 매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러한 사례는 산청과 함양뿐만 아니라 구례, 곡성, 남원, 하동 등 지리산 일대에서 많이 발생함. • 민간인 희생자 중에는 반군 및 좌익과 무관한 억울한 사람들도 많았음. 	
18	김○○ (18)	5연대 3대대 중화기중대	2009.5.20. 경남 창원시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남 진해 출신. 1947. 7. 1. 대산중학교 재학 중 5연대 입대. • 산청 등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참전. • 지리산지구 반군 토벌작전에 6개월 정도 참전, 산청군 시천면 덕산국민학교에 소속 중대 150여 명이 주둔함. • 당시 5연대를 백골부대라고 불렀으며, 5연대 군인의 철모에 해골(백골) 마크가 새겨져 있었음. • 3사단 백골부대는 5연대를 말하며, 백골부대가 당시 지리산 일대를 돌아다니며 반군을 토벌함 	
19	권○○ (22)	5연대 3대대 4중대	2009.5.20. 경남 창원시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경남 하동 출생. 1948. 7. 1. 5연대 입대 • 지리산 전역에서 중대별로 행군 및 작전을 하였는데, 반군과 반군 가담자를 한 명도 잡지 못했음. 	
20	이○○ (25)	5연대 1대대 4중대	2009.6.23. 경기도 성남시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5. 12. 21. 강원도 평강군 서면 문봉리 출생. 1947년 월남, 1948. 6. 9. 5연대 입대. • 여순사건 진압 후 산청, 함양, 덕산 등에서 지리산지구공비토벌작전 전개. • 이후 안동, 영동 등에서 태백산지구공비토벌작전 전개. 	
21	주○○ (18)	5연대 1대대 4중대	2009.8.5. 진실화해위원회	통화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3.1. 5연대 입대. • 산청, 덕산 등 지리산지구 공비토벌 참전. 	
22	임○○ (23)	4(20)연대 2대대 6중대	2008.10.15. 광주시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7년 전남 나주군 동강면 대지리 출생. • 1948년 4연대 입대. 	

제 2 부 제2소위원회 사건(2)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22	임○○ (23)	4(20)연대 2대대 6중대	2008.10.15. 광주시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군 토벌작전의 하나로 구례, 곡성, 남원, 산청 등 지리산지구에서 작전함. • 마을 이장 등이 토벌군에게 반군 협조 관계를 제보하면 정보과에서 조사하기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군경에게 끌려가 조사나 재판 없이 즉결처형 당하는 일이 있었음. 	
23	정○○ (21)	4(20)연대 2대대/ 5여단 병참부 수송부	2008.10.15. 광주광역시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년 전남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에서 출생. • 1948년 4연대 입대. 5여단 병참부 수송부 운전병. • 여수, 순천 외에도 구례, 곡성, 남원, 광양, 보성, 고흥, 하동, 산청 지역 토벌을 위해 병력을 수송함. • 수색 및 작전 지역에서 군이 조사와 재판 없이 민간인을 즉결 총살한 경우가 많았음. • 작전 후 민간인을 조사하여 처형한 경우도 있었음. • 한 부락에서 수십 명씩 군과 경찰에 의해 즉결 총살되었으며, 억울한 죽음이 많았음. 	
24	이○○ (21)	11사단 9연대 수색대	2008.10.16. 전남 순천시 참고인 자택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29년 전남 순천 금곡동에서 출생. • 1949. 1. 15. 15연대 2대대 6중대 입대. • 전쟁 시 11사단 9연대 수색대 소속으로 거창지역 작전에 투입. 	
25	하○○ (20)	산청경찰서 의용경찰	2007.8.8. 산청군 덕산 문화의집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청경찰서 의용경찰로 근무할 당시 농회창고 보조를 서다가 농회창고 뒷산에서 민간인이 사살당하는 현장을 목격함. 	
26	조○○ (25)	산청경찰서 의용경찰	2007.10.26. 산청군 시천면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사건 당시 의용경찰 부대장으로 근무 • 국군 3연대가 농회창고 뒷산에서 민간인을 사살하는 현장을 여러 차례 목격함. • 당시 의용경찰은 군 정보과의 지시에 따라 농회창고 뒷산에서 사살한 민간인의 시신을 매장하기도 함. 	
27	조○○ (25)	산청경찰서 의용경찰	2007.10.26. 시천면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3연대가 민간인을 농회창고로 연행하여 구금했을 때 보조를 썼으며, 농회창고 뒷산에서 민간인을 사살한 사실을 알고 있음. 	
28	이○○ (20)	국군 3연대 보급중대	2007.3.22. 서울시 금천구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여름 덕산국민학교 교실에 약 40~50명의 민간인을 구금한 것을 목격 • 덕산국민학교 인근 창고에도 마을주민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을 목격함. 	
29	김○○ (21)	국군 3연대장 운전병	2007.8.16. 전북 고창군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 공비토벌 작전 때 조재미 대대장이 주둔 국민학교에서 민간인들 중 용수를 쓴 사람을 골라내던 것을 목격한 적이 있음. • 이런 일은 정보계통 부대원들이 했으며, 당시 현장에는 함준호 연대장이 있었음. 	
30	이○○ (21)	국군 3연대 군수과	2007.8.9. 전북 임실군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군 3연대 정보과장 김시곤은 2대대 소대장이었다가 보급관을 거쳐 연대 군수과장이 된 후 약 3개월 정도 지나서 1949년 정보과장이 됨. 	

제 5 권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31	이○○ (17)	국군 3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신병소대) 병사	2007.3.12. 서울 은평구 은평 노인종합복지관	면담 보고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9년 6월 국군 제3연대 입대, 1대대 3중대 (혹은 1중대) 3소대(신병소대) 소속으로 여순사건 당시인 1949년 6월~12월경 산청·함양 반군 토벌 작전 참가 • 관련 지휘관 : 3중대(혹은 1중대)장 박대위, 3소대(신병소대)장 김인식 • 국군 3연대 1대대 3중대 3소대(신병소대)는 1949년 여름에서 가을경 산청군 산청읍 명불상 학교에 주둔, 주둔 학교는 산청경찰서와 도보로 약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함. • 당시 주둔 학교에는 약 100명의 민간인들(대부분 장년과 여성) 구금, 신병소대는 불상일에 피구금 민간인을 두 손을 묶어 군용 GMC에 태워 산청읍 북쪽으로(이동 경로의 좌측에 강이 흐르고 강 너머가 지리산 방향, 우측에 큰 산이 소재) 이동, 어느 야산(큰 나무가 아닌 잔술 소재)에 이르러 피구금 민간인들의 손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야전삽·일반삽을 주어 구덩이를 파라고 지시하여 5~6개의 구덩이를 마련함. • 신병소대장(육사 7기 김인식)이 피구금 민간인들을 구덩이 앞에 세우고 신병소대원들에게 전쟁 경험이 없으니 사람을 죽여 봐야 한다고 총검으로 척살 지시, 신병소대원들이 척살하지 못하고 머뭇거리자 신병소대장은 신병 중 최연소자 이종술에게 먼저 척살을 시작하라고 지시, 이종술이 머뭇거리자 신병소대장은 권총을 빼들고 '네 놈들도 다 똑같은 놈들이다. 죽이겠다.'고 위협, 이에 이종술이 피구금자 중 부녀자를 총검으로 척살하고 나머지 신병소대원들도 총검으로 피구금 민간인들을 1인당 1명씩 척살함. 진술인도 당시 본 사건 현장에서 피구금 민간인 척살을 목격했으며 또 직접 척살함. • 척살 직후 신병소대원들은 주둔지로 복귀, 잔여 피구금 민간인들은 보병들(산병이 아닌 고참 병사들)이 처리함. 본 사건으로 학살된 인원은 100여 명이 될 것으로 추정함. 	
32	김○○ (22)	국군 3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 1분대 병사	2007.5.3.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48년 봄 군산 3연대 입대(군번 : 1304281), 여순사건 당시 구례·산청 등지에서 반군 토벌 작전 참가 • 1대대 3중대는 1949년 여름~가을경 산청에서 산청국민학교에 주둔, 학교 뒤편에 경호강이 흐르고, 경찰이 1개 교실 사용, 3중대가 2개 교실 사용 • 산청국민학교 구금 민간인 처리 : 피구금 민간인들 목격, 당시 부대원들이 민간인을 착검 M1 	

연 번	이름 (당시 나이)	소속 신분	진술일 진술장소	진술 형태	주요 진술	비고
32	김○○ (22)	국군 3연대 1대대 3중대 1소대 1분대 병사	2007.5.3. 진실화해위원회	진술 조사	으로 찢렸는데, 심장이 약한 사람은 헛찌르고, 어떤 사람들은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음. • 신병소대 관련 : 1대대 3중대가 산청국민학교 주둔 시 1대대 신병이 소대규모로 산청국민학교 에 주둔함.	
33	서○○ (22)	국군 3연대 2대대 5중대	2007.4.26. 전북 남원시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 1949년 국군 3연대 2대대 5중대(신병중대)에 서 근무 • 지리산 일대에서 국군이 빨치산 토벌작전을 위해 주둔했던 학교나 주둔지 주변의 둔덕은 거 의 마을주민들을 즉결처형하고 매장한 곳임. • 당시 국군이 마을주민들을 살해하면, 살해된 민간인의 유가족들은 산으로 도망가거나, 복수 를 한다고 빨치산이 되기도 했음.	
34	신○○ (19)	국군 3연대 2대대 5중대	2007.8.2 전북 임실군 금수다방	면담 보고서	• 1949년 가을 무렵 덕산에 주둔함. • 하사관학교에서 새로 배치 받은 며칠 후 민간 인을 학살한 적이 있음. 덕산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음.	
35	최○○ (20)	국군 3연대 2대대 6중대 2소대	2007.8.16. 전북 고창군 참고인 자택	면담 보고서	• 국군 3연대 2대대는 구례 작전 후 남원으로 철수했다가 산청·함양에서 공비토벌 작전을 전개함. • 덕산국민학교에 주둔할 당시 매복해 있던 반 군에게 공격당한 부대는 2대대 5중대 혹은 7중 대라는 얘기를 들음.	
36	신○○ (19)	국군 3연대 2대대 8중대 1소대	2007.7.3. 전북 임실군 신덕면 개인 사무실	면담 보고서	• 1949년 8월 말~9월 초 무렵 산청 덕산국민 학교에 주둔할 때 분대원 전원이 소집되어 차로 10~15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산골짜기에 서 민간인을 총검으로 처살한 적이 있음. • 당시 본인만 보초를 썼고, 나머지 분대원은 모 두 처살에 참여했음.	

342) 참고인은 입원 중이던 2010년 3월 초순경 사망함.

